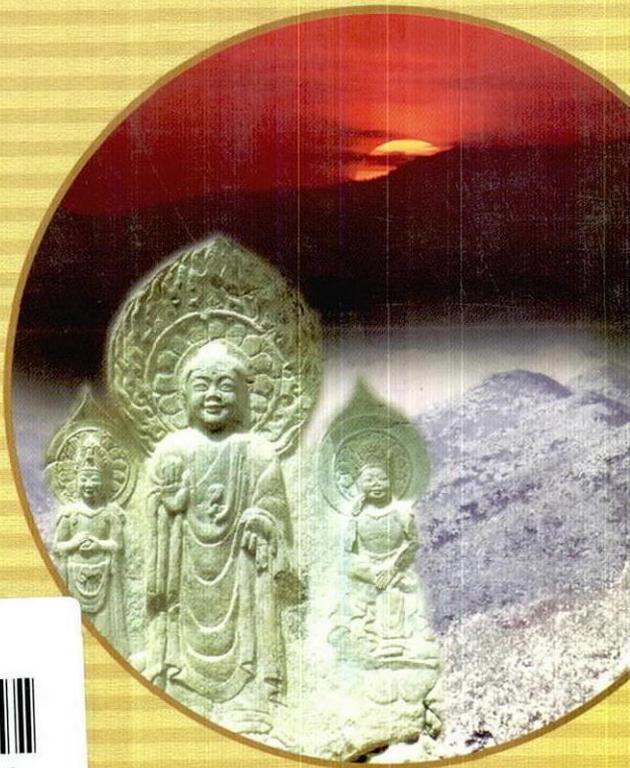


서산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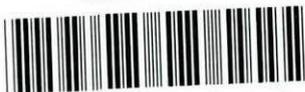
제10집 2000

특집

제7회 한성기 문학상 수상작가
김순일 회원 신작
「다시 瑞山사투리」



서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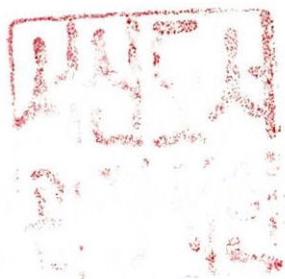


EM034344

서산문학회

서산문학

제10집 2000



서산문학회

권두언 / 발행인 이영하 · 4

제7회 한성기 문학상 수상작가 김순일 회원 신작특집 · 9

시 詩

- 비 그치자 외 / 김명화 · 33
봄의 연인 외 / 김태우 · 43
부끄러운 고백 외 / 맹정호 · 51
고향의 정 외 / 박영춘 · 56
비가 오면 좋겠어 외 / 박희량 · 65
내가 보는 생 외 / 송숙희 · 73
새치 외 / 윤용문 · 77
저녁 무렵 외 / 이경숙 · 81
산 자들을 위한 굿판 외 / 이근숙 · 87
여름 이별 외 / 이병우 · 92
피아골의 가을 외 / 이순수 · 101
배나무 아래서 외 / 이종안 · 105
개심사에서 외 / 주병구 · 108
영취산 가을 외 / 최병기 · 115
콩초인생 외 / 편세환 · 119
신농부가 외 / 한근식 · 124
마도풍경 외 / 홍인옥 · 131

제자 : 송 국 범

제10집 | 2000

수필 공트

- 향촌의 단오풍경이 그림구나 외 / 김현구 · 136
빨간 우체통 외 / 김현주 · 139
토산불알 창길이의 일기 / 남정화 · 148
휴가 외 / 문혜옥 · 163
겨울 생 / 성정희 · 170
부모님의 노후대책 외 / 송국범 · 174
대절산 예찬 외 / 유인석 · 179
늦깎이 돌날 외 / 윤용문 · 196
호적초본 외 / 이성주 · 199
운니동 캠퍼스 외 / 이순수 · 205
어머님의 꽃 외 / 이영하 · 211
수박 외 / 한동철 · 221
인생에도 가을은 있다네 외 / 한주희 · 229

소설

- 평행선의 침묵 / 이화란 · 234

제2회 서산시 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 · 263
류승희/이주립/신태희/정근오/이연실

- 서산문화회, 그 19년의 발자취 / 한동철 · 274
회원주소록 · 278
편집후기 · 280

| 권두언 |



암벽화를 그리는 심경으로

서산문학지를 열 번째 이어 내면서 불현듯 만수(滿水)의 저수지를 떠올려 본다. 쉬임이 없이 밤낮으로 흘러드는 실개천들, 그침없이 솟아내는 웅달샘, 피어 올랐다 되내리는 빗물들이 저수지를 채운다.

회원들로부터 스며 나오는 사유의 물줄기와 정신의 샘물들을 모아 작은 문학의 소류지를 이루어 놓았다. 글을 쓴다는 사실은 곧 자기를 위함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할 일이니 어찌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고요할 때만 보이는 자신의 참모습인 영혼에 접근하여 성찰해 내는 작업일진대 편편의 작품들이 왜 소중하지 않으랴.

이 지방은 동쪽을 둘러준 가야산을 뒷담으로 삼았고 남과 북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좌우로 끼어 서쪽에 솟은 비룡산, 팔봉산, 도비산으로 앞 정원의 격을 갖추었으니 한반도 온대의 하단전으로 무진장한 지기가 피어나는 천혜의 복지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한동안 머물다 돌아가야 할 고달픈 한시적 삶이지만 서로를 위안하며 군불 지피는 역할을 스스로 택하였고 후진들을 지도하는 일 크다 여긴다. 몸은 비록 풍량이 소용돌이 치는 시대,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처해 있어도 마음만은 한발 늦춰 밖의 속도를 안에서



조절하는 중용의 자세로 세상을 건널 것이다.

문학으로 여러 사람 배불리게는 못하지만 등 따숨게는 할 수가 있어서 풀꽃처럼 피었다 진 선인들의 따스했던 숨결이며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찾아 오늘에 전하고 들려주는 일에서 기쁨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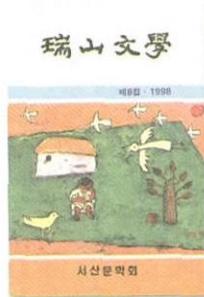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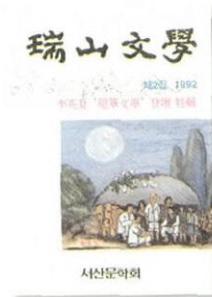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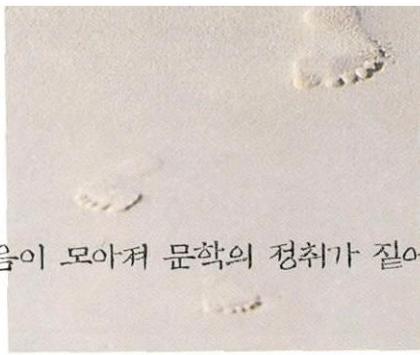
긴 세월과 거친 비바람도 지우지 못한 고대인의 암각화가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내었고, 어두웠던 고분안에서 잠을 깬 웅혼한 고구려 벽화에 느낌이 컸었는데 근래에는 사실 그림같이 선명한 고려의 현실벽화를 발견하여 탄성을 지르게 한다. 끊기고 막힌 암벽과 대화하면서 신의 계시에만 충실하였던 이름없는 화공들의 흔 자국을 다시 보면서 우리도 글로써만 말할 것이다.

이 책을 내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운 뜻을 드리면서 회원들의 淸安과 文運이 있기를 빕니다.

2000년 가을

서산문화회장 李 英 夏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 문학의 정취가 짙어가고 있습니다



서산문학 홈페이지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 <http://home.hanmir.com/~ssmh2000/>

서산문학



어서오세요. 서산문학입니다.
 서산문학은 충남 서산 지역의 문학 동인으로
 아름답고 넉넉한 삶을 바탕으로
 밝은 내일의 꿈을 지향합니다

0 0 0 0 2 5 3 7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click here](#)

서산문학 홈페이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대지는 넓되 짐은 그리 크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를 모두 들어 앉았을 때 등성등성 말고 무릎이 마주칠 만큼 바깥 다가가 앉아 서로의 체취를 맡을 수 있게. 지붕은 진회색 그대로의 기와를 얹으면 어떨까. 세월이 가는대로 이끼를 뒤집어 써 비오는 날 더러 풀 비린내 풍기는 따뜻한 정취. 마당의 텃밭에는 네 개의 아담이 있어야 한다. 한 줄에 옥수수, 한 줄에 고구마. 한 줄에 상추, 한 줄에 강낭콩 잊지마시라. 이 한 줄의 강낭콩은 한주 여사께서 가마솥에 밀콩을 많이 넣고 밥을 해서 구수한 누룽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바 있으니. 마당에는 오동나무가 두어 그루 있어 앞세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시듯 잘 들리는 비오는 그 오후 우리는 가로세로 그저 편하게 누워 누구는 썩 고구마를 누구는 옥수수를 누구는 누룽지를 손에 들고 소설을 이야기하거나 수필을, 시를 이야기 한다.

한료 인터넷 영역



2000. 5. 14. 청양 칠갑산 문학기행



2000. 10. 8. 제2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김순일 회원 신작 특집

다시 瑞山 사투리



2000. 10. 14 대전광역시 새서울관광호텔에서의 시상식 장면

한성기 시인은 1923년에 함경남도 정평에서 태어나 1952년 (文藝)에 시 〈驛〉과 1953년 〈病後〉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장하였다. 1947년부터 대전사범학교에서 15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198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전 근교에서 시 창작에 전념하면서 주옥같은 서정시를 남겼다.

다시 瑞山사투리

- 말이 제일 느린 -



김 순 일

충청도 스산 두메산골 삼고개 사는 떠꺼머리총각이 아베따라 나무 팔러 스산장 삼십리 길 무르팍 절며 절며 가다가 부춘산 고개마루에 허위허위 올라서서 나무지게 받쳐놓고 스산읍내 내려다 보는데

“아아아아구우! 아아아버지이 새에사양 차아암 너얼브으네에유우 저어 게에 다아아 우우리이 나아라아 따아앙이인가아유우!”

생전 처음 넓고도 넓은 세상을 보고 놀라자빠졌던 충청도 스산 두메산골 삼고개 사는 떠꺼머리총각이 군대에 나갔는데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산골 이랑 갯가랑 섬에서까지 나라 지키러 온 군인 중에서 말이 제일로 느려가지 고서는

“아아아버지이 도오올 구우올러어 ‘쩍’ 가아유우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돌에 깔려 죽었다는 대한민국에서 말이 제일로 느린 충청도 스산 두메산골 떠꺼머리 총각은 고문관중에서도 상 고문관이었어라

말이 약빠른 군인일수록 총알을 피하려다 먼저들 죽어가는데 이거참 총알이 피해가는 건지 어떻게 된 일인가 전쟁이 끝나고

“아아아버지이 주우욱지이 아얹구우 사러어 와아왔어어유우”

빛나는 계급장 검게 탄 얼굴로 늙름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에서 말이 제일 느린 충청도 스산 두메산골 삼고개 사는 떠꺼머리 총각이여

다시 瑞山 사투리

- 손빨래 -

빨순이 짤레 년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드르륵 속속 자락 자락 잘도 빨아 재끼네 손톱 다듬고 눈썹 붙이고 ... 코스뚱 판이나 벌일까?... 아직도 열한 시 삼십분 ... 싸우나 탕에 가서 땀이나 진탕 빼고 나면 점심 맛이 날까?... 헬스클럽?... 수영장?... 요즘의 비계살 미용수술이라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비벼나 볼까?... 옛다 모르겠다 유방암 자궁암이나 덜커덕 걸려 볼까?...

팔순이 다 된 우리 어머니 아이구! 궁상 떨고 오늘도 손빨래를 하시는구나 김치하고 밥 한그릇 게눈 감추듯 맘나게 드시고 풀소리 방망이 장단 손빨래를 흥얼흥얼 하시는구나

다시 瑞山 사투리

- 집 -

질경이 쇠비를 강아지풀 개똥죽 명아주 바랭이 뽑고 또 뽑고 뽑아도 자꾸
만 귀찮게 하는 집

참새 까치 콩새 제비새끼들 집안 곳곳에 지익직 똥깔겨대는 지저분한 집

쓸개미 쥐며느리 돈벌래 지네 노른자 지렁이까지 마당에 적당 적당히 사
는 집

동네 아이들이랑 마당에서 놀다가 다저녁때 흙가루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
는 집

저녁이면 식구들 모두 비잉 둘러앉아 아기의 재롱에 취해 히히 호호 gogo
하하 웃음이 가득한 집

그래 그래

흙의 자궁 싱싱한 집

다시 瑞山 사투리

- 푸른 산 -

하나만 낳아서 대들보감으로 키우려고 잔핑이 엷보 칠메기 주걱턱 빠드렁
니 지지리도 못생긴 여석들 뿌리까지 싹쓸이로 뽑아내고 사나운 눈비바람
막아주고 땡별도 가려주고 보약 맥여 키운 새끼였는데 한여름 장대비를 그
만두고 허영게 센 허리굽은 비바람에도 사태저서 버얼벌 떨고 있는 산

하늘 아래 소나무 참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그 그늘 아래 물푸레나무 조팝나무 아카시아
그 그늘 아래 돌배나무 산뽕나무 개목련
그 그늘 아래 싸리나무 산대나무 진달래
그 그늘 아래 치나무 멧문둥 고사리
그 그늘 밑 가장 편안한 땅속에서 잔뿌리 굵은 뿌리 얼크렁 설크렁 팍내
궁통내 고런내 범벅이 되어 지지고 복고 웃고 울며 검게 자란 새끼들 한여
름 장대 비바람에도 끄덕이 없는

푸른산

다시 瑞山 사투리

- 싸리꽃 -

지지리도 못생겨서
산으로 가네

부처보다 명칭해서
중도 될 수 없다네

장미꽃 입술은 분홍 가지
양귀비 가슴은 독화살 집

지지리도 못생겨서
꿀만 철철 넘치는
싸리꽃 자궁이여

산별때 이잉 잉 잉
꿀 먹고 배 두드리며
상왕산 개심사
비구니 불알 엿보고

명칭한 하루가
파랗게 웃네

다시 瑞山 사투리

- 걸레 -

나도 애초에는 와서방네 비단가게나 선물용 타올가게나 백화점 뽀스 진열대 속에서 허리 채고 살았지

단물 신물 다 빼먹고설랑은, 유황불에 집어던져 화장이라도 해줄 것 같은 면 극락이라도 갔을텐디, 내몸 부욱 찢거나 구겨박질러 가지고서는 집안구텅이란 구텅이 케케로 쌓인 먼지서부터 애기들이랑 증풍들린 노인네 똥오줌가지 말아내설랑은 이럴수가 있기는 있는 건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방바닥 마루바닥을 닦아내면서 눈물 콧물 쏟기를 수천 동이는 델텐디 성철의 누테기보다 더 해진 누테기로 구겨져서 살아가는 요즈음 가만히 생각해 보자니 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니구먼 똥오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된장국이나 물만 엮질러도 식구들 모두 나서 걸레 어딴냐? 걸레! 걸레! 나를 찾아 모셔가는 디 글세 증말 가만히 생각해보자니께 그런 것만도 아니구먼

다시 瑞山 사투리

- 동산에 올라 -

산정이 없다
칠떼기의 산에는

자고 일어나면
등그런 동산에 올라
잠자리 송장매뚜기 땅개비랑 놀다가
빼비 뽑아 먹고
송기도 해 먹고
꼬까솔새 박새 할미새랑 논다

정상바라기하며 기를 쓰던 아이들
잠자리 송장매뚜기 땅개비
그런 거 몰라
빼비 송기
그런 거 몰라
속정 한 올 풀어줄 사람 없이
높높이 콧대만 세우려고
비바람 눈보라 헤치며 살다가
고사목이 되어
허영게 삭아 내린 때에도

칠때기는
등그런 동산에 올라
검게 탄 해님이랑 뒹굴며
파랗게 논다

다시 瑞山 사투리

- 일개미 -

별빛 총총한 새벽
공장을 향해
오직 공장을 향해

시간은 금
쉬면 녹슨다
나사를 조이고
불을 지피다가
저녁별 무겁게
지고 돌아와
눈빠지던 아내 곁에
과김치구나

일개미여
여수같은 마누라
퇴깁이같은 새끼들
모두모두 데리고 나와
깨으른 노래 부르며
명청이 춤 느릿느릿
모두 함께 웃어봐

휘영청 밝은 달
암술수술 발가벗고 노래하는
달맞이 꽃 곱다

다시 瑞山 사투리

- 토종 -

아이들이
*영롱이의 젓을 먹고
*들리의 털옷을 입고
여름 겨울 없이
표준 온도의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이
잘나고 못나고 없이
크고 작은 것 없이
마르고 뚱뚱한 것 없이
표준치로 자란 아이들이
표준으로 자란 고기
표준으로 자란 생선
표준으로 자란 쌀
표준으로 자란 채소
표준으로 자란 과일
표준으로 자란 물
표준으로 자란 바람
모자도 허리띠도 신발도 뺄쓰도 ……
그리고 신랑 신부도
고르고 재치고 할 것 없이

누구하구나 짝이 딱 맞아
표준으로 꼴레를 붙고

그런 세상 멀리 멀리
섬에 사는
명칭한 서산사투리는
낮에는
망태기 메고 산에 올라
고사리 등글레 도라지 캐고
바다에 나가 그물 던져
우럭 주깨미 물텀벙이 잡고
밤이면
쭈시는 삭신 서로서로
셋어주고 두드려주고 활아주며
꿀향아리 되어
잡풀로 거무티티하게 태어날
토종의 씨를 뿌리는

* 영롱이 : 복제 짓소 * 들리 : 복제 양

다시 瑞山 사투리

- 우리 동네 구장떡 -

우리 동네 구장떡 마음 속이 두루뭉실해서 언제나 파아란 하늘처럼 웃고 살았지 허구헌 날 강물처럼 살아가는 우리 동네 개똥이 오매 똥레 오쟁이 오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동네 구장떡 그 두루뭉실하니 넓고 큰 손 때문에 배푼은 바가지 두드리며 실실실 조금씩은 웃음기 날리며 살았지 이생원 최서방 박선달 마당쇠 껌쇠까지 우리 동네 구장떡 파아란 정 찰람 찰람 담아주는 막걸리 대접으로 마시고 검게 탄 주름살 흥타령 부르며 질기게 질기게 살았지 개똥이 똥레 오쟁이 점순이 뱃국물 질질 흐르는 조무래기 모두 모두 우리 동네 구장떡 두루뭉실하니 따스한 손으로 나누어 주는 대추밤 콩 누룽지 고슬게 고슬게 받아 먹으며 흑염생이처럼 자랐지 우리 동네 구장떡은 하늘처럼 두루뭉실해서 타발 나온 부처님도 없는 불알 털렁 털렁 신나게 종치며 절로 갔지

다시 瑞山 사투리를 쓰면서

1

하 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람살이도 편리해지고 잘 먹고 잘 입고 폭신한 이불 속에서 잘도 자서 부우영게 살진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산다.

어딜 가나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남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핏줄을 세우고 산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이 '얼마나 바쁘냐?' 다 바쁘고 바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데, 절에 가봐도 바쁜 세상 일보러 모두 떠나셨는지 '혜에 웃는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며 지성드릴 게 따로 있지 어서 산을 내려가라' 던 그 부처님도 안 계시다.

세상 살기 좋아졌다는데, 쇠전에 가 봐도 말이 아니다. 송아지를 팔아서 주막집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들여 막걸리 잔치를 벌이던 우산리 산골 사람 하나 만날 수 없고, 돈똥치 때문에 두 눈이 번득이는 사람,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하늘에 대고 말뚝을 막아대는 사람들, 악, 악거리리는 사람들 뿐이다.

세상 살기 좋아졌다는데, 저자거리에 나가 봐도 푸짐한 웃음 만나기 어렵

고, 거나한 막걸리군들 만나기 어렵고, 모두 원조고 토종이어서 진짜 원조나 토종 만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다시서산사투리'를 쓰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세상 잘나가는 뒤죽박죽 시를 쓰지 않고 왜 한물 쳐진 명칭한 시를 쓰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에 머물러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안면도 방포에서 지는 해를 보며 명칭하고 느리고 촌스러운 바보시를 다시 쓰기로 마음을 굳혔다.

논밭에 나가 흙을 파고, 개에 나가 그물을 던지는 서산사람들, 낮게 낮게 허리 구부리고 사는 사람들, 바보처럼 헤에 웃는 나를 내려다 보시며 지성 드릴게 다로 있지 어서 산을 내려가라던 그 부처님도 다시 찾아 모셔야겠다. 송아지야 또 한 마리 낳면 되는 거지 장꾼들 불러들여 막걸리 잔치를 벌이던 우산리 산골사람을 찾아나서기로 하였다.

그런 낮은 곳에서 바보스럽게 사는 마음 편안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보자.

2

대한민국에서 말이 제일 느린 충청도, 그중에서도 말이 제일 느린 곳이 서산갯가다.

우리나라 어느고장 아름답지 않은 곳이있으랴만, 서산의 산과 들과 바다는 빼어나지는 않지만 순하디 순하게 잘도 어우러져서 사람들을 넉넉한 품으로 감싸주고 있는 고장이다.

동북쪽으로 둘러쳐 모진 바람을 막아주는 가야산과 그 아래 넓디넓게 펼쳐진 서산벌, 그 너머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파랗게 넘실대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니 사람들이 느긋할 수 밖에 없는 고장이다.

“아아아버지이 도오올 구우올러어가 ‘꽤’ 아아유우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돌에 깔렸다는 대한민국에서 말이 제일 느린 충청도 서산 두메산골 떠꺼머리 총각들은 어느 부대에 가나 고문관 중 상고문관 노릇을 했었다.

그런데, 말이 약빠른 군인일수록 총알을 피하려고 재치를 떨었지만 먼저 들 죽어가는데 이거참 총알이 피해가는지 어떻게 된 일인가, 전쟁이 끝나고 살아온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제일 느린 서산 두메산골 떠꺼머리 총각이었으니.

식구가 많은 집은 매일 매일 빨아도 한 짐씩 나오던 빨래, 그 많은 빨래를 이제 빨순이가 대신해주니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는가.

하루종일 집안일을 해도 모자라던 시간이 이제는 너무도 남아돌아 고스톱이니 싸우나니 헬스니 하는 곳을 찾아 다녀도 시간이 남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살다보니 허리아프고 어깨쑤시고 팔다리 절린 젊은 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팔순이 다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손빨래를 하신다. '손발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한 거여, 일하기 싫어하니께 손발이 절리지' 하시며 손빨래 한판 주리 하시고는 김치랑 밥 한 사발 땀나게 자신다.

날이 갈수록 시멘트 공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잠을 자는 방도, 걸어 다니는 길도 어디라 할 것 없이 시멘트 투성이다.

흙을 밟고 살아야,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시멘트 공간에서 살다보니 주말만 되면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식솔들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몰려가고 있다. 이름 있는 꽃이 아니더라도 잡풀도 살고 새랑 벌레까지 함께 사는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닐까?

아이들이 시멘트 방에 처박혀서 수음이나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흙마

당에 나가 동네 아이들이랑 뒹굴며 놀다가 해질녘에 흙가루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는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닐까?

저녁이면 식구들 둥그렇게 둘러 앉아 아기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우는 집, 그런 흙의 자궁 싱싱한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닐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건강하게 똑똑하게 잘 키우자고 한다.

똑똑한 자식만 모두 낳아쟁이면 그물은 누가 던지고 리어카는 누가 끌고 나무는 누가 하고 기름 옷은 누가 입어야 하나.

산에다가 크고 물쭉물쭉 자라는 좋은 나무만 골라 심으며 여름 약한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사태가 난다고 한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오죽잖은 나무나 풀까지 잔뿌리 굵은 뿌리 얼크렁 설크렁 함께 사는 산은 한여름 장대 비바람에도 끄떡 없다는 것이다.

땀내 궁통내 고린내 지린내 범벅이 되어 지지고 볶고 웃고울며 함께 사는 세상이 살맛 나는 푸른 산이 된다는 것이다.

곱고 탐스럽고 예쁜 미인꽃일수록 꿀이 적다고 한다. 미모에 취해서 벌나비 말리고 말려도 다투어 줄 서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런 미인꽃일수록 가슴이 차고 도도하고 잘 빠지고 저만 제일이고…… 언제나 공주여야 하고 여왕이어야 하는 미인꽃에는 사람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꿀이 처얼철 넘치는 꽃중의 하나는 사리꽃이라고 한다. 지지리도 못생겨 가지고 산골 깊어 들어가 살다보니 꿀냄새 진하지 않으면 어느 벌나비 찾아 들겠는가.

부처보다도 명칭해도 중도 될 수 없다는 싸리꽃. 단꿀을 산별떼 동이로 따먹고 개심사 해우소에서 비구니 불알도 엿보며 피아람게 사는 하루.

명칭한.

내가 어릴 때 태안 장벌에는 나이 든 칠폐기 한 사람 살았었다.

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이쁜이네 미운이네 사리지 않고 부자고 가난하고 가리지 않고 높고 낮은 거 가리지 않고 일해주는 칠폐기가 있었다.

일을 해주고 밥 한 사발 막걸리 한 대접이면 그만이던 칠폐기였다.

일만 생겼다하면 특히 굶은 일이 났다면 칠폐기 칠폐기 찾았었다.

성철의 누더기보다 더 헤진 걸레란 놈 '가만히 생각해보자니께 그런 것도 아니구먼 똥 오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된장국이나 물만 없질러도 식구들 모두 나서 걸레 어딴냐? 걸레! 걸레! 나를 찾아 모셔가는데 글썽 증말 가만히 생각해보자니께 그런 것만도 아니구먼!

성철만 부처냐, 이 걸레 또한 부처가 아닌가.

모두 높고 큰 탑을 쌓으려고 한다. 모두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산다. 얼마나 높고 크고 많아야 직성이 풀릴 것인가.

플꽃 이름 하나 모르고, 벌레며 새며 하늘에 피었다 지는 구름 한 점 한가로이 바라볼 줄 모르는 정상바라기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선 사람냄새 한 올 찾아보기 어렵다.

속정 한올 풀어줄 사람 없이/ 높높히 콧대만 세우려고/ 비바람 눈보라 헤치며 살다가/ 고사목이 되어/ 허영계 살아 내리는 때// 칠폐기는/ 둥그런 동산에 올라/ 검게 탄 해님이랑 뒹굴며/ 파랗게 논다//

나는 너무 바보지향인가?

시간은 금, 쉬면 녹슨다고 한다.

새벽부터 종종걸음 바쁘고 바쁘다. 벌보고 집에 돌아와서도 파김치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일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는 것인가

여수같은 아내/ 퇴깡이같은 새끼들/ 모두모두 데리고 나와/ 게으른 노래 부르며/ 멍청이 춤 느릿느릿/ 모두 함께 웃어봐//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해왔으니 이제 게으름과 친해 보면 어떨까.

그래야 달맞이 꽃을 곱게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세상은 얼마나 발전하고, 앞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젓소도, 양도 복제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복제하기란 시간문제일 것 같다.

나를 복제해낸다면 나와 똑같은 내가 계속 만들어질 터인데,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고르고 재치고 할 것없이 모두가 표준인것들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봐라. 끔찍하다.

누구하고나 짝이 딱 맞아 표준으로 굴레를 붙고 산다 생각해봐라. 오싹해진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두 표준치라고 생각해봐라. 아찔해진다.

나는 그래서 오늘 다시 서산사투리를 쓴다.

우리가 어릴 때, 구장은 그 동네에서 가장 인격자고 인품이 좋고 후덕한 사람이 뽑혔다.

그런 구장 뒤에는 손이 크고 인심 후한 부인이 있어서 내조의 한몫을 해 오기 마련이었다. 개똥이네 끼니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점순이 오메 부러진 다리는 다 낳았는지 두루 보살펴주는 구장댁, 출출해보이는 최서방이나 마당쇠 살짝 불러 막걸리 사벌 철철 넘치게 담아주는 구장댁, 늘 먹은 게 부족해 하는 동네 조무래기들에게 감이며 밤 대추 고구마 떡까지 나누어주던 구장댁, 어찌다 나오는 탁발스님 그냥 보내지 않던 손이 크고 인심 후한

구장택.

그렇다.

철대문 꼭 잠가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서산사투리를 쓴다.

驛

푸른 불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노선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만 역처럼 내가 있다

꽃병

우연한 순간

꽃병은 울며 돌아 앉은 너의 모습 가까이 가서 그 가녀린 어깨를 툭툭 치고 보면 벌써 너는 굳어버린 하나의 병이 된다.

꽃병 속에 넣어 넣은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들 죽어간 사람으로 굳어버린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닐까.

꽃병은 잊어버린 우리들의 시간 시간을 움직이면서 실은 그 부는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

주위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러한 것으로 어둡고 답답하니 파묻힌 얼굴은 벌써 떠나가 버린 공간을 외면한 지 오래이다.

이 쓸쓸한 탁자위를 무료로 차지하고 앉은 하나의 병이여. 물을 담으면 그 것으로 너는 비로소 움직이는가.

떨리는 떨리는 손들

꽃병은 다시 웃으면서 돌아 앉은 너의 모습 가까이 가서 그 가녀린 어깨를 툭툭 치고 보면 벌써 너는 굳어버린 하나의 병이 된다.

嶺

다시
찾아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5년동안이나 흘린 내 눈물을
보고 싶다
5년동안이나 흘린 내 눈물이
지금쯤 말랐는지를
보고 싶다

어느 날은 나무 밑에서
어느 날은 산마루에서
어느 날은 밤이슬 내리는
바위에 엎드려서
흘린 눈물

재넘어 하늘은 언제나 푸르렀어라

그 나무 밑에서 그 산마루에서
바위 위에서, 지금쯤 이슬이 되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눈물

비 그치자



김 명 화

비 그치면 어머니는 얼른
바지랑넬 고쳐 세우시고 하늘 높이
빨래줄 팽팽하게 걸었었다 그리곤
식구들의 빨래 다독다독
다시 내어 널었었는데
왜 어머니 마음은 젖었어도 층층이
개켜두고만 사셨을까 그걸
나는 또 왜 인제야 아는지
어머니에게도 개이는 날 있었을텐데
해 나면 훌훌
어머니 마음을 내어널지 구석구석
별이 들게 어머니 얼굴에도
고운 햇살이 들게끔 사시지
비 그치자 지금서
내 마음에 빗물이 똑똑 들는데
어머니의 마당가 분꽃은 살래살래
빗물을 튼다 분칠 없이도 편얇게
꽃잎 피운다

여긴 어머니가 올 수 없는 동네데
비 그치자 나는 전성으로
낮 씻은 화분 들여놓고 있었는데
환하게 빛나는 날 닮았다
어머니의 마당가 분꽃이
나를 보고 뽀얗게 웃는다

전설같은 날들이 있었네

반딧불이 호롱호롱 불켜는 밤에도
우리는 떡 감으러 갔었지 앞넷가에
선녀같은 열 몇살이었네 하지만
번번이 우리 옷을 훔쳐가는 것은
자갈밭을 기어 다니는 응큼한 어둠이어서 그 어둠이
또 다른 어둠을 셋 넷 거느리기 전에
우리는 재빨리 우리 옷을
찾아내곤 했지 그리고는 시시해져서
재미삼아 냇물로 돌맹이를 집어던지곤했네 간혹
겁없는 돌이 냇물을 뛰어넘어 저쪽
자갈밭에 떨어지기도했지만
맹세코 우리는 그 시절
아무의 가슴에도 돌을 던지지 않았지
울면서 떠나야 할 나무꾼은 있지도 않았고 다만
떠나보내야 할 어른들의 가난이
때없이 돌되어 우리가슴에 떨어졌지 그래서
우리는 한때 직녀가 되었고 어디서 들은 소문이었는지
쓴 커피로 잠을 쫓으며
베를 찼었지 한 뺨의 비단과 한 뺨의 잠은 비례하지 않아 늘
눈꺼풀 위를 날아다니던 가벼운 잠 아아
날개갈던 비단

우리는 겨드랑이가 가려워 참 오래도 날개가 돌아나는 꿈
지니고 살았지 짧은 잠 속에서도 생각은 언제나
초롱초롱해서 어디 눈밝은 견우같은 남자하나 있었으면
단박에 알아봤을텐데 칠석 날 밤 이속하도록
직조공장 지붕은 비에 젖지 않았지 만남으로
헤어짐으로 눈물 흘릴 일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마침내
향기로운 커피란 어떤 것인지도
알게되었고 직녀처럼
아름답고 슬픈 사람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슬프고 아름다웠던 날들이었네 생각나네
사람 많은 커피집에서
마흔 훌쩍 넘은 도시의 견우와 커피를 마실 때 가끔
아주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날아오네 내게로
별이 총총했던 직조공장 지붕아래
우리의 첫 커피 냄새 향기롭게 흔들리고 있네
먼지를 털고 책장을 넘기면 지금이라도
선녀같은 계집애들 직녀같은 계집애들 튀어 나올 것 같은
전설처럼 아름다운 날들
우리에게 있었네

병원 가는 길

많이 아픈 당신 태우고
병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길이 덜 된
고속도로처럼 남아 있는 날들 아득했지요
삽교천 지났고
당신이랑 들어가 꼭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집도 그냥 지나선데
달맞이꽃을 보였습니다
어 저 꽃 밤에만 피는 꽃인데.....
그런 생각 하는데 잠깐 당신이
내게 기댔어요 별거 아닐거야
큰 병 아닐거야 내가 할 소릴 당신이 했지요
별거 아닌 것도 별거로 생각하는
생각이 어린 나는 그만 더 아득해져서
차창밖 보다가 달맞이꽃 생각
또 했습니다 달맞이꽃이 흔들리는 건
바람이 와서 기대는걸까 달맞이꽃이
바람에게 기대는걸까
기다림이 얼마나 깊으면 꽃이 된다니 아직
기다릴게 많은 세상 달맞이꽃 피는 세상
그런 판 생각을 또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며칠 쉬면 낫는 병일거야

많이 아픈 당신이 하나도 안 아픈 나를
자꾸 달랬습니다 철없는 아내를
괜찮다 괜찮다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때가 몇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달맞이꽃이
환히 피어있었습니다

백일 편지

엄마 보셔요
엄마 가신 후로 둘째 동생 배가 꽤 불러졌어요
어떻게 잘 끌고 다니기는 할런지 막내가
차를 샀고요
며칠전 아버지 제사 땀 엄마도 오셨었지요 분명
부침개를 보고 암전히도 부쳤네 하셨을텐데
울었어요 몰래
장독대 옆에 도라지꽃 여전히 피고
엄마시계는 아직도
가고 있어요 엄마 안 계신 세상을
저희 형제들 조금 뼈격거리도
잘 걸어가고 있어요 막내 외손주
다섯 살 용범이가 그중 잘 걸어요
막 뛰어요 필쩍필쩍 엄마 계신 곳까지
그애 키가 닿을까요 엄마
오늘 백일제 지내고 절 내려와 금방
동생들 고기 사 먹이고 노래방 가서
제가 글썽
노래도 시켰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랬어요 탬버린 흔들고
손뼉도 쳐 주었어요 전 큰언니니까

엄마 절 칭찬하실건가요 용서하실건가요
아무렇지 않게 노래방 나오고 다들 잘 가라
잘 살아야 한다하고
차동고개 넘어오는데 멀미같은 눈물
울컥울컥해요 인제 내놓고 울었어요 이서방 앞에서
그래도 엄마 저 용서하셔야해요 저는
엄마의 큰딸 동생이 다섯이나 되는
큰딸이잖아요

가을 강가에서

겨우 두세발자국 물수제비에
강은 차르르 푸른 핏줄
풀어 놓는다
놀란 햇살이 퐁퐁 튀다 그만
물빛에 잠긴다 눈부시다
생각없이 강을 건너는 나비이거나
더 자라긴 틀린 나무 그림자거나 강 언저리
남시꾼의 모자이거나 다
아득히
눈부시다
강가의 물푸레 어린잎들 못참겠다
찰랑댄다 강물이 지나다말고
물푸레 뿌털 잡고 헤살부리는거다
혼자서 깊어질 줄 잘 알면서도 강은
저렇게 한번은 강가의 나무키
넘어보고 싶은거다 저 천진한 욕심
어린 물고기들이 덩달아
뛰어올라 반짝거린다 물비늘처럼
반짝이는 기억만 기억해라
강물이 스며들어 내 생각 푸릇푸릇
일으켜 세운다 머리 꼭지까지

강물이 들어
가을이 늦어 혹시 마른 갈대 한 무리
내결에 누우면 가만히 눈물지어 덮어 주어야지
강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만가만 강물에
지워지고 있었다

봄의 연인



김 태 우

눈보라 치는 강 언덕에
서 있는 당신은
사랑의 불을 지피며
꽂꽂 언 나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달콤한 미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시덤불에 얽힌 세월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리움입니다.

장미에 찢린 가슴을
여윈 손으로 보듬던
당신은
시들지 않는 아픔입니다.

라일락 향으로 봄을 맞이하는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自畫像

어머니처럼 포근한 틀 안에
어우러진 빛과 그림자.

코흘리개 어린 시절
곱디고운 사랑에 취해
보랏빛 꿈을 수놓았던
그 날은
어두움과 혼돈의 터널을 지나
오늘을 떠들고,

가슴에 잔잔히 흐르던
소박한 청순함
올곧은 정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랑의 강은
지구촌을 떠나 저승을 헤맬 때
이승의 파도에
텅 빈 가슴과 머리로
그리움과 아픔을 삭이지 못하는
昨승이 되었습니다.
半 百의 흐름을

졸려 운 눈으로 바라 본 내 안에는
오늘도
실타래 같은 삶의 맥박이
폭풍에 휘말린 혼돈의 늪에서
내일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5월에

라일락 향보다 더 진한
당신의 숨결에
내 영혼을 묻어 버리고

백장미보다 더 순결한
당신의 미소에
나를 불태워 드립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사이를
당신과 언제나 동행하는
설렘으로
천년을 두어도 변치 않는
철철 흘러 넘치는
생명수가 된 당신

밀려드는 그리움의 창가엔
맨 몸으로
억 겁의 세월을
녹색으로 수를 놓는 당신은
짓밟혀도 그칠 줄 모르게
젖을 먹여주는 사랑이 되어

해 맑은 미소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시지 않는 江

반세기동안 맺히고, 맺힌
얼어붙은 모진 세월에
억눌리어 왔던 斷腸의 限은
질기고도 진한 血육의 정에 녹아
모두를 울리게 한
분단 오십 년.

지척인 길을 들고 돌아
오십 년이란 세월의 기다림을
한 맺힌 응어리로 토해낸
한강아, 대동강아

뜨거운 포옹으로 홍수를 이루었구나.

자식은 시어도 영원히 시지 않는
어미의 마음은
빨간 보자기에 쌓인 서러움의 눈물이 되어
이념과 체제를 훌쩍 뛰어 넘었다.

울어라
울다 죽더라도 응어리진 가슴을

단숨에 확 풀 수 있다면
울고 또 울어라
온몸을 휘감는 뜨거운 환희가
어머 가슴에 통일의 씨앗을 띄워
암울한 밤을 밝히 비추는
시지 않는 햇불이 되게 하여라.

* 시다 - 變하다.

旋遊島

바다를 수놓은 섬을 돌면
섬, 섬, 섬...
코발트 빛 평원위로
폭풍우에 놀란 방주폭포는
새 하얀 모래 마당에
시린 속살을 주르륵 쏟아
짹짹한 바다에 취한
연인들의 가슴에 생명을 떡 감기고,

반쯤 열린 하늘 아랜
마흔 일곱 여인이
해 가는 줄도 모르고
소금기로 발갱게 취한
발가벗은 초여름을
비릿한 바람으로 잉태시키는 곳...

불과한 태양은 낙조에 얼굴을 담그고
온종일 모래와 뒤엉켜
갯바람에 물씬 배인
여인의 뜨거운 입맞춤은
아늑한 斷崖속에 녹아 내린다.

부끄러운 고백



맹 정 호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려서 그랬지요
어머니의 젖꼭지 물어 뜯어
한 쪽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보면
난 어린 아이였어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서른이 되어
문득 만져 본 손
어머니, 당신의 손톱은 어디에 있나요
손톱, 젖꼭지로 알고 물어 뜯었나요
그리고 보면
난 아직 어린 아이예요

분재

바위틈새 같은 데서
딱딱한 모래밭 같은 데서
혹은 쥐도 새도 접근하지 못하는
낭떠러지 위 같은 데서
아슬아슬하게 버티어 선
그런 높이어야 한다
너무 쪽 빠지게 잘 자란
거름기 많은 데서 휘청 가지만 치고 있는
혹은 욕정에 가득 차 뿌리만 왕성한
실로 남보란 듯이 잘 난
그런 높은 아니어야 한다
어떤 높이가 좋은 높인지는 다 아는 수가 있지
가리는 방법도 간단하지
영양제 없이도 물 한 바가지에
잔 뿌리 내려 사시사철 푸르른 높

두령을 하다가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서른 아들 제쳐 두고
앞서 나가는 칠순 할매의 말
“몸살날라 쉬엄쉬엄 해라”

고드름

처마 밑에 매달린 독한 놈
거꾸로 된 세상 거꾸로 사는 것이
세상을 바로 사는 것이다마는
고고한 선비도 아닌 것이 시대를 좇는 눈도 없는 것이
시퍼런 날을 세운 채 내 눈을 노려 본다

그래, 네 놈 무엇 그리 잘 났느냐
찢끔찢끔 부는 바람에 간질나는 햇볕에
제 몸 스프르 녹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는,
차라리 머리 박고 자살이나 할 것이지

그래, 네 몸 무엇 그리 잘 났느냐
죽을 시간없어 얼어붙어 있다마는
철봉 매달린 소녀처럼
안간힘을 썼느냐 절규를 했느냐

처마 밑에 매달린 독한 놈
죽으면서도 그여이
그여이 그여이 나의 심장에 꽃힌다, 독한 놈

저녁놀

창문 사이로
햇살 한 줄기
긴 그림자를 매단 채 지나갑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고개 돌릴 틈도 없이
담장 넘어
산을 돌아 산 너머로 기울어갑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때로는 가슴쓰린 사랑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노을과 함께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밤이 오는가요
바람이 불고 별이 뜨는가

고향의 정



박 영 준

산모퉁이
성황당 갈피
고부라진 길
들어서면,

아카시아 향기
싸하다.

산자락
밭머리 돌무더기
고즈넉한 길
들어서면,

아카시아 향기
울컥하다.

고향 찾을 때
고향 나올 때

바람결에
마음 달래며.

야카시아 혼자
눈물 삼킨다.

파도

깔끔하게 뽑아낸 수필 같은
파도의 속삭임
물결의 출렁임
욕망 기다림 행복의 진정을
바닷물에게 맞긴 파도

헉헉대는 소리와 물결로 빚은
모래톱 사랑의 흔적이다
흰색은 끝장의 색깔이다

어딘지 곁들고 끝장을 내고 싶은
바람이 분다
해운이 차다

정말 뽕뽕송송한 해변을
바삭바삭 걷고 싶다

해수욕장에 가면 상상화가 아닌
멋진 풍경화가 햇별을 쫓는다
해변에 널브러진 몸과 몸
파도가 들이닥칠 때마다

대사 한 마디 없이 독특한 소리만 난다
바위가 물을 얼싸안는 소리
조개가 모래를 내뱉는 소리
바람과 파도의 숨가쁜 애결소리

사랑은 원래 바쁘고 유치한 것
용궁에는 가지도 못한 거지
모래톱을 쌓아만 놓는 거지

분수여!

오르지도 못하면서
나르지도 못하면서

허공은 왜 해매는가

깊은 곳에서 샘솟아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재주밖에 없다면서
눈과 개울을 들려서
물은 물끼리 흐르는
사랑밖에 모른다면서

허공은 왜 해매는가

앞서서 앞서서
내쳐만 가는 길
넓고 깊은 곳에서는
물은 물끼리
하얗든 빨강든 뿌옇든
일심동체로 맞아준다면서

분수여! 분수여!
그대는 왜 애타계
허공을 헤매는가?
없는 길을 뚫으려하는가
없는 날개를 달으려하는가

눈

- 그해 겨울에 내린 눈 -

눈이 내린다
새하얀 눈이 내린다
세상이 하얗졌는데도
발자국이 없어졌는데도
맥없이 맥없이
눈이 내린다

푸른 소나무 푸른 산도
검은 소나무 검은 산도
모두 다 하얗졌는데도
속없이 속없이
눈이 내린다

하늘과 땅이 보이질 않는다
동서남북이 어디인질
미루나무는 모른다
해와 달도 보이질 않는다

눈이 내린다
외로운 마음 흐뭇해졌는데도
배고픈 가슴 든든해졌는데도

잔등이 후끈후끈해졌는데도
찌그러진 내 강통에
하얀 이밥이
그득 그득 쌓인다

다박머리 내 머리칼
하얀 솜이불 덮는다
하얀 솜이불 덮는다

참샘 고을에

*시름이 참, 잘된
파란 바다에는
울챙이가 마냥 뛰어 놀고
우렁이가 느물거리고
참게가 달을 바라보고
시름에 잠겼었지

참샘 고을에
어스름 달이 뜨면
개구리 울음소리
등잔불 문풍지 뒤흔들며
한껏 요란스럽게 울어댔지

하루살이는
여인 방에 켜진 불꽃을 보고
문풍지 사이로
달려들어가
몸을 불태워 버렸지

*시름- 모를 심은 지 사나흘 후 뿌리가 잘 부착되어 생생한 벼 포기의 상태를 일컬음

비가 오면 좋겠어



박 회 량

적어도 그 사람과 헤어질 땐
비가 오면 좋겠어
우산도 없는 그 사람이
흠뻑 젖었으면 좋겠어
그의 화장기 없는 얼굴이
시내를 걸어가면서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질 수 있다면
온통 젖은 옷을
벗어버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가 누구라는 생각도
이 정도 나이엔
이래야 된다는 관념도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에 그를 만날 땐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시원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어

팽이야 저리 가라

잠이 없는 내 아가에게
밤이 찾아왔다
찌그만 머리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기에
동그란 눈 크게 뜨고
눕기를 거부한다
책을 읽어달라
노래를 불러달라
이야기를 해달라
시간은 자꾸 흐르고
엄마의 참을성이
자꾸 무너지려 한다
도대체 방도가 없는 시간
참다 못한 아빠
방을 빠져나가더니
창문 밖에서 울어대는 팽이소리
“야옹 야옹”
깜짝 놀란 우리 아가
“팽이야 저리 가라”
엄마 품에 쑥 들어와 눈을 감더니
일 분도 채 안돼 잠이 들었다

영문도 모르는 창 밖에선
하품 섞인 팽이 소리
'야아음, 야아음"
그칠 줄 모른다.

모닝 커피 시간

가끔씩 찾아오는
불면의 밤일 지라도
아침을 준비하는 일은
나의 몫이다

쌀을 씻고
맛있는 국물도 만들어 놓고 나면
반갑게 찾아온 잠시의 여유.
어느새 내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들려진다.

진한 갈색의 액체 위에서
간밤의 기억들이 춤을 춘다.

소꿉놀이 하던 유년의 동무들
아픈 시대를 함께 걸었던 친구들
인생의 전부인 듯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목젖까지 차오는 그리움과
허무하게 가버린 알미운 시간때문에

온밤을 바쳐 씨름한
이 아침이 왈각 낫설다.

여기가 어딜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보이는 물건들이 낯익은
여기는 어딜까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내 연필 좀 꺾어 줘.”
네가 나이고 내가 너인 듯
그렇게 묶어진 여기는 어딜까

커피 한 잔이 모두
내 몸 속으로 파고들자
무심한 시간들도 제자리를 찾는다.

아침 햇살이 보이고
식탁이 보이고
활활 타오르는
가스렌지 불빛이 보이고,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서둘러야 할 내 아침이 다 탔다
커피를 마시는 고— 순간.

독감

네 이 녀석
다시 오기만 해봐라
수억 개의 세포들을
포로로 잡고
겉 없이 내 온몸을 휘저어놨지?
그게 너의 정체였던걸
내 모르지는 않았지만
네놈은 참 무정한 녀석.
특 하면 찾아와 놀자하더니
어느새 반란을 일으켜
내 의지를 침실로 유혹하고는
이들을 꼬박 기운을 빼는구나.
정녕 네놈과는
상관도 없을 테다.

감전사

밤하늘 어둠 밑에서
정렬을 태우고는, 이내
사그라지는 날개 달린 연인들

가릴 것도 없고
눈치볼 것도 없는
어차피 한여름 살아야 할 목숨.

뜨겁게 유혹하는 불빛 앞에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단세포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을까

밤거리의 여기저기서
사신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랑들이 타들어 가는데

‘지직 치지직’
젓가를 울리는 그 소리에
어느덧 내 겨드랑이 사이에도
작은 날개가 퍼덕이는데...

내가 보는 생



송 숙 회

내가 보는 생은 이렇다
네가 웃고 있어도
나는 네가 슬프고
네가 울고 있어도
나는 네가 기쁘다
키다리안 열매 속
빼꼼이 들어찬 씨앗의 하나처럼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문다
옆에 있는 너를 본다

봄날

봄날 아침
목욕탕 건물 옆을 지나며
크고 작은 풀꽃들 웅기종기 설켜있는 걸 본다
햇살이 흘쩍
회색의 담장을 뛰어 넘어
아무런 기척없이 풀잎 위에 내려설 때
개들의 오물 한 점 까맣게 두드러진다
하필 개들은 하다가
내 생각은 힘 없이 발등으로 꺾인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
즐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개똥과 초록의 풀꽃잎들
그 위로 망설임 없이 떠도는 햇살
지나가는 것과 남아 있는 것이란
그저 입술에 달짝거리며 꽃히는
이름들일까
따뜻한 봄날
나는 지금
무엇을 떨구하고 무엇을 스친다는 건가
햇살이 묵묵히
등을 더밀 뿐

화장을 하며

화장을 하며
나는 내 얼굴이
시든 해바라기처럼 노랗게 질려 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분별의 시간만큼 빠르게
때론 느리게
박자를 맞추듯 후우 숨을 끌라도
이건 아닌데
거울 속의 여자는 눈부시게 웃는다
(몇 초 전의 두 눈은 끝없이 물로 차올랐다)
여자는 더 이상 여자를 보지 않는다
쫓아 버릴 수도 구겨 버릴 수도 없는
작은 먼지처럼
생은 제 멋대로 풀풀 떠 있겠다는 전가
거울에 반사되는 먼지를 가리키며
여자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화장을 마치며
나는 더 이상의 손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집 이야기

우리가 결혼해서
좋은 일 곳은 일
지금의 아파트만큼이나 크게 키워져
그 많은 시간들을
단추를 풀 듯 하나하나 풀어낼 수는 없지만
어찌다가 이 곳이 내 등지일까
자조도 만족도 아닌 화두로
가끔씩
숨죽이고
빠져 볼 일이다

앞뒤로 층층 엮어진 아파트 창문들에
얼핏 스치는 수많은 남자
그리고 여자
등지를 만드는
등지를 전하는
불빛처럼 무성한
집 집
이야기들

가끔씩 하던 일 멈추고
그냥 지켜볼 일이다

새치



윤 용 문

“나도 하나 뽑았다”
낮잠쯤 잘까 했는데
마누라가 쪽집개 들고 덤벼드니
아들 녀석까지 나선다

“안돼”
들된 딸마저 덤벼 마구 잡아 뜯는다
마누라는 머리숱도 없는데
검은 머리 다 뽑는다고 호들갑이다

어차피 날 때 되어 나는 흰머리
어쩌랴 마는
그마저 더 많아져 포기하는 날이 올까
낮잠을 포기한 채 말겨 버린다.

찾습니다

할키고 꺾이고 찢리고
그러나 잃고 싶지않아서
찾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망했나요
하늘이 만든 농촌이 다 망하는데
프라피룬은 무엇이고
사오마이는 무엠티까

풍년을 약속하던 나락들은
피곤할까 누이고
목마를까 물먹이고

가을은 왔는데
건우고 남은건 근심뿐
오는 겨울은 출기만 할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고
해도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하늘이나 원망할까

하하 허허 잃어버린
호호 히히 웃음이나
찾으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뉘시줄 드리우고
추울렁 추울렁
뱃전에 앉아
울렁 울렁
든든하게 챙겨 먹은 아침밥
고기밥으로 나눠주고

눈 먼 우렁 한마리 낚아
크게 한 점 회 떠놓고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맛

초고추장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목장갑 끼고
소주병 목걸이 해서 매달고

빨발을 헐떡이며
뉘지귀신 뒤를 따라
한마리 잡으면 목장갑으로 감아쥐고
쭉 -
빨을 훑어내고
초고추장 폭 짝어 한 입에 우물 우물
소주 한 잔 먹는 맛

저녁 무렵



이 경 숙

색색 물감

대책없는 그리움처럼 번져
푸른 어스름으로 내릴 때까지
하늘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낮아지고 작아져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모든 것에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는 시간

건너 편 솔 숲에 낮선 새 소리
불쑥 솟아올라
편안한 날갯짓
뒤 따라 또 한 늪
어스름 저녁 속으로
풍덩

강보에 싸인 푸른 어두움
포근하다

이사하는 날 1

며칠 전부터

이사라는 집 마음에 얽혀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손에 붙지 않는 짐을 정리하면서

이래서 못 버리고 저래서 쌓아 두었던

소꿉살이같은 기억들 오늘은

모두 버리고 말라라 다짐하며

먼지 툭툭 털어낸다

손 끝에서 망설이는 마음

아니야 아니야 짐보다 먼저 꾸리며

트럭 두 대 나란히 내 식구 살림이 가득하다

이삿짐 무게가 삶의 무게인지

짐을 나르는 팔도 마음도 무겁다

나 스러지고 나면 그 뿐일

존재의 의미들

종이상자 속에 꼭꼭 묶여

이리 저리 던져지고

가볍게 살자 걱정하던 마음도 잠시

쫓가려 추억도 버릴 게 없어

소복하던 먼지 털어내고

장롱 깊숙히 마음 깊숙히

밀어 넣는다

이사하는 날 2

생각해보면 이사라는 게
옷 바꿔입기에 다름아닌데
새 옷으로 갈아 입는다는 불안한 호기심과
만만해진 옷을 버려야한다는
아쉬움까지
선뜻 내키지않는다

언젠가 내 생이 이사하는 날도 그럴 것이다
생이 나가고 나면
수십 년 수북한 먼지와
살 스치며 정든 낡은 벽지같은 껍질
지워지지 않는 상처마냥
못 자국 몇 개 남은
빈 집으로 썰렁하겠지

그런데
새 집은 어떨까
살만할까
궁금하다

행복으로 가는

밤 아홉 시
수기 셋과 승시기 인서니는
깜깜한 들길을 달려
등불 환한 행복을 찾아간다

아래 층을 지나
하늘로 가는 검은 계단
침묵을 오르면
행복의 특별한 꼬리 잘린 말과
패랭이 부인 그리고
작은 다니엘이 그들을 맞는다
특별한 꼬리 잘린 말이 우산을 펴들자
쓴 맛 단 맛 다 본 패랭이 부인의 등을 떠밀고
다니엘은 얼음통에 몸을 담근 채 흥얼 흥얼

헬프미메이킵쓰루더나아잇

풍뎡이에게 몸을 내주고
공중에 떠서
행복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슬픈 헛바닥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행복이 안 보인다고

남아있는 날들

팔 월이 가면
서늘해진 씨앗들 벌써
겨울을 준비한다
단단한 껍질로 알맹이를 감싸안은
세상 모든 열매들의 황금빛 내일은
폭풍의 계절을 당당하게 버티어낸
신의 선물
한 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체온
투명해진 대기 속으로 밀어내며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남아있는 남들보다 더 많이
살아온 나날
씨앗은 둥글게 영글어가는데
피어나던 꽃잎들 끝내 놓쳐버린
햇살 등지고 살아온 나의 안타까운 여름
땀에 젖은 손을 흔들며 이제 여름은 갔다
그러나 짧은 햇볕 아직 따갑고
혹 모를 꿈꾸는 나의 분신(焚身)
고개를 든다
하늘이 파랗다

산 자들을 위한 굿판



이 근 숙

죽은 자의 넋을 달래려
무당이 굿판을 벌여 춤을 춘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자들이 잔치를 벌인다
난
산 자들의 막힘을 풀어 주려
춤을 추고 싶다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죽은 뒤
잔치는 무슨 잔치
산 자들이여!
꼭 막혀 있는 자들이여!
모두 모두 모여라
확 뚫는 춤을 추자
세상을 향해
지랄 한 번 해보자

곰섬

새끼 잃은
어미 곰 한 마리
울고 있어
곰섬인가

자식 버린
어미가
곰섬에서
울고 있네

담배 권하는 엄마

두고 온 자식 그리워 울고 있는 딸에게
난 담배를 권했다
쓰디쓴 담배 연기를 목구멍으로 넘겨
피맺힌 그리움 삭이라고

돌아가신 엄마 대신 칠 남매 키우시던
내 아버지
열 살짜리 딸은 밤마다
왜 그 쓴 술 드시는지 궁금했었지

세상살이가 너무 쓰면
술이 달다는 것을 알아 버린
아버지의 딸이
사십 년이 지난 지금
내 딸에게 담배를 권한다

꽃지의 나조

- 음과 양의 환희의 춤 -

안면도 꽃지 바다는
예쁜 자궁을 가졌나 보다

그러기에 구름이 하늘을 덮는
음습한 날만 빼놓고는
한치의 주저도 없이
바다 속에 햇님이 품기지

사람들은 그들의 환상적인
사랑을 보려
가슴 설레며 모여든다
그리곤 숨죽여 기다린다

끝내 햇님을 품는
꽃지 바다 환희의 춤에
사람들은 순간
무아지경에 빠져든다
그리곤 꿈을 꾀다

그들 같은 사랑의 춤을

논리를 버려!

한 인간이 토해낸 토사물을 가지고
시인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시는 이래야 되고
시는 저래야 되고

숨막힌 세상 숨 좀 쉬자고 추는 춤에
논리를 가장한 위선으로
목을 조른다

토끼장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아
네가 말하는 논리가 바로 그
사각의 토끼장이란 것을
왜 모르느냐

왜 이래야 되고
왜 저래야 하는 거야

논리를 버려!
비가 오도다
그래서
비의 온도는 5도다

여름 이별



이 병 우

결국 이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었다 하면서도 글라디올러스 아래
그리고 플라타너스 아래 나는
또 한 여름을 건너왔다
몇 번의 폭풍이 지나가고
몽개구름 속으로 몇 번의 소나기가 이 땅을 적실 때에도
우리 집 양철 지붕 천정을 두드리던 음악 소리와 나는
내내 여름을 견디었다
한때 숲을 이루고 강을 이루던 꽃과 바람과 햇볕과 그리고
젖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던 나무와
결코 슬프지 않던 매미들의 울음 소리까지도
이루지 못한 사랑인 지나간 시간에 대해
반짝이며 작은 것들이 많은 기억을 돌려주었듯이
그 작고 가벼운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삶을 반짝이게 했었겠는가
베고니아가 피고
무궁화 꽃이 진다해서가 아니다
귀뚜라미가 운다해서가 아니다
처마 끝으로만 떨어지던 삶의 물방울들이

서로 영키며 큰 물을 이루고
초록이 그늘 아래 계절을 손짓하던 여름
어딘가 새겨져 있을 짧은 날의 나이트가
다만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
자꾸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 나는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다

차창 밖으로 걸려 넘어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꽃술들
아직도 나를 흔들리게 하는 들꽃들
바람 끝으로 날리는 그 숨결 소리가
지금도 아득하기만 하다

우리 사는 작은 날들

밖에는 아직 풀벌레 소리 자동차 소리
가슴 속 횡횡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절규 소리
아직 세상은 저렇게 여전한데 빈 방 홀로 나는 술병처럼 담겨
세상이 지나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은행나무 가지 끝에도 기어이 어둠은 내려 어린 별이 뜨면
문간의 귀뚜라미도 더 이상 울어대지는 않았다

언젠가 나도 사과나무 목책 아래 많은 꽃들을 보았었지
민들레며 개망초며 토끼풀이며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던 질경이의 납작한 모습까지
그래 한 번쯤 깃발처럼 펄럭이고 싶지 않은 삶이 어디 있었겠어
풀풀 흙먼지 날리며 오래 달려 간 먼길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가 보았던가 쫓아가 보았던가 아니면
나도 한때 아름다웠던가 아니면 아득했었던가
계절 오면 찾아오는 귀뚜라미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돌아보면 아득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어
정든 그리움 멀리 있어 아름답듯
정면에 있지 못하고 늘 측면을 서성이는 손님처럼
누구나 한번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삶이 또 어디 있겠어
흐르는 건 시간만이 아니지
잊었던 기억들 그때 그 기억 더듬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이 세상 살던 날들 힘들던 날이나 깔깔대며 용개치던 날이나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처럼 세상은 또 그렇게 잊었던 기억이 손짓하면
또 아득하게 돌아다보는 것이겠지
이루지 못한 삶이며 정든 이별이며 그래도 그리운 사랑이며
우리 사는 작은 날들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지

지나간 일들이나 돌아올 미래에 대해
별빛은 저렇게 여전한데 무엇하나 가까이하지 못했는데
벌써 가을이라니
잠시 지나쳐 두고 온 것 이렇게 아득하다니
작은누이며 동생이며 그 조그만 녀석들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할까
별빛이 차다
이제 창문을 닫아야겠다

오래된 시집

흐린 날씨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대기는 이미 내 곁을 떠나갔고, 나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다
시집은 너무 낡아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조금을 얻었을 뿐
전부를 얻지는 못했다. 생각해 보면
그가 하고 싶었던 말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안개의 강을 건넜지만
나는 건너지 못했다
이쪽과 저쪽이 다르듯이
내겐 아직 닿을 수 없는 무엇이 남아있었다
가까우면서도 완벽하게 먼 것
가까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성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나의 칼끝은 너무 무디어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쓸쓸했던 날씨들이 마음의 텅밭을 지나가고
나는 덮었던 책장을 다시 열었다

성긴 손가락으로 낡은 책장을 쓰다듬는
나는 한번도 불행 따위는 걱정도 하지 않았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겨울이었다

눈물겨운 식사

어머니와 함께 절(寺)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절에는 칠월백중이라고 해서 일년에 한번
죽은 영령들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절(寺)에 가시던 날
어머니의 손에는 수박 한 덩어리와
한 각의 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서너 개의 꾸러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꽂은 다음
집안의 죽은 영령들에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나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이 나고, 절은 찾은 손님들은
차려놓은 점심을 들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절간은 마치 잔칫날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나도 다른 아주머니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점심이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점심이 끝나 가는 것이 아쉬웠던 모양인지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구했는지 검은 비닐봉지에다
앞에 놓인 절편 한 접시와 과자 한 접시를
쏟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똑같이

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야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밥을 먹은 목이 자꾸만 매어오는 것 같아

나는 얼른 신을 신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무 숲의 매미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白夜

밤새 책상 모서리에 앉은 채
밤이 깊다
비어진 술병
온 책상을 잡아먹은 가로지른 원고장
주인 잃은 직사각 원고장과 나는
팽팽한 눈흘김을 주고받았다

새벽이 그와 나를 비웃고 있었다

피아골의 가을



이 순 수

세월이 흘러도 산은 피를 토하고

넋의 장엄한 소리는
이산 저산 새의 울음소리가 되어
찾아오는 이의 가슴을 저미는 구나
한층 부끄러움 없는
산전(山田) 피의 짙은
인간의 혈전으로
이름마저 '피아골'이 되었구나

피암 절벽의 엉클어진 나무뿌리는
생존의 표본인 듯 인내를 심어주고
줄줄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은
나처럼 흘러간 세월은 잊어라 하고
산 능선 이의 구름은
인생무상을 말해주고

세월이 흘러가도 산은 피를 토하고 있다.

특별한 날

으양!

탄생의 신호로 신고하던 날
강산이 뒤응박질 해도
잊혀지지 않은 날

오늘도

아스라이 허공을 보고있노라니
전화벨이 요란하다
003-0007이지요?
꽃 택배입니다

화분과 동행한 엽서

“뜻깊고 특별한 날
생일을 축하합니다
늘 푸른 솔향기와 같은
만남
마음의 보석으로 간직해요……”

허무, 외로움, 엉클어진 마음
모두 살아지고
사랑의 향기로 피어 올라

나를 에워 싸고
동공 속에 얼굴을 그리어 본다.

꿈

누가 깨웠을까

실오라기 같이
영끌어진 삶속
아름다운 내일을
질주하는 데
꿈마저 활아센 이 누군가

모두가
유년의 즐거움에서
소년의 희망에서
성년의 용기에서
짧은 한 생애를 엮어

어제의 회상의 나래로
오늘의 수명을 넘어
내일의 빛을 향해
겨냥 한 이 화살을

누가 깨웠을까
꿈은 그만 눈을 떠버렸다

배나무 아래서



이 종 안

매미가 신나게 우는 아침
나는 남편이 심어 놓은
배밭으로 가
종이 봉지 속 고이 싸인
아직 크지도 않은
배 하나를 땀다
가지가 흔들리며
잎새 하나도 함께 물어낸다
아까운 것, 하면서
이슬을 밟고 봉숭아 꽃 무성한
집 모퉁이를 돌아와
배를 먹는다
애기 주먹만한 배는
아직 어려서일까
제 맛이 나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어제밤 안개속에서
승복이 혼자 지키고 있던 운동장
오늘은 찬란한 햇살이
아이들의 하얀 체육복에 쏟아진다
올해 일학년 진우의 체조는
구령보다 항상 늦다

내가 첫 아이를 낳아
이 학교에 입학시켰을 때
눈물 나도록 행복했었다
진우처럼 일어서 앉어도 하지 않았다

어느 새 세 아이가 훌쩍
커버리고 초등학생은 없지만
가끔
학교 근처를 서성이며
운동장으로 자동차, 자전거
지나갈라치면
이게 길이나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산나리

산에서 왔다는 그대를
나는 뜰에 있어도
이름을 몰랐다
언젠가 꽃이 필 것만 알아
마음에 두었는데
날이 가도 키만 훌쩍 커 가던
어느 날 아침
흙빛 같은 그대를 보았다
땅만 보고 있어도
머리는 하늘 향해 추켜올리고
둥그란 얼굴은
주근깨가 총총히 박히고
자주빛 입술은
미풍에 날아갈 듯
뾰족한 두 봉오리

開心寺에서



주 병 구

못 하나 벌리러
개심사에 갔더니

가슴을 꺼내어 깨끗이 닦고 들어오라는 立石 하나가 오도카니 맞아주는 개심사는 한 겨울이건만 옷통 벗어부친 알통이 불룩하다 찌렁찌렁 울리는 고향소리가 이마를 후끈 스친다

통명스런 개심사는
메탕이를 내놓으며

그만 놀라서 주춤 물러나 메탕이가 아니라 못이라고 우물거리자 이렇게 미련스런 늙은 처음 보겠다며 벼락같은 소리로 편잔이다

그나마 응색한 집
어서 부수라 하네

새벽

허물을 벗느라
지난 밤 벗어 던진 껍질들이 구겨진 채
하늘에 내걸려
아무렇게나 너플대고
별은
아파트 수신안테나 위에
하나가 떠
빛을 잃어가고 있다
푸석푸석한 얼굴로

찬물을 마시다 시린 이에 깜짝 놀라
움켜쥐는 풍치처럼
아침은 밝아 오는데
여러 번 시동을 걸어보지만
균은 관절 잘 풀어지지 않아
단절음 몇 번 내지르고
피그르르 주저앉는 새벽

무너져 내린 달빛 홀로
찢어진 옷을 꿰맨다

오후 두 시

오후 두 시는
햇살의 머리채를 잡고
사납게 흔들어 댄다

뒤쪽이다
면도날처럼 발딱 선
날카로운 눈빛들이
고함을 지르며
어서 가라고, 어서 가라고
신발 뒤축을 밟으며 따라오는데

문득 팽팽하던 태엽
툭 풀어 헤쳐놓고
쏟아져 엉클어지고 부풀어 오른
방심한 구름을
넋 놓고 바라본다
텅 빈 무대에서
홀로 연주하는 알레그로

네가 하고싶은 대로 하라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눈을 감은
구름을 본다

겨울 목련

씨주, 그 속 어디에
그렇게 터져 나오는
힘이 녹아 있는지,
꽃불을 발그랗게 익히고
굳은 가슴팍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힘이 있는지.

나는 그런 날 목련을 보았다.

끄덕끄덕거리며
술이 이-만큼 올라
마당에 나섰는데,
겨울 바람은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꺾어뜯고 걸어차는데,
눈이 오려나
하늘을 보니.

나는 목련이 그러고 있는 줄 몰랐다.

얼라리, 눈이 내리네.
피부을 듯

쏟아져 덮칠 듯
싸늘한 가지에 아기 손톱 같은 꽃망을
목메도록 닥지닥지 달고
이 겨울에 목련은 꽃을 피워보겠다고
그리고 서 있었네.

민들레 곁에서

아침결 풀 섶의 민들레는 간밤의 아린 속을 쓸어 내리고 있다 버걱버걱
녹이 슬어 다 부서져 내린 가슴 다독거리고 있다

울켜 치밀어 오르는 쓴 물
화살처럼 쏟아지던
사유와 감정들
서로 영켜 뒤범벅이다

얼마나 비겁하였던가 갑옷 속 깊숙이 여린 알몸 감추고 내내 탄청부
리고 있었구나 뚝뚝 부러진 뼈마디들이 이제서야 반항한다

어둠이 뺏어놓은 이슬방울이 반짝인다 쓰디쓴 민들레 곁에서

영취산 가을



최 병 기

갈바람 한줄기
영취산 대밭에 부서진다

계절은
휘파람새 지친 날개에 내려앉고

가을은
낙엽에 스며든다

하늘은
구름을 흘러

앞새는
이백 일흔 나흘 지나온 길 손 흔든다

그렇게
세월 흘러 간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

기다림

반쯤 열린 창으로
검은 바람 한 움큼 몰려든다.

오가는 발자국 소리
웃짓 스치는 바람소리
행여 그의 모습일까.

마음은 저만치 문턱을 넘는다.

무량한 시간

골목길 저만큼 날 부른다.
그의 모습으로

꿈길처럼 다가선 귀로에서

꿈길처럼 다가선 귀로에서
지지 못한 태양이 떨고 있다

가을은
그렇게
가고 오지 못한 것들의 계절
떠나고 보내지 못한 것들의 시간

아득히 밀리는
그리움의 끝에 서면
눈물빛 코스모스를 피워내는
내 너의 그리움

애련한 시간 속에서
차가운 손을 내밀어 다시 한번
안녕

그리움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바람 흔드는 달빛소리
설악의 밤은 깊어만 간다

그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있을까

가끔은 북쪽하늘 쳐다보며
원망의 눈물에 젖지 않을까

산은 날 부르고
나는 그를 부르고
그는…….

애꿎은 노래는 계곡을 울려
가슴을 적시는데

그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꿈초인생



편 세 환

비좁은 단 칸 방에서
살을 비비며 정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고
차레대로 끌려나와
낮선 그이와 뜨거운 입맞춤으로
황홀한 사랑을 불 태웠다

파란 영혼은
한 줄기 연기되어
어느 비구름 속으로 흩어지고
가력을 잃은
회색 빛 시선 한 점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왔다

작은 미련도 남김 없이
치절하게 버림받은 너
동정의 눈빛으로 애원해도
다시 돌아보는 이 없는

버려진 그 이름
담배꽂초

농부의 꿈

재미도 등을 들린
빛 바랜 터전이지만
파초 잎 집어 고깔 쓰고
남풍이 부는 초원에 서면
일렁이는 청파의 물결 속으로
꿈은 익어간다

피약별 아래
늙은 농부의 땀방울은
여무는 낱알처럼 맺혀있고
점개 그을린
주름진 이마 위에
잔잔히 들리는 파도소리

전설처럼 내려오는
삶의 방식대로
욕심 없이 정성껏 가꾸는 재미
삶이야 있건 없건 기다려지는 가을
진정 애국하는 자 누구인지
용어진 손길 잡아주는 이 없다

이유있는 변

내가 만약 외로움에 떨며
홀로 지새는 기나긴 밤
눈물 젖은 배개 깃을 보듬지 못하고
자만하거나
돈 많은 부자였다면
나는 결코
널 사랑하지 않았을 게다

내가 만약 불행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고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삭막함으로
참을 수 없는 단장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나는 결코
널 사랑하지 않았을 게다

우수에 찬 커다란 두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며
원망하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우러러 호홉 할 줄 아는

여유로운 그 마음을
나는 좋아한다.

신농부가



한 근 식

전설처럼 묻혀버린

그 샘 줄기에서 새어나오는 눈물인가 하였다

푼돈도 되지 않는 맵던 고추밭은

이미 없어져 내 눈물의 근원은 아니다

딱딱한 가뭄에도 그 길은 늘 젖어 있었다

안타깝게 작아져가는 두노인과

착해서 빨리 늙어가는 형님내외가계신곳

그 곳을 뒤돌아 설 땐,

샘처럼,

마치 매운 고추 가루 흠뻑 들어 마신 듯

내 앞에 구부러진 딱딱한 길은 늘 그렇게 젖어 있었다

意味

- 돌부처의 미소 -

돌 부처의 미소로 만나자

한 개 돌덩이로 태어남을 원망치 않고
깊은 믿음으로 삶을 가꾸어 聖體를 이룬

그런 돌부처의 미소로 만나자

높았던 코는 스쳐 가는 세월에게 미련 없이 주어버리고
낮아진 코가 오히려 정겨운

바로 그런 돌부처의 미소로 만나자

그 곱던 살결 비바람에 험하게 패였어도
부드러운 미소만큼은 고이 간직하는

우리 그런 돌부처의 미소로 만나자

가족사진

- 새 나라의 어린이 -

아빠,
우리 이런 나라 맹글자

바다쓰기 하지 안는 학교가 인는 나라
숙제 검사 얻는 나라
우리 그런 나라 맹글자

아빠,
난 이런 나라가 좋아요

체육시간마다 비가 오는 나라
향긋한 아이끼리 모여 사는 나라
난 그런 나라가 좋아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그런 나라 만들어 볼까

모처럼 아이들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궁시렁거리던 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아들 녀석은 이불 위에 큼지막한 나라를 영토로 맹글어 노코
그 곁에서
딸 아이 촉촉한 느낌으로
아내처럼 향기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 콩에 관한 두 가지 단상 -

1988

어디론가 훌쩍 달아날 것만 같은 안타까움에
싸늘한 기운이 제법 寒氣로 와 닿던 가을
그 한 모퉁이에서

나는 콩깍지를 모아 불을 지피었다
매캐한 연기가 빈 들녘을 슬금슬금 채우고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때를 맞이한 콩알처럼

작은 손짓 하나에도 어디론가 훌쩍 달아날 것만 같은 작은 너 하나
때문에

2000

이 너른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가 있음으로 이 대지가 기쁨지고

이제 그 작던 콩알 한 톨은 주방에서

나 대신 불을 피우고 가족들의 저녁식사를 준비하며

따스한 밥 냄새와 넉넉한 공간과 더불어 있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가을 바람은 아직도 마음을 산란케하고

오히려 콩알처럼 작아져만 가는 초라한 내 자신을

저 가을 들녘 한 구석에 던져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다스리려

아내 모르게 슬며시 문을 닫을 뿐이다

우리 무슨 빛깔로 익어가지?

저마다의 빛깔로 익어 가는 이 계절에
우리 무슨 빛깔로 익어 가야하지?

불타는 느낌으로 가볍게 물들어 가는 저 단풍잎처럼
그렇게 붉은 빛으로 익어갈 수는 없는 걸까
아니지,

나에겐 것처럼 이루어냄이 많지 못하여
그냥 얼굴만 부끄럽게 물들일 뿐이지

그럼 온 들녘을 풍성히 물들이고 있는
저 황금 빛 곡식의 빛깔로 익어갈 수는 있을까
아니지,

쭉정이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삶
빛깔을 얻지도 못한 채 찬 바람에 풀풀 날아가 버릴 뿐이지

다만,

머리카락 몇 올에 얻어지는 흰 빛깔을
그래,
年輪이라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스릴 뿐

馬島 풍경



홍 인 옥

측백나무 빙 둘러 선 납작한 분교 옆
산 기슭 돌아서자
한때 푸른 숲으로 어깨가 떨렸을 배 두 척
폐선으로 묶여 시커멓게 달려든다
빗발은 사뭇 굵어져 말잔등을 적시고
삼각형으로 바다를 훑는 등대 아래
사방 칠혹 백리
사람들과 날개 큰 나방이 비 피해 모여드는
해변수퍼 처마 밑
석쇠 위의 장어 굵은 소금에 자지러진다
그 보다 더 아픈가 낯선 저 여자
긴 날숨과
오래오래 마시는 참나무통에
흔들리는 마도는
오늘밤 숙취

예산역에서

오후 세 시 오십 분 서울행 장항선 놓치고
시간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졌다

반들반들한 철길 아래
종대로 늘어선 세월이 꿈틀대더니
사지를 뺏어 기지개를 켜다
침묵이 빠진 철길
꼬리부터 돌돌 또아리를 틀어 단단한 은빛 공으로 튀어 올라
놀라 벌어진 내 입안에 착상한다
무거운 뱃속에는 서른 몇마리 올챙이
더 이상 크지 못한 채 떠다니고
촉촉한 초록색 양서류의 꿈 시든 채 꽃혀있다
자갈들의 자갈자갈한 시선에 등이 따갑다
철길이 예리한 칼날로 번쩍 일어선다

오후 네 시 오십 분 서울행 장항선 들어오고
운동화 끈을 조인 내가
플랫폼에 섰다

천변살이 1

밤을 새워 온 비가 아침엔 강물이다
중랑천변의 내 집은
큰 비오면
뉴스 첫머리로 뜨지만
저지대 살이 염려가 어디
큰 물 뿐인가

신경통으로 세월 보내는 늙은 누나같은 중랑천은
익사할 줄을 알면서도 오는 비 다 마셔
가끔은
탕탕히 살이 오른 참붕어이고 싶었다
늘 젖은 빨래가 걸려 풍경이 쪼개지는 창 밖
어느 새 비 그치고 노을이 스며
배 부른 그림자 데리고 물구경 나간다
선홍빛으로 깨지는 물결에 눈을 찔려
소스라치는 날 많이 남아 있어도 나는
매일매일 살이 찌는 참붕어가 되어
파.다.닥
깨어나고 싶은 것이다

천변살이 2

며칠 목 놓아 울더니
멀리서 수의를 벗고 오는 하늘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한 아버지의 머리 위로
때 이른 별이 뜬었다가
이내 지고
어깨를 늘어뜨린 꿈들이
하얗게 바랜 채 돌아선 자리
강아지풀만
어느새 다복다복 들어섰다

여름내 생떼쓰던 매미도
숨 죽인 오후
때가 채 빠지지 않은 빨래들
바지랑대에 묶 맨 채 나부끼고
시름에 잠긴 아버지의 신발과
뼈가 부러진 빗자루
햇볕 아래 앓고있다

천변살이 3

한쪽 다리 짧아 걸음마다 세상이 기울던 작은 이모네는 모자란 다리
괴듯 네 귀통이 살림이 반듯했다 호마이카장롱 속에 목화이불 색색이
엮드려 있고 이른 아침 구석 구석 싸리비 소리에 환히 열리던 마당
심심한 햇살에 맨드라미 봉숭아 일없이 실했던 뒤란 장독대 반 독 남
은간장 저 혼자 맛들어 갈 때 손톱 봉숭아물 똑같이 줄어든 명옥언니
와 나 뒷마루에서 긴 낮잠 꿈도 없이 잘 잤다 열 한두 살 계집애들 정
수리의 반듯한 가리마

같은 생

꿈꾸던 작은이모

등나무 줄기 담 위에서 헛손질하는

여름 한낮

깊은 우물에 두레박 떨어지듯 철썩

가슴이 내려 앉았다던가, 엄마는

한꺼번에 아주 무너져

그 날 이후 볼 수 없는 작은 이모

지금은 수평의 세상을 활보하시겠지

鄉村의 端午風景이 그림구나



김 현 구

풍 습(風習)도 세월(歲月)과 함께 변해서 근래(近來)에는 단오(端午)날
오 이 별로 명절(名節)다운 기분(氣分)도 적지만 나의 어린시절(時節)만
해도 가지가지의 놀이로 재미롭게 유쾌(愉快)한 하루를 보냈었다.

요즘은 기껏해야 그네 뛰는 풍경(風景)마저 보기 드물다.

뒷동산 높은 가지에 그네줄 매어 놓고 규중(閩中)에 묻혀있던 마을의 처
녀(處女)며 아가씨들, 녹의홍상(綠衣紅裳) 펼쳐입고 그네터에 나서면 앞마
을 뒷동네 총각(總角)들의 가슴도 울렁, 멀리서 바라보고 수줍음에 얼굴 붉
히던 풍정(風情)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어릴 적 옛마을의 회상(回想)이 그
립다.

처녀는 그네줄에 올라 총각에게 선이라도 보인다지만 젊은 아씨는 그럴
자유(自由)조차 없었던 그 옛날…….

그네를 뛰는 것은 어느 지방(地方)이나 공통(共通)하나 관서지방(關西地
方)이 더욱 성행(盛行)하여 단오날이면 아름다운 옷과 음식(飲食)으로 즐김
이 정월 초 하루(正月初一日)와 같다고 했으니 월남(越南)한 이 지역 사람
들의 향수(鄉愁)가 이날따라 더욱 간절할 것이다.

이날이면 창포(菖蒲)에 머리감고 시냇물에 밥을 던져 굴원(屈原)의 충혼
(忠魂)을 위로(慰勞)한다 하거니와 관상감(觀象監)이 주부(珠符)를 만들어
경상(卿相)과 근신(近臣)들에게 돌려 주었던 것은 궁정(宮廷)의 풍습(風習)

이었고 이 날을 가려 사찰(寺刹)에 공을 반사(頒賜)하여 장(醬)을 담게 하던 것과 부채를 선사(繕賜)하는 것도 세시기(歲時記)에 나타난 한양(漢陽)의 풍습이었다.

요즘도 단오날에 부채를 선물하고 보내는 습속(習俗)은 간혹 남아 있는 듯 하지만 명절같은 차림은 전혀 볼 수 없고 창포를 꺾으러 가는 처녀도 보이지 않아 차츰 기억(記憶)의 명절(名節)로만 남아지는 듯 하다.

시골은 모내기가 바쁜 철이지만 이날 하루 그네줄 밑에서 쉬어봄이 어떨른지!

봄누에 샅에 올라 허던 고치집을 지을 때도 이때이다.

뽕나무 가지에 올라 까만 오디를 따먹던 그 시절.

향촌(鄉村)의 단오풍경(端午風景)과 함께 한없이 그림구나.

매미소리에 노염(老炎)이 식고

이솝우화(寓話)에서 매미나 여치는 여름내내 선선한 그늘에서 노래나 읊고 놀다가 추운 겨울날 개미집에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구박(驅迫)을 당하는 부정적(否定的) 이미지의 곤충(昆蟲)으로 나온다.

한데 동양에서는 긍정적(肯定的) 이미지의 곤충으로 우러름을 받고 있다. 매미는 석가(釋迦)가 마야부인(摩耶夫人)의 몸에서 갈라져 탄생(誕生)했듯이 외피(外皮)로부터 갈라져 나온다 하여 석충으로 존대(尊待)받고 매미 '蟬' 자도 불가(佛家)의 선(禪)에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해 놓은 문헌(文獻)도 있다.

「육운」이 쓴 『한선부』에는 매미에게도 다섯가지의 덕(德)이 있다 했다.

매미의 머리위에 갓끈(수)이 있으니 '文'이 있고 기를 마시고 이슬만 먹고 사니 '淸'이 있다. 곡식(穀食)을 먹지 않으니 '謙'이 있고 짐이 없이 사니 '儉'이 있으며 철에 맞춰 울고 철이 끝나면 깨끗이 죽으니 '信'이 있다 했다.

매미는 입추(立秋)에 울기 시작해서 30일 만에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오덕(五德)을 갖추었기로 예부터 매마른 인간행실(人間行實)의 도덕적(道德的) 상징(象徵)으로 우러러 왔던 것이다.

옛날 우리 대관(大官)들이 썼던 관모(官帽)의 뒤에 두 개의 널판한 날개가 붙어 있었는데 이를 매미날개라 하여 선관(蟬官, 仙官)이라 불렀던 것이다.

어떤 물리적(物理的) 효과(效果) 때문에 매미날개를 단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문(文), 청(淸), 겸(謙), 검(儉), 신(信)의 오덕(五德)을 본 따라는 정신적(精神的) 계명(戒銘)을 항상(恒常) 머리에 공존(共存)시키기 위한 슬기였던 것이다. 우리 선조(先祖)들은 이같은 정신적이고 추상적(抽象的)인 요소(要素)를 체질화(體質化), 구상화(具象化)하며 살았던 것이다.

정말 멋있다. 어디선가 매미소리가 들려온다.

『매미소리에 노염(老炎)이 식고 머리뒤의 매미날개를 단심(丹心)에 적신다』는 옛 고인(古人)의 한선부.

서양(西洋) 사람들은 기승을 부리는 잔서(殘暑)를 늙은 여름의 아내(올드 서머즈 와이프)라 하여 노처(老妻)의 투정으로 표현(表現)한데 비(比)해 얼마나 질(質)이 높은 납량(納涼)이며 도덕적(道德的)으로 성숙(成熟)했음인가.

우리 모두 매미소리 들으며 격렬(激烈)해진 더위를 식히고 오덕(五德)을 맘속에 적시기로 하자!

빨간 우체통



김 현 주

딸 아이가 보낸 긴 메일을 읽는다.

옆에서 얘기하듯 제 기분을 시시콜콜 나열한 편지 아닌 편지가 그대로 나는 반갑다.

그러면서도 나는 수시로 읽어볼 수 있는 아이의 필적이 적힌 편지를 아쉬워한다.

대학에 간 지 벌써 두 해, 단정하던 아이의 글씨가 하얀 교복차림의 모습만큼이나 그리워진다. 외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야간자습을 마치고 밤늦게 기다려주는 사람 없는 하숙집으로 들어설 아이가 측은해서 나는 자주 편지를 보내주었다.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오고, 더 자주 보내달라고 조르던 아이는 졸업하면서 제가 받은 편지들을 커다란 상자에 담아서 보물인 양 소중하게 들고 왔다.

각처로 흩어져 진학한 친구들의 편지는 물론 반 친구들과 주고받은 쪽지들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을 나는 애뜻한 마음으로 고이 싸두었다.

인생에 있어 어렵고 힘든 고비가 입시뿐일까 만든 곁에서 돌봐주는 부모 대신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주었을 그 편지와 쪽지들이 세상을 살아갈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 될지를 생각해 보았다.

힘든 시간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눈 글들을 훑날 살아가면서 지치고 외로운 날에 다시 보면 새록새록 떠오를 친구들과 어려웠던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대학생이 된 아이에게 것처럼 편지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인지도 모른다.

연애편지라는 말조차 사전 용어가 되어버린 시대에 그다지 중요할 것도 간절할 것도 없는 편지를 쓰자고 종이 찾고 봉투 사고 할 아이가 있을까.

아니다. 내가 컴퓨터를 아예 멀리했거나 네트즌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조금 불편한 채로 그냥 살았으면 아이는 한 해 한두 번쯤은 편지를 보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아이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특별히 설레거나 감동할 일이 사라져 가는 내게 각별한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나는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눈이 덜 피로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돋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시력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눈이 아프지만 않으면 펜을 쥐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쓰고 지우고 하다못해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낱말로 낙서라도 하다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모르는 사이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노기가 사그러진다.

그럼에도 종이보다 컴퓨터를 찾는 일이 잦은 것은, 눈이 덜 아파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과의 소통이 더 간절할 때문이 아닐까 한다.

내게 처음 메일을 보내면서 딸애는 “딴 세상을 보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

전후 독일의 인플레가 극심했을 때 전기작가였던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신이 모아둔 원고료를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고 하다가 몇 년을 저축했던 돈이 고작 우표 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연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익숙하면 할수록 차곡차곡 쌓아온 내 무엇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 가는 듯한 허탈이 느껴진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컴퓨터 한 대로 시외전화는 물론 국제전화까지 무료 통화가 가능한 것이나 서울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좋은 글 쓰라면서 친구가 사준 원고지가 있다.

문학 언저리에 마음을 기대본 사람이라면 원고지라는 낱말에 묻은 가없는 동경과 설렘을 안다. 그런 원고지를 두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은 흡사 외도를 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침단의 문명을 누린다는 감격보다는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부자연하다.

시외전화 한번 하려면 전화국에 접수해놓고 삼십여분 이상을 기다리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천리 길만큼이나 멀고 가물가물하게 들리는 수화기를 잡고 공연히 목이 메어서 할 말을 잊곤 하던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얘기를 아이들은 단군신화만큼이나 아득해 한다.

품 속에 언제나 부치지 못한 편지 한 통쯤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멀리 빨간 우체통이 보이거나 하면 가슴이 뛰어서 몇 발짝쯤은 그대로 지나치다 다시 우체통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을. 이윽고 봉투가 우체통 바닥으로 떨어지는 가벼운 마찰음을 무슨 운명의 소리처럼 들곤 하던 시절의 사랑에는 순정함이 있었다.

단어 하나라도 고르고 골라서 보내고 싶은 정성이 요즘 아이들이라고 없을까만 그러나 연애도 스타트라인에 서듯 사귀자 하고 시작한다는, 안 그런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공연히 서운해졌다.

딸에게 찾아올 사랑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아이와 함께 환희하고 탄식하기

를 내심 기대했었는지도 모른다.

미팅 소개팅 채팅 사이버팅 등등의 온갖 통로가 아이들에게서 아련한 기다림과 설렘을 앗아갔다는 것을 모르고 봄치녀 제 오시듯 누구에게나 사랑은 새풀옷 입고 진주이슬 신고 오는 줄 알았다.

전자 우편함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는 보안성이 있다.

비밀 번호를 알 수 없는 한 더 이상은 딸에게 온 편지를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 편지 봉투의 색깔이며 글씨를 보고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상상해보는 즐거움도 그래서 끝이 났다.

옛날 내게 오는 편지를 나 모르게 어머니가 읽으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당연히 딸에게 오는 연애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나로서는 아이가 제 컴퓨터에 꼭꼭 숨겨둔 메일들이 궁금하고 뭘지 대단히 손해를 보는 기분인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아이는 통쾌하다는 듯이 깔깔거렸다.

내년이면 대학생이 될 아들이는 아예 친구들과도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아서 내가 끼어들 여지를 원천봉쇄 했다.

휴대전화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나무라자 필요가 아니라 문화라고 항변하던 아이에게 딸애가 제가 쓰던 것을 주고 요금도 내주고 있다.

대학에 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는다고 했다나 보다.

편리란 거미줄 같다.

늘려 가면 갈수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세상에 갇혀 누에고치처럼 살게되는.

오늘도 나는 우체국 앞을 지나다가 공연히 열 장이나 우표를 샀다.

시동생

하나뿐이던 시동생이 타계한 지 어느덧 7년이다.

기일이 돌아와 동서네 아파트로 가면서 마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졸달음친다.

천식을 앓았던 병력밖에는 없던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반 년이나 의식 없이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떴는데 나는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

당시 세 살 일곱 살인 조카들을 돌본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식물처럼 누워 있는 시동생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시동생이 의식을 잃던 날의 새벽을 나는 잊지 못한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동생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피로워하고 있었다. 남편과 동서가 시동생을 태우고 응급실로 가고 나서 칭얼거리는 조카를 토닥여 재우고 무심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눈길을 잤다.

그 때 왜 그랬을까,

다시는 시동생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무슨 방정맞은 생각인가 하고 자신을 책망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거머리처럼 내 의식에 달라붙었다. 두렵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괜찮다는, 별 일 아니라는 기별을 기다렸지만 곧이어 큰 병원으로 간다는 연락이 왔고 나는 그것이 내 탓만 같아서 남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족의 애타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은 미이라처럼 뼈만 남은 육신을 가지고 먼 길을 갔다.

그 날도 왜 그랬을까.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굳은 마음으로 병실을 찾았는데 시동생은 내가 들어서서 시간에 맞춰 운명을 하고 말았다.

하관을 할 때서야 두상만 유난히 불거진 시동생의 유체를 보았다.

넋이나 되는 형수들 중에 나를 가장 가깝게 따라주던, 서글서글하고 씩씩하던 사람이 욕심도 꿈도 다 접어두고 자기 키만큼의 유택으로 눕던 유월의 산야는 무섭게 푸르고 싱싱했다.

그 해 추석에 나는 동서를 데리고 시동생의 성묘를 갔다.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 논둑길을 어린 딸을 업은 동서가 묵묵히 걸어갔다.

잡풀이 무릎을 덮는 길을 용케도 헤치며 걸어갔다.

뱀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 한껏 가슴을 죄는 나하고 달리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동서가 낮익은 길 가듯이 씩씩 걸어갔다.

그 뒤를 따라가며 나는 부질없이 눈물을 떨궜다. 울지 못하는 속이 더 아프다고 하지 않던가.

산소에 도착해서도 동서는 여윌했다.

담담한 듯하고 무심한 듯했다.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산소 근처에서 풋밤을 따는 척하며 보니 동서는 잔디가 채 자라지 않은 봉분의 잡초를 차근차근 뽑고 있었다.

나는 그런 동서가 밍기도 하고 좋기도 했다.

이듬해 첫 기일이었다.

제사상을 준비하면서 동서와 나는 말없이 손만 놀렸다.

형들이 먼저 간 아우의 영정에 재배를 하고 동서에게 잔을 올리라고 하자 벌써부터 눈자위가 붉어있던 동서가 돌연 뺨 등을 돌려 주방으로 가버렸다.

우리는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시동생이 반년이나 죽음과 사투를 하고 있는 동안 비록 의식이 없었다고 해도 손 한 번 따뜻이 잡아주지 못했는데, 받지도 못

할 술 한 잔이 무슨 소용인가.

시동생은 힘겹게 잡고 있던 생의 끈을 놓으면서 내 꿈 속을 다녀갔다.

뭔가에 잔뜩 화가 나서 울근불근 하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으며 어쩌면 생시처럼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또 한 번 불길한 꿈에 놀라서 나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안절부절을 못했다. 입에 올리기도 참 사위스러워서 남편에게도 차마 꿈 얘기를 못하고 이제나저제나 나아진다는 소식을 고대했으나 영 허사였다.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때 마취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이 의료계에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

환자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육창을 치료할 때마다 사지가 경직되곤 했다는 시동생을 떠올리면 뇌사라는 개념이 더욱 모호해지는데 어쨌든 환자나 가족에게나 더 없이 가혹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한 줄기 바람이 되고 물이 되었을 사람이지만 내 기억 속에 시동생은 여전히 나이를 먹지 않는 씩씩한 청년으로 살아있다.

품위를 생각하다

8월 7일자 신문에서 읽은 기사내용이다.

한 젊은 판사의 부인이 남편을 언론에 고발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남편이 부장판사와 더불어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고 스트립쇼를 하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즐겼다는 것

이다.

새벽까지 10여명의 법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일반인들이 불법 단관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심판해야 할 판사들이 이들과 똑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법관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 법관들이 정의 속에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사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처사가 아닌가 의심한 기자가 남편인 판사에게 전화를 하자 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한다.

자신도 책임을 지고 사법부를 떠나겠다는 말과 함께 아내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하고 무지한 행동을 한데 대해서 더 이상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두 돌이 지난 아이를 둔 평범한 판사의 아내라고 자신을 밝힌 젊은 여성의 용기가 실로 감동적이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판사의 결단도 아름답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아내의 신뢰를 선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된 세상이 아닌가.

품위라는 말을 생각 할 때마다 나는 옛 야사 하나가 떠오른다.

조선시대 한 재상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온 관리들이 앉아있는 방에서 장지문을 사이에 둔 채 요강에 불일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소리가 장지문을 넘었을 것은 불문가지이고 민망해진 재상이 노해서 본즉 어머니인 터라 얼굴만 붉히고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일갈했다는 말이 "정승의 어머니는 오줌도 못 눈다더냐?"

였다.

사리 밝고 시원시원한 성품의 노부인이 명분과 예의만 찾아대는 관리들

을 야유한 것이다.

그렇듯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남 앞에 당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품위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요즘 새로 임명된 어느 장관의 도덕성 시비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이중 국적이 말썽인가 싶더니 모 기업의 사외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자금을 빌려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어마어마한 차익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급기야 장관이 말썽이 된 거액의 차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얼마 전에는 막대한 재산가로 알려진 총리가 세금을 안 내려고 명의신탁을 했다가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임을 하고 말았다.

이웃 나라 중국의 고위 각료 한 사람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구속 직전 자살을 했다는 보도다.

드러나지 않았으면 사회환원 같은 속앓이도 없었을 장관직이 끝내 지켜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말의 동정이 가기는 한다.

덕망은 몰라도 오랜 교육자로서의 학식조차 하루아침에 빛이 바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재물로 비천함을 가릴 수는 있어도 품위를 사기는 어렵다고 한 누군가의 말이 오래 전에 읽은 외신 하나를 생각나게 한다.

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부모상을 설문 조사했는데 “도덕적으로 청결한 부모”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자식은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지만 자식을 부끄럽게 하는 부모란 자자손손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자신들은 물론 두 돌이 지난 자식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겠다는 젊은 판사부부의 결연한 의지가 그래서 더 돋보이는 지도 모른다.

토산불알 창길이의 일기



남 정 화

서 기 3000년 8월 15일.

瑞山 富春山 정상에 자리잡은 瑞山玉女博物館 玄關앞에 세워놓은 玉女の 나상을 거의 1시간이나 전부터 열심히 바라보고 서 있는 반바지 차림의 한 노인 뒤에는 30여분 전부터 그 노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던 20대의 한 청년이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어 기지개를 쭉 켜드니 뭔가 자기는 이제 영 지고 말았다는 그런 일종의 패배감에 가득 잠긴 표정으로 터덕 터덕 노인 곁으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 별거벗은 여인상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떠나실 때 저도 자리를 뜨려고 할아버지만 지켜보고 서 있었는데, 그만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 여인의 어디가 그렇게 좋아보이십니까?”

“젊은이, 좀 답답한 질문 같구려. 조물주가 지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빛낸 것이 여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오? 그런데 젊은이는 왜 나하고 그런 경쟁을 했소이까?”

“흰머리에 또 희고 긴 수염, 검은 T셔츠에 검은 반바지가 저를 사로잡는 바람에 꿈쩍도 못하고 할아버지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이 말 한 번 재미있게 하시네, 나는 아름다운 여체를 무아지경에서 감상하고 있었는데 젊은이는 이 늙은이를 감상하고 있었다구요? 허허”

“젊은이, 이리 가까이 좀 와 보시오” 하며 할아버지는 젊은이의 손을 덥석 잡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다. 할아버지는 1. 2. 3층의 전시실을 지나 미로처럼 얽힌 로비를 돌고 돌아 7층의 역사 재현실 안으로 들어간다.

“젊은이, 앉으시오. 초면에 나의 이런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전공은 ‘지난 1000년사’를 연구하고 있지요”

“네?! 그러세요? 저는 OO대학 20세기과에 재학하고 있는 趙源一이라고 합니다.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별 말씀을…… 동지를 만났군. 반갑소이다. 源一 君도 이 玉女博物館이 우리나라의 3대 박물관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사 중에서 21세기의 사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시는가?”

“그건 잘 몰랐습니다. 말씀 낮추십시오. 박사님.”

“음, 그러지. 그런데 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아. 나는 21세기를 깊이 알고 싶을 때면 이곳을 찾는다네. 그러니까 1년에 너댓 번은 이곳을 찾아요. 지난 8월 15일에도 이곳에 왔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보름만에 다시 찾아왔네.”

“玉女의 傳說을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앞에 걸린 스크린을 향해

“21세기 전후의 우리나라 사회전반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키워드를 주니까,

“21C를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가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간의 정설이 번복될지도 모르는 가식 없고 순박한 일기장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라는 응답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네, 보여 주십시오” 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하니

“이 일기장의 원본을 보시고 싶으면 2층 전시실의 대한민국 - 종합 - 일

반 - 일기 - 자료실로 가십시오” 라는 응답이 나온다.

☞ 지금부터 보실 이 사료(일기장)는 박물관 현관 앞에 있는 玉女像의 주인공인 玉女の 무덤을 박물관 뒤에서 지금의 玉女像이 있는 곳으로 천묘하던 중에 玉女の 무덤 바로 뒤에 묻혀 있었음.

☞ 일기장은 玉으로 만든 함에 정성스레 보관되었으며 일기장의 포장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음.

토산불알 창길이, 너는 무소유의 실천가였으며 무언의 실천가였구나. 세상을 꿰뚫어 본 너의 통찰력은 그저 감탄스럽기만 하구나. 너는 명칭이인줄 알았더니 천재중의 천재였으며 예언가였구나. 그러나 너의 예언만은 맞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네 일기장에 몇 번을 되쓰고 또 되쓴 말 중에서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한 그 예언만은 빗나갔으면 좋겠다. 너도 지하에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만은 바라지 않겠지. 그것만은 막아다오. 살아생전에도 너는 내 말을 잘 들었잖니? 부탁한다. - 남선생

☞ 그리고 일기장 맨 뒷장에는 이런 내용을 써서 끼워 놨음

창길이는 서산시 예천동에서 연탄대리점을 하는 김 오곤 여사 댁에서 연탄을 배달해주고 얹혀 사는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참말로 착하다 착한 놈이었습니다

(편집자 주 : 연탄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가정연료였음. 19공탄이라고도 불렸으며 석탄으로 만들음)

처음에는 이놈의 이름도 성도 나이도 몰랐습니다. 나이는 어렵해서 40은 넘었을 것이라고 짐작들 했고, 창길이라는 이름은 연탄집 김 오곤 여사가

그냥 지어 부르던 이름이고 동네에서는 토산불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토산불알이라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길이만 보면 누구나 아무런 할 말도 없으면서 괜히 ‘토산불아~~~르’ 하고 목청을 돋구어 큰 소리로 불려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녀자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킁킁거렸습니다.

하루는 내가 진짜 토산불알인가를 확인하려고 목욕탕엘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놈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면, 꼭 소주 한 병은 사주어야 되는데 이날도 소주 한 병을 사주기로하고 현대목욕탕으로 데리고 갔지요. 나는 소주 한 병을 또 사주기로하고 그 놈의 거기를 만져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화가 나서 왜 안 되느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그 부산하던 목욕탕이 조용하네요.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창길이 손을 잡고 탕 안에 들어가서 왜 못 만지게 하느냐고 조용히 물었더니, 나중에 제 색시가 만약 거기를 남이 만졌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만졌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더니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것은 제 색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러면 네가 만지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지요.

“창길아 만졌니?”

“응.”

“거기 새알 같은 거 있니?”

“있어”

“몇 개 있니?”

“두개 있지..”

“두 개가 똑같으냐?”

“똑같은지 다른지 만져봐서 알 수 있나?”

“임마 대강 말야!”

“대강? 응, 비슷한 것 같어.”

나도 내 것을 슬그머니 만져 봤더니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강 비슷하다니 진짜 토산불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로 그런 희한한 별명이 붙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정스럽게 지내던 놈이 어느 날 온데 간데 없이 우리동네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마도 서산 아닌 객지에서 횡사했을 것 같아 그 놈 찾기를 단념하고도 머리모양이나 옷, 걸음걸이가 그 놈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시내버스를 탔다가도 돈 가방을 놓고 탔다느니 배가 터질 듯이 아프다느니 하고 소리치며 중간에서 내려, 그놈과 비슷한 사람을 쫓아가 확인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산출신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놈이 근무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부산까지 쫓아 가본 일도 있고, 또한 서울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어렵쇼 놈이 「공중도덕 수호결사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병원 대기실에서 안하 무인격으로 떠들어대는 꼬마 녀석 에미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흔들면서 ‘야, 이×아! 새끼 교육 좀 잘 시키란 말야’ 라고 호통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지금도 속이 다 후련하답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인가 라면박스 만한 크기의 소포가 왔기에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일기장이 딱 차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공중도덕 수호 결사대장 창길’이라고 썼는데, 아따도 창길이가 제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필체가 유치원생 글씨 같았거든요.

나는 일기를 한달 이상 읽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태워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안다면 틀림없이 공모자로 극형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해당 단체나 일반인이 이 일기를 읽는다면 그들도 내가 다 한 짓이라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와 개인이나 단체의

부정 비리를 족집게로 쫓쫓 빼내어 놓은 것처럼 홀랑 까버려 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언젠가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수 개월을 고심했더니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瑞山 富春山의 玉女峰에는 玉女の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서산시민 전체가 감시하는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玉女の 무덤근처에 매장을 하면 그의 후손은 승승장구 번성하는 반면에 서산시내는 한해, 수해, 화재, 역병 등의 극심한 재앙이 몰아닥친다는 전설 때문에 玉女峰에 오르내리는 서산시민은 누구나 玉女の 무덤이 안녕한가를 꼭 살피거든요.

나는 사람의 사체가 아닌 불법과 불의, 부정을 담은 쓰레기보다도 더러운 오물을 담은 이 일기장을 玉女の 무덤 근처에 묻으면, 재앙이 아닌 번영과 번창이 서산시민에게 안기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계시 같은 영감이 떠올라 한 겨울 함박눈이 한없이 내리는 한밤중에 玉女峰에 올라가 玉女の 무덤 뒤에 이 창길이의 일기장을 고이 묻어 놓은 바입니다. - 남선생

☞ 궁금한 사항은 '남선생'이 성과 이름이나 아니면 성은 남씨이고 직업이 선생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읽어보실 일기의 내용 중에도 남선생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 지금부터 소개하는 창길이의 일기 내용은 어휘와 문체를 현대 문법에 맞도록 다시 편집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과 비교하고 싶든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전시실을 이용하십시오.

200×년0월0일

이거 큰 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우리나라는 인제 망했다 망했어. 아니 국

회의원이 국회를 떠나고 병원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교수가 강단을 떠났으니 나라가 지탱할 수 있겠나?

199×년 0월0일

1년 내내 국회가 열렸다. 생산적인 국회였다. 아니다 파산적인 국회였다.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다 그래도 국회가 열려서 죄지은 국회의원 하나 못 잡아갔다. 뭐? 죄지은 국회의원 못 잡아가게 하려고 국회를 1년 간이나 열어 봐? 에이 순...

200×년 0월 0일

우리나라에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이 셋이 있었다. '3김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근래 한 사람이 늘었다.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다. 중증이다. 3김 뺀 치게 중증이다. 딱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안이 있다. 대통령을 대표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표로 부르자는거지. 그러면 그런 환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199×년0월0일

언론 개혁을 빨리 해야한다. 늦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군사독재 때는 잘도 순종만 하더니. 언론에 자유를 주니까 고삐 풀린 ○○가 돼 버렸어. 군사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서 벗어나기 어려운가봐. 선동, 근거 없는 헛소문도 대서특필, 말단 공무원이 점심 한 끼 얻어먹어도 대서특필, 소비절약 캠페인을 벌리면서 저들은 매일 신문을 독자 숫자보다 배도 더 짝어 지국에 내려보내어 버리게하는 낭비의 선두자이면서, 칭찬꺼리는 저 구렁이에 줍쌀만하게 써 주면서 말단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무슨 죽을 죄나 지은 양 대서특필하고 있으니, 참 참 참말로 문제다 문제.

199×년 0월 0일

퀴즈 하나. 조국의 미래는? 예. 청소년이지요. 청소년이 망가지면? 예, 예? 글썽요. 신문 방송 잡지가 우리의 미래 청소년을 망쳐놨어요. 재벌 개혁보다 이것 먼저 개혁했어야 했는데. 야~ 신문 방송 잡지들 좀 봐라. 섹스 폭력 퇴폐의 전시장. 자기 자식들도 볼텐데. 혈압 오르네.

200×년 0월0일

의사선생님들!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선서도 했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님! 면목 없습니다.

200×년 0월 0일

의사선생님들! 의권을 쟁취 하고자 환자 곁을 떠났습니까? 환자들의 치료권은 어디서 찾죠?

그럼 교권을 짓밟히고 끄꿍 앓으면서도 교실을 지키고 있는 초, 중등 교사들의 못난 병 좀 고쳐주세요.

200×년 0월 0일

의권은 쟁취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의사들만 잘 살겠네.

200×년 0월0일

의사선생님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 자 붙은 높은 양반들 그동안 군서기, 면서기 교원들보다 세금 얼마나 더 냈습니까? 번만큼 내셨다고요? 그렇죠 벌어드린 만큼 내셔야지요. 예, '사' 자 붙은 높은 분들도 공평하게 세금 내고 같이 삽시다.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은 말이죠, 봉급은 먼저 보기도 전에 세금부터 받아가요. 그걸 보고 원천징수라고 하죠?

200×년 0월 0일

의과대학 교수님들! 지금 제자 중에는 의권이니 의료 수가니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저 지구 끝 오지에 가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 줄 의료 봉사 지망생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강단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의술을 가르치세요.

199×년 0월 0일

우리의 국군, 조국의 방패. 그런데 여기가 또 비정상입니다. 전투기 사 오고 군함 사 오고 탱크 사 오는데 뒷거래가 있다나? 정말 우리나라 망한다 망해.

199×년 0월 0일

군대에서도 말뚝 달고 별뚝 다는데, 군사 작전 능력 아닌 별다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네요.

청렴 결백하고 강직한 군인은 별 아래에 다 있다네. 안되지 안되구 말구.

200×년 0월 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기로 국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직접민주정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친목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은 본회의장에서, 작은 계모임은 상임위원회의실에서 하시오.

200×년 0월 0일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로 해결해야지요.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국회의원들 바뀌! 바뀌!

200×년 0월 0일

국회의원은 거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국회의사당으로 등원.

200×년 0월 0일

경라도당과 전상도당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망해. 게다가 양반도당까지 가세라. 망하지 망해. 징그러워라 지역감정.

200×년 0월 0일

경라도당. 전상도당. 그 쪽 사람 아니면 절대로 당선불가. 그 쪽 사람이라면 아무나 무조건 당선 OK. 선거에 지면 그 때부터 모든 것 다 반대다. 배고픈 놈 밥 주는 것도 반대고 목마른 놈 물주는 것도 반대다. 너무 합니다. 너무 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199×년 0월 0일

군사정권에는 잘도 순종하던 언론. 그 때 정부로부터 받았던 탄압을 복수라도 하듯이 대안 없는 반대와 흠집내기, 섹스, 폭력, 퇴폐풍조의 전시장. 개혁 개혁 언론개혁 빨리빨리.

200×년 0월0일

강제이별 50년 만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한반도가 웃음 천국, 눈물 바다. 보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눈물, 박수, 환호로 뒤범벅이었는데, 열 한나라당의 멤버들만 우거지상이었네. 뱀뱀이 뱃속보다도 더 붙었더라. 에이 순……

200×년 0월 0일

북한과 정상 회담을 하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는 통일의 열기가 피어오르는 마당에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야 할 국정의 동반자가 겨우 한다는 말이 “저기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저기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우거지상을 하고 이런 불평만 하고있는 딱한 친구들. 인간아! 돈 좀 쓰는게 문제냐? 그런 경우에는 부족하면 꺾다래도 꺾야하고 꺾다래도 써야지.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 아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인간아! 인간아!

200×년0년 0일

차기 대선에 승리하고 싶으면 특별검사 당을 만들어라. 특별검사가 뭔지도 모르는가? 만병통치냐? 전국의 검찰청을 특별검찰청으로 만들던가 검사 경력 변호사를 전원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되지. 딱하다 딱해.

200×년 0월 0일

모처럼 찾아온 통일열기에 찬물을 자꾸 끼얹는 언론, 정파가 있다고? 그럴 리가? 아니, 정말 있다고요? 이건 북풍여? 남풍여? 야!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며 지상과제 아니냐? 통일이 뭐 장사냐? 밑지네 손해보네 따지거나 하고. 에이 순, 야! 떠나라 떠나 지구를 떠나!

200×년 0월 0일

교권을 모질게 짓밟히고도 꼼짝 못하고 끄꿍 앓고만 있는 초, 중등학교 교사들은 바보 천치란 말인가?

“우리도 거리로 나갈까? 교권 수호하기 위해서.”

아서 아서. 똑같은 ×된다. 진짜 나라 망한다.

199×년 0월 0일

우리 국민도 구조개혁 꼭 해야한다. 국민 의식 개혁 말이다. 어찌면 그렇

게도 하나같이 제 자식과 제 식구와 저만 알까?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칼침 맞는 일이 벌어지지. 어떤 사람은 유치원생 이상은 전부 하늘로 올려 보내 놓고 개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라네.

199×년 0월 0일

우리 동네는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다. 우리동네도 그렇다. 공동 쓰레기장을 만들자. 좋다 만장일치다. 뭐? 쓰레기장이 우리동네로?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 된다. 어림없는 소리다. 빌어먹을 놈, 제일 먼저 찬성하더니.

199×년 0월 0일

자치단체 의원 선거 유세장. 김모 후보도, 이모 후보도, 박모 후보도, 또 다른 후보도 '제가 당선되면 제 구역에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하수처리장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에이 순……

쓰레기더미 위에서 똥구정물 먹고 살아라.

199×년 0월 0일

우리나라 4천5백만만 동포가 모두 한마디씩 한다면 딱 그 한사람만은 말 못 할 사람인데, 그 사람 말 자주 하데. 밥맛 안 나게……

199×년 0월 0일

우리나라 국회는 언제 철들지? 그리고 레퍼토리가 바뀔 때도 됐는데, 안전제안—결사반대—강행처리—무효다, 아니다—장외집회—네 탓이다, 아니다 네 탓이다. 국민이 당신들 밥이유?

199×년 0월 0일

노·사 분쟁. 아니 왜들 이러슈? 사용자님들, 그때그때 노동력 막 착취하

던 때만 그리워하시나요? 아!~ 옛날이여유! 노동자님들,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처럼 대우해 달라고요? 물렁물렁한 땅에 100층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같이 삽시다.

199×년 0월 0일

교실이 붕괴되느니 학교가 무너지느니 하고 신문 방송들, 흥미 삼아 종종 다루는데요,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만, 이것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애들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국방? 경제? 통일? 이들은 잘못되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면...? 그것도 모르니? 정말 모르니? 애이 순, 아이고 아이고...

200×년 0월 0일

의사는 아무리 별별별별별별별별 이유를 다 내세워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돼요. 남의 생명을 걸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투쟁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무료진료 투쟁을 하세요. 그래야 온 국민이 의사선생님들 편이 됩니다. 어떤 투쟁도 박수를 쳐주는 내 편이 없으면 백전 백패입니다. 인제 아시겠죠? 빨리 가운을 입으세요.

200×년 0월 0일

반통일 언론집단, 반통일 사회 정치집단들아! 정권이 미우면 미웠지, 왜 간신히 움트는 통일 열기를 요렇게 조령계 망가뜨릴려구 발버둥칩니까? 자기가 생색 내고 싶었는데, 분하고 아깝다 이거지? 다른 것 두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 통일이란 말이다. 그 성스런 통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내가 하면 어때? 딱하다 딱해. 이 인간아!

199×년 0월 0일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열기가 충천할 때는 정권이 잘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할지라도 국민이 박수를 쳐줬었지. 그 때는 좀 어려워도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야 할 때였으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다. 민생은 어찌라고 밖에서 반대만 하나? 내 말 듣니? 들리냐?

200×년 0월 0일

우리나라 사람에게 노벨상 주지 말라고 데모하러 어딜 간다고? 이에 같이 춤병대는 철딱서니 없는 아이가 아닌 어른이 있다고? 이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름난 어른이 또 있다고? 후~ 후후 후~ 후후.

“자! 젊은이, 더 볼까? 좀 쉴까? 지금까지 본 소감이 어때?”

“그런데 박사님, 아니 할아버지. 그때도 국호가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그 때 국가가 망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지요?”

“왜? 망했을 것 같나?”

“국가정세가 그렇게 혼란했었다면 열 번은 망했어야 옳지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베풀 선정이나 실정에 관한 일기내용은 없어요?”

“왜 없겠나. 지금 100분의1도 다 못 봤어요.”

“그럼 젊은이, 우리 전시실에 가서 원본 CD-ROM을 대여해 가지고 내 연구실로 가져구. 가서 우리 깊이 좀 연구해 볼까? 그동안 내 연구결과로 볼 때, 지난 1000년사 가운데 10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이 가장 격동기였어요. 지금까지의 일기만 읽어봐도 그 때 사회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 물론 그 당시의 사회상은 그 시대의 안목으로 조명해야겠지만, 그 연대의 외국의 실상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남북 분단에 극심한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지역감정, 무질서, 공중도덕부

재, 교육부재 정치부재 등으로 국가존립 기반이 허물어질 지경이었던 말야.
하하하.

어떻든 이 일기는 1000년 전의 정치와 사회 및 교육 연구에 중요한 자료
라고 생각돼. 그런데 이 일기의 원본에 자주 나오는 남선생에 관한 기록이
발견만 되면 1000년 전을 이 시대에 옮겨놓은 듯 하련만.

아뿔싸, 이미 서기 삼천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인간의 문명은 불과 천년
전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헤아려 볼 수가 없다니, 쫓쫓쫓.

혀를 차는 노인의 표정이 어찌나 진지해 보이는지 청년은 더 할 말을 잊
어버리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 있기라도 할 것처럼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
었다.

휴가



문혜옥

그 섬은 나리꽃 천지였다.

푸른 용단을 화폭 삼아 노란 색 물감을 꼭 찍어 툭툭 건드린 것 같은 나리꽃들은 선착장에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준비해간 텐트 대신 민박을하기로 결정했다. 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섬에서 텐트로 2박3일을 지낸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집으로 숙소를 잡았다. 자식을 모두 외지로 내보내고 혼자 산다는 할머니를 커다란 팽나무 한 그루가 지키고 있는 민박집이었다. 팽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두 개 있었는데 오래도록 손을 보지 않아서 삐그덕 거렸지만 여행객의 곤함을 달래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냉장고 한 칸을 내어주고, 엿그제 담갔다는 파김치와 풋고추를 송송 썰어 넣은 곤쟁이 젓갈까지 넉넉하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그 골코름한 냄새에 코를 싸쥐고, 남편은 연장을 찾아 삐그덕거리는 평상을 손보고 있었다.

나는 가져간 반찬들을 냉장고 안에 들여놓고 풋콩을 까는 할머니를 거들었다. 저녁에 콩설기를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드신다고 했다. 할머니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마안해 하셨지만 수북하게 쌓인 콩다발과 거친 할머니의 손등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이들까지 달려들어서 콩을 까준 덕에 한결 수월하게 끝이 났다.

서둘러 짐을 풀고 우리는 언덕 아래 바다로 향했다. 아이들은 남편과 내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앞질러 바다로 뛰어내려갔다.

“섬이 참 예쁘네요.”

나는 빙그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고맙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지난 수년 간 남편은 입버릇처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럴 때마다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차올랐던 오만가지 생각들이 터져 나오지 못하고 슬그머니 들어가고는 했다.

남편과 아들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딸애와 나는 탄성을 지르며 코발트빛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침병됐다.

누가 일부러 깔아놓은 것 같은 동글반반한 돌들이 펼쳐진 바다는 비취인양 투명해서 딸아이는 수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흘린 듯 예쁜 돌을 줍느라고 콧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물이 차기도 했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선지 오래지않아 오슬오슬한 한기를 느끼고 나는 물 밖으로 나왔다.

햇볕에 달궈진 넓적한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발끝에서부터 술기운처럼 번져왔다.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졌다.

그러나 웬 일일까?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기 시작했다.

무엇인가를 잃은 듯한 불안감이 연습했던 것이다.

지갑, 세면도구, 비상약품……

심호흡을 하고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소지품을 점검하다 보니 빠트린 것은 물건이 아니라 아버님이었다.

아버님이 이 세상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버님 식사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십 여년 넘은 간병으로 얻어진 긴장감에서 여전히 놓여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다시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습관이란 이렇듯 무서운가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남편은 비어 있던 앨범을 채우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나와 아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는 했지만 어쩐지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구나 이렇게 집을 떠나오는 여행을 꿈이라도 꾸어봤던가.

“와아!”

하는 아들이의 함성에 돌아보니 남편이 손바닥만한 우럭을 내보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주었다.

그 사이 딸애는 신기하게도 나리꽃 모양이 들어있는 우유빛 돌을 찾아내 내게로 달려왔다. 섬에 있는 아무 것도 가져가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에 아이는 잠시 갈등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 돌을 물 속으로 다시 던지고는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다.

해는 어느 새 부채마냥 수평선위에 걸리고 우리는 팽나무 집으로 향했다. 팽나무 집 마당 한 귀퉁이 화덕에서는 벌써 떡이 익는지 콩 냄새가 구수했다. 마당에는 어느 새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젊은 아낙 서너 명이 국수를 삶아 내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서먹 했지만 우리가 잡은 우럭찌개에 콩설기, 국수, 거기에다 술이 한 잔씩 돌아가자 동네 사람들과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 마냥 허물이 없어졌다.

뜻뜻한 콩설기 냄새와 인정이 어우러진 밤이 깊어가고 결혼 십 수년만의 첫 나들이의 온갖 감회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난 아이들을 재우고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훗날 어딘가에서 아버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았다.

유리 구두

지난 일요일 작은 아이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은 눈치였다.

“이게 뭐대?”

하고 난 천천히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얀 종이에 조심스럽게 싸인 딱딱한 물건이 있었다. 두 녀석은 얼른 고개를 수그렸다. 준비물과 책을 사 가지고 온다던 아이들이 달랑 이 물건 하나 들고 왔다는 것부터 수상했다.

난 서둘러 포장지를 벗겼다. 어이없게도 그것은 양징맞은 크리스탈 구두 한 켤레였다.

“너희들 이것만 사 가지고 왔어?”

내 놀라움에 아이들은 자라목처럼 째아졌다. 그러다가 큰 아이가 입을 열었다.

“잘못 했어요. 민아가 너무 갖고 싶어했거든요.”

두 녀석의 몇 달치 용돈을 쏟아 산 것이 유리구두라는 것이었다.

작은 아이는 아예 말이 없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눈치였다. 처음부터 거금 3만 원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가 되었다. 우선 아이들에게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오라고 했다.

두 녀석은 한숨을 푹 쉬고 갔다. 난 아기 주먹만한 구두를 손바닥에 올려 놓고 들여다보았다.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구두는 어른인 내 맘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하였다.

순간 크리스탈 같은 유년의 기억 하나가 유리 구두 위에 겹쳐져 구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식구들은 어둠이 밀려 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오빠 때문에 난리가 났다. 오빠가 가서 놀만한 집을 다 찾아다니고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심지어 동네 후미진 곳과 방죽까지 뒤풀이 다니셨다. 모두들 학교에서 귀가하는 오빠만 보았지 그 뒤로 본 사람은 없었다.

엄마는 비를 흠뻑 맞고 어둠이 내려 앉은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린 마음에도 오빠한테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오빠 방에 들어가 가방을 뒤지고 나서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찢겨진 돼지 저금통을 찾았다. 오빠가 1년 가까이 애지중지 용돈을 모아서 키우던 돼지였다.

“이게 무슨 일이다니.”

하고 엄마는 털썩 주저앉았다.

난 오빠가 그 돈을 갖고 집을 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코앞에 있는 물건조차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더 조급해졌다. 그 때 랜턴 불빛과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등에 업혀서 오빠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오빠는 사시나무 떨 듯이 바들거리고 입술은 파랗다 못해 검게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꾸지람 대신 얼른 따뜻한 물에 목욕부터 시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엄마에게 이르셨다. 반쯤 정신 나갔던 오빠는 돌부리에 걸려 상처 난 손으로 품속에서 물건을 꺼냈다. 노끈에 묶은 누런 기름종이를 내 코앞에 내밀고 씨익 웃었다.

영겁결에 받아든 나는 식구들의 호기심에 찬 시선을 받으며 종이를 헤집었다.

순간 난 말문이 확 막혀 버렸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색동 무늬가 있는 코고무신이었다. 식구들 모두 어이없어 웃었지만 난 그날 밤 고무 냄새나는

그것을 꼭 끌어안고 잤다.

학교 앞 문방구에 그 신발이 놓인 날부터 난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썼다. 떼보쟁이었던 딸내미한테 몇 번 웃고 넘어가던 엄마는 나중에 심한 꾸지람을 하셨다. 아버지 또한 꿈 속에도 나타났던 고무신 대신 서울 나들이 길에 빨간 운동화를 사 가지고 오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고무신에만 가있었다.

학교 앞 좌판 앞에 등하교 시간마다 쭈그리고 앉아 있던 내가 안쓰러웠던 저 마음 약한 오빠는 '쌍절봉' 대신 내 신발을 사 가지고 온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난 고무신으로 갈아 신고 동네 들판과 야산을 쏘다니며 전쟁놀이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무신은 그만 뽕족한 나무등걸에 찢어지고 말았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밤새 찢어진 신발이 아깝고 안타까워서 뒤척이다가 늦잠을 잤다.

지저귀는 종달새 노래에 겨우 잠을 깬 아침 난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발부터 찾았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 찢겨진 신발 속에는 예쁜 채송화 가족이 이사와 있었다.

“채송화네?”

“응, 한 번 길러봐.”

오빠는 멧쩍은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섰다. 등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다. 신발 밑창은 불에 달군 못으로 구멍까지 뚫어 물도 잘 빠졌다. 찢겨진 신발에 동생이 마음 상할까봐 화분으로 만들어준 오빠의 마음 때문일까 이미 내 마음 속에는 꽃이 피는 것 같았다. 정성껏 돌봐준 채송화는 식구를 늘리면서 신발 속에서 꿈을 꾸며,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히며 잘 자라 주었다.

두 너석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잘못했어요. 오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막 떼를 썼어요. 다음부터는 떼쓰지 않을게요.”

하고 작은 아이는 오빠한테 미안해했다.

난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어린 동생에게 따듯한 마음을 베풀어준 큰 아이의 마음과 소중한 꿈 하나를 키워나갈 작은 아이 마음이 가슴 속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야단을 칠 줄 알았던 엄마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며 덩달아 아이들 얼굴에도 밝은 빛이 나왔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빛으로……

겨울 生



성 정 희

하얗게 시장통을 덮는 눈발 속에서 겨울날이 웅얼거렸다.
주변 상가들은 거의 철시됐고 조금 전 옆 가게 섯터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나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의자에서 몸을 떼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가게 일의 하루를 마치다 보면 꼭 포퍼먼스를 끝낸 기분이었다.

살아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을 몸부림처럼 풀어낸 후 어느덧 막은 내리고 관객들이 떠나간 객석에 앉아 그날 자신이 한 판 펼쳤던 포퍼먼스가 끝나 버린 빈 무대를 바라보는 것이 이런 심정일까.

빈 무대를 바라보다 바라보다 공허해져 빈 병에서 바람을 한 잔 따라 마신다. 한 여자가 빈 병에서 바람을 한 잔 따라 마시는 모습 이것이 나의 저녁 풍경이다.

그 풍경도 그럴싸하지만 나는 이 눈발을 헤치고 집에 가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만 돌아가야지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의 긴 끈을 들어 어깨로 번쩍 치며 메려던 순간 “뚜르르르……”

제대로 여며 놓지 않았던 가방에서 들기를 한 병이 바닥으로 박살나며 나동그라졌다. 아뿔사.

이런 이런 이런 낭패가 있나를 거듭하며 연속 쫓쫓 혀를 차면서 기가 막혀 어쩔 줄을 몰랐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이 장사꾼 여자를 딸처럼 생각하고 이날 오전 가게로 갖다 준 것인데 그 아까운 걸 깨쳐 버리고 말았더니……

두 달은 너끈히 먹을 이흠들이 들기름 병이었다.

생긴 건 물과 비슷해도 물보다 참다운 느낌인, 바닥에 쏟아져 향내 진동하는 들기름을 내려다 보면서 몇 배 비싼 고급 술을 깨뜨렸어도 그 보다는 덜 아까우리라는 생각에 전신의 힘이 빠져버렸다.

‘나는 한 노인네의 정성을 내 부주의로 깨버리고 말은 거야’로 시작해서 ‘나는 한 할머니의 사랑을 박살내고 말았어’라는 깊은 자책에 빠졌다. 오늘 같이 추운 날 안방 아랫목을 지키지 않고 가게로 나와 열심히 일했던 건 결국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시간으로 갔던 것 뿐이야……

끝 모르고 쓰러지며 형체없이 부숴지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은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까닭 없이 무능력하고 산만하게 살아온 생이었다. 왜 그저 그런 모습으로라도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 놓은 채 낯설어만 하는 것일까?

차라리 아이처럼 두 다리 뺄고 엉엉 울어 버릴 수라도 있다면 굳어져서 딱딱한 고뇌덩이를 다소 녹여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대사를 잊은 배우처럼 침묵하는 한 여자는 아랑곳 없이 밤바람은 시장 통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 이럴 때를 속이 다 뒤집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속이 상할대로 다 상해 막판에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즈음 제대로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으므로 내가 하는 일이란 다 왜 이모양인가 하는, 그리고는 좀 거창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인생’이라는 단어까지 출몰하면서 먼 바다로 뛰어나가던 내 녀은 다 빠져 버렸다.

알뜰히 마무리해도 아쉬운 파장에 그랬으니 기막힌 건 말할 것 없지만 들기름병 깨질때 같이 부숴져 버린 것들이 또 문제였다. 천상 다음 날이나 어떻게 해 보아야지 퇴근하는 일조차 귀찮아져 버린 여자가 그 사태를 말끔히

치우고 돌아가는 일은 엄두도 못 낼 뿐더러 애초 다 클러버렸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난 하루 노동할 힘을 몽땅 소진시킨 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깨진 들기름 병 앞에서 겨울밤 내내 애도 내지 추모를 계속 하고 있기도 무엇해 신문지 여러 장을 겹쳐 우선 그 사건을 덮어 놓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퇴근길은 콜택시로 달려도 짓누르듯 답답하고 끝없는 광야처럼 막막했다. 그 날은 그 일로 인해 이지러졌다. 곧 부서질 것처럼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늦도록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생각할수록 아련게 그저 아깝고 안타까운 것이 다음 날 그것들은 치워내야 하는 부담감까지 들덩이처럼 무거웠기 때문일까 이리 저리 뒤척이다 새벽시간에 눈을 붙였을 뿐이다.

아주 잠깐 눈을 붙였을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눈을 뜬 난 전날 밤 미처 처부수지 못한 고지가 있는 병사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와서 치워줄 것도 아닌데 울밋졸밋 마음만 조이고 있는 것이 더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출근을 서둘렀다. 이른 겨울 아침 한 낮엔 분명한 시장통이 고요속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우리 가게 앞에 이르러서 빨리 처리할 포로가 있는 것처럼 머뭇거리릴 것도 없이 가게 셋터를 올려 제겼다. 출입문을 싹 열자마자 콧속으로 확 달려드는 들기름 내음. 그 향기는 더없이 그윽했고 꿈 속처럼 아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냥 그 향기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서둘러 고무장갑을 찾아 끼고 깨진 유리병 조각부터 먼저 집어냈다. 그리고 신문지로 들기름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일까..... 이것이 내 모습일까.....'

옆 가게들이 문을 열 때쯤 해서야 그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도 그만 눈물이 튕겨 나올 것 같아 애써 꺾꺾 마음을 눌러야 했다. 그리고 뼈까지 시큰해져 버린 두 팔을 의자에 내 걸자 하염없이 풀어졌다. 나른하게 풀리는 것이 그 즈음의 개구리들처럼 겨울잠이라도 자며 깊은 꿈이라도 꿀 것 같았다.

지금쯤 개구리들은 생의 의식만을 목에 걸고 깊은 휴식에 취해 있겠지.

싸늘한 날씨도, 사느라고 힘든 시간과 부딪치지도 않고 미움이나 또는 사랑도 한낱 변뇌인 것들을 죄다 허물처럼 벗어놓은 채 오직 생명 하나의 깊은 의미로 존재하고 있겠지. 너무 오랜 시간 잠을 자서 노오란 봄 햇살에 오히려 머리가 띵 하다 해도 산뜻하게 산소 한 모금 감사하게 마셔 볼 그들의 긴 휴식이 몹시 부러웠다.

덧없이 마른 가지처럼 때없이 부러지고 허적하게 부스러지는데 그들과는 달리 커피 마시고 산다고, 음악 듣고 산다고, 눈 내리는 날 부츠 신고 걷는다고 인간사 치뤄내는 일도 그들보다 몇 곱절 더 많구나.

지쳐 쓰러지는 길에, 그들처럼 잠들어 연두빛 봄꿈 꾸고 싶은 서퍽짜리 장사꾼 마음 위로 흰 눈이 날린다.

부모님의 노후대책



송 국 범

부 모님이 계신 고향, 시골에 가면 늘 ‘이젠 일쯤 그만 하시지요?’ 부모님은 묵묵부답이시다. 해마다 농사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인지 놀랄 뿐이다.

칠순이 넘으신 연세에 이젠 좀 쉬셔도 되겠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없으신 부모님을 보는 나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말씀이 전혀 없으시며 언제나 여유로운 아버지, 사리가 분명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면서도 정이 너무 많고 손이 크신 어머니,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서도 조화를 이루며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약주를 거나하게 하신 날 우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처럼 많은 농사를 짓는 것은 목표가 있어서다.

첫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후대책을 해서 너희들의 도움 없이 살기 위해서다.

평생 깊은 신앙심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이 말씀은 나를 감동시키고 말았다. 남은 여생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시고 싶은 그 깊고 심오한 생각을 모르고 있었던 자식으로서 대단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동안은 자식들 뒷바라지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하신 것을 해 보시겠다는 그분들의 그 숭고한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가?

부모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 장손으로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를 모시고 삼촌, 고모들을 다 돌보시며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은 고난의 삶을 사시지 않았던가?

금년 여름엔 불도 때고 보일러도 사용할 수 있는 방과 거실 창고 등을 짓는 큰 공사관계로 시간 나면 시골로 내려가곤 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소독하는 일도 도와드리고 농사지은 현장을 살펴보는 일도 했다. 내년에 수확한다는 인삼밭을 구경시키면서 내년에는 노후대책이 어느 정도 될 것같은 기분이다. '이제는 저것을 끝으로 그만 하시지요' 했더니 몇 년동안 더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했다.

그렇다 이젠 더 이상 부모님께 농사일 그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말자. 그분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자.

'송선생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부모님이 어디 계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못 당하지. 참으로 건강하셔. 부모님 같은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꺼야.' 동네 어른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부모님의 그 노후설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다.

평생을 깊은 신앙심으로 살아오시면서 마지막 인생의 정리 단계에서 편안히 살수도 있으시련만 좋은 일을 하시고자 더욱 열심을 다해 사시는 그분들의 열정을 본받아야겠다.

이젠 찾아뵈을 때마다 노후대책 잘 되시냐고 묻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할 것이다.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테니 힘내시라고 말이다.

향기 나는 삶을 위하여

향기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향기 나는 삶을 원한다. 난 향과 같은 삶, 국화향 같은 삶, 아니 심산유곡, 누구하나 밭길 닿지 않은 곳에서 고고한 삶의 향기로 이름 없이 피웠다 지는 야생화의 그윽한 향내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저마다 각자 자신의 색깔로 자신의 독특한 자태로 사는, 자연 생명의 오묘한 질서를 발견하며 우리 인간과의 삶을 비교해 본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무슨 빛깔로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자신의 색깔은 있는 것인가? 향기 나는 삶인가? 구린내 나는 삶인가? 이익을 주는 삶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인가?

향기 나는 그런 삶이 짓밟히는 그런 세상은 아닌가?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본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견한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을 본다. 돕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윽한 향기를 발견한다.

오도갈데도 없는 불쌍한 사람,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언제나 즐거운 사람들에게서 세속의 천사를 발견하는 것 같아 좋다. 그 향기는 천리 만리를 간다. 그 향기 찾아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마더데레사의 삶이 아마 그런 삶일 게다.

여기저기서 독특한 자신의 향기를 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사회, 국가는 참으로 살기 좋은 국가일 게다.

수전노에게서 우리는 무슨 향기를 발견하겠는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냄

새가 날 것인가? 게으르고 나태하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찬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겠는가? 땀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일확천금을 기다린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향기 나는 삶과 악취 나는 삶의 투쟁이다. 악이 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몸부림에 못 이겨 악과 동맹관계를 맺고 구린내 나는 삶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악취 나는 삶이 향기 나는 삶을 뒤덮어 악취 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활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역겨움과 구역질이 난다. 그 악취 때문에 고고한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뒷골목으로 점점 피해 들어가고 있다.

그 향기 나는 사람이 양지로 뿔뿔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시민운동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악취 내는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향기 내는 사람들을 전면으로 내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다. 향기 나는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 이 사회와 국가를 밝게 가꾸어야 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참으로 신선하고 산뜻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악취의 유혹이 워낙 강하고 악취를 향기로 적절하게 포장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좀처럼 악취를 발견키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 달콤한 유혹은 참으로 우리를 매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악취 나는 삶은 우선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과 이웃, 사회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악취 나는 삶과의 거리를 두고 향기 나는 삶이 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가지고는 안 된다. 단체를 만들어 투쟁하고 저항하고 향기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매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이 사회가 향기 나는 삶의 세상이 되도록 애쓰는 시민운동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원한다면……

대절산 예찬



유 인 석

서 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진산(鎭山)을 꼽는다면 인지면 성리에 솟아있는 대절산(비룡산)을 들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정기가 모여있고, 풍광이 수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절산보다 가까운 부춘산도 있다.

그러나 부춘산은 산세와 정기가 여성적이어서 진산(鎭山)으로 꼽기엔 어딘가 부족하다.

진산(鎭山)이란 본래 「도읍의 뒷산」을 이르는게 사전적(辭典的) 의미다. 그러나 현실적 의미로 따진다면 일정 지역내에서 산세가 뛰어나고, 풍광이 좋은 산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풍전 저수지 속 용궁에서 뛰쳐나와 동구봉, 갓고개, 대절산을 주봉으로 솟아오른 산세(山勢), 형상(形象)이 마치 승천(昇天)을 시작하는 용(龍)트림 같다하여 대절산의 본래 이름은 비룡산(飛龍山)이었고, 또 비룡산 속 암자 이름도 영구암(永龜庵)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영구암 주변 바위틈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시누대나무 숲의 전설 때문에 「영구암」은 「대절」이 되었고, 「비룡산」이던 산이름도 「대절이 있는 산」이라 하여 「대절산」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처럼 영구암(永龜庵)이 대절로 불리워지고 비룡산이 대절산으로 불리워지게 된 전설과 유래는 아직까지 문헌기록상 증거된 바는 없으나 암자 주

변을 에워싼 바위틈 사이에는 지금도 청청하게 피어난 시누대나무 숲이 사철 푸르게 자생하고 있어 대절과 대절산이 된 영구암, 비룡산의 전설 유래를 증거하고 있다.

서산에서 버스를 타고 태안쪽으로 10분쯤 달리다보면 공림에서 빌미 사이 우측 편에 있는 풍전저수지 제방 너머로 높게 올려다 보이는 대절산 풍경이 나온다.

꼬리부분에 해당하는 산자락 끝은 아직도 가득찬 저수지 물 속에 담가놓은 채 금방이라도 솟아오를 듯 하늘을 향해 머리를 부쩍 치켜든 용모양의 대절산 주봉은 범상치 않은 한쪽의 그림 같다.

대절산은 가까이 갈수록 좋다.

산자락에 안기면 더욱 정겨웁다.

능선이 거칠어 언듯 보기에 남성산(男性山)같지만 가까이 접해보면 섬세한 여성산(女性山)이다.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들 모두가 조화스럽게 배열돼 있어 살림살이 알뜰한 아낙의 손길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오솔길 따라 오르는 산길이 가파르지만 하늘과 맞닿은 정상까지 올라가 가쁜 숨결 뱉어내며 야호!를 외치고나면 천지가 온통 내 세상인양 정복감에 들뜬다.

거친 호흡 고른 다음 오르던 길따라 산아래를 다시 한번 굽어보아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의 세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눈으로 보이는 전망은 천리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공은 구만리나 된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자연의 이치가 천리공간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찌 대절산뿐이라.

하지만 대절산에만 오르면 세상을 보다 넓게 볼 수 있고 해안이 터지고, 보다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터지는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뀔 때마다 느낌도 다르다.

빛깔이 다르고, 생태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다.

사통팔달 시공이 머무는 곳마다 보이는게 정말로 많다.

생애구획에 발버둥치는 인간세상이 보인다. 오염 때문에 병들고, 개발 때문에 파괴된 환경이 보이고, 불신과 증오로 얼룩진 각박한 세태가 보인다.

특히 대절산에 올라보면 더더욱 다른 진산(鎭山)의 내면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큰 산에 속할 수는 없지만 뚜렷한 산세에 정취가 배어있어 누구라도 감동하게 된다.

나는 일찍부터 오우가(五右歌)의 시상지(詩想地)라고 자랑해온 곳이 대절산이다.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 있고, 달빛까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다.

「내 벗이 밋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서기 1587년부터 1671년까지 살다간 이조때 이조시인 윤선도(尹善道) 선생의 산중신곡 중 오우가처럼 대절산에는 일찍부터 수석과 송죽이 있고, 동산에 뜨는 달빛의 풍광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지금도 유명하게 암송되는 오우가는 윤선도 선생이 전라도 땅인 남도지방으로 유배당했을 때 지은 시다.

아마 그때 당시 윤선도 선생이 남도가 아닌 우리 고장 대절산으로 유배되어 오우가를 썼다면 지금의 오우가 못지않게 감동깊은 「대절산 오우가」가 전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깝게는 풍전 저수지에서부터 멀게는 천수만 황해바다까지 언제나 푸른 물결이 발 아래서 굽이친다.

또 천년을 말없이 하늘을 이고 선 기암절벽의 육중스런 침묵이 돈후불변(敦厚不變)의 덕을 쌓아 주봉을 이루었으니, 비룡산세의 정기결친 대절산은 바로 물과 바위가 어우러진 풍광의 명소가 아닐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만고풍상 속에서도 청청하게 우거진 노송숲 가지마다 청량한 새바람 내어 사철 꺼짐없는 향불 사르니, 변함없는 부처님 미소가 산을 찾는 중생들의 가슴마다 자비되어 새겨지는 곳이다.

또 쉬훈질 바위보다 작은 키가 한이 되어 암자주변 돌틈마다 무리지어 피어난 시누대 나무 잎들의 사각대는 전설이 대절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송죽(松竹)의 정취다.

소쩍새 사연이 깊어지는 5월의 봄밤, 동구봉 능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쟁반같은 달빛은 시상(詩想)무던 범부들의 가슴까지도 설레게하니 고루갓춘 대절산의 정취는 신판「오우가」라도 나올 법한 풍광이다.

나는 그래서 구절양장(九折羊腸)의 인생살이가 짜증나는 사람들에게겐 대절산 등산을 권하고 싶다.

무거운 마음 내려 놓을만한 곳이 바로 대절산이기 때문이다.

돌계단을 밟아 오르면서 사는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도 쉽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노라면 삶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곳이다.

석축을 쌓아올려 절벽 낭떠러지에 지어진 암자의 외형은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법당 좌대위에서 피어나는 부처님의 미소는 언제나 여유롭고 자비롭다. 얽게 붙어오는 솔바람 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풍경소리 들으며 조용히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고뇌 번민이 사라진다.

가슴이 열리고 희망이 열리고 삶이 열린다.

하늘에 걸려있는 하얀 낫달까지 잡힐 듯 허공으로 나르는 상쾌함이 순간에 다가서는 듯 하다.

좁디 좁았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면서 우주는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들지만 우리는 그 동안

귀밖으로 흘러며 살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대절산에 올라 보아라.

우리는 분명히 자연과 하나다.

내가 우주속에 서 있는게 아니고 우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시원스런 바람이 머리결을 쓰다듬고 지날때마다 이제껏 나를 붙잡았던 번잡스런 생각들이 날아간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절산의 풍광은 진산답다. 여름엔 시원한 바람, 가을엔 가득한 풍요, 겨울엔 눈덮힌 설악, 봄에는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이 있다.

그래서 대절산은 진산(鎭山)이고, 내 고향산이다.

삶에는 永遠이 없다

헤어지고 만남은 정해진 이치(會者定離)라고 했다. 삶에는 영원(永遠)이 없다는 뜻이다. 헤어짐은 곧 만남의 기약이며 만남은 다시 헤어짐의 예고인 것이다.

이렇듯 헤어지고, 만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인연이다. 밋던 곱던 또 좋던 싫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서로간에 인연을 맺고 살게 마련이다.

낯선 남녀가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는 것도 인연 때문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만나고 헤어짐의 인연이다. 세상과의 인연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죽음으로 가

는 것이다.

인연이란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영혼의 끈이다. 삶이 존재하는 곳엔 영혼이 존재하고, 또 영혼이 존재하는 곳엔 반드시 인연이 함께 한다.

영혼의 끈이 이어지면 만남이고, 영혼의 끈이 끊어지면 헤어짐이다.

속담처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도 영혼의 끈이 이어준 인연 때문이다.

똑같은 인연이라도 만남과 헤어짐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차이는 엄청나다. 만남은 기쁨이고, 희망이 될 수 있지만 헤어짐은 슬픔이고 절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짐을 번뇌라고도 표현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업보라고도 한다.

따라서 번뇌와 업보는 삶과 함께하는 불가분의 인연이다.

죽은 자에겐 번뇌도 없고, 업보도 없으며 인연도 없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의미가 바로 만나고 헤어짐이요, 희망과 절망이며 삶의 번뇌요, 업보인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자신의 길을 한치 앞도 모르고 사는게 인생이다. 수 천 갈래 수 만 갈래로 갈라지고 다시 만나며 또 이어지고 끊어지는게 인생길(道)이다. 큰 길에서 작은 길로, 다시 작은 길에서 큰 길로 만나고 헤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작은 길에서 시작해서 큰 길을 만날 수도 있다.

또 삶의 길도 있고, 죽음의 길도 있으며, 성공의 길도 있고, 몰락의 길도 있다. 이토록 슬한 인생길은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며 희망과 절망으로 반복된다. 평평대로를 달리는 사람도 있고, 파란만장한 고행길에서 허덕대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주어진 삶의 길은 이렇듯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도 도(道)를 배우고 도(道)를 닦으며 산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삶의 길을 닦고 삶의 길을 구

하기 위함이다.

도(道)란 길(路)이다. 석가(釋迦)가 왕궁을 탈출하여 설산고행을 체험한 까닭은 삶의 새길을 만나기 위함이며, 예수가 40일 동안이나 드넓은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한 것도 새삶의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 큰 길을 만나고 바른 길을 만나기 위한 수도(修道)이었고, 구도(求道)이었다.

철학의 태두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神)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원전 399년 사형당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외쳤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여러분들은 후회할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삶의 길로 간다. 누가 더 행복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만이 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이같은 말을 남긴 뒤 감옥에서 스스로 극약을 마시고 70생애를 마쳤다. 그는 죽으면서 제자들에게도 말했다.

「사람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 사람은 산다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남이 중요한게 아니고, 만남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나 같다. 만남의 결과는 곧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삶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다.

때문에 사람은 만나고, 헤어짐 자체가 삶의 의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물주는 모든 삶에 영원성을 허용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만나고 헤어짐을 위해 사는게 너와 나의 인연이다.

만나고 헤어짐의 반복속에서 생에 대한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다.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감회도 만나고 헤어짐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지, 새로운 감회속에 헤어지고 만남은 아련하게나마 나를 돌아 보게하는 안목과 지혜를 갖게 한다.

살아온 나를 돌아다보고 또 살아가야할 나를 깨닫게 하는 안목과 지혜가 없을땐 만나고 헤어짐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사랑도 의미없고, 저주도 의미없고, 삶 자체에도 의미가 없다. 자신의 삶을 깨닫지 못할때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번뇌가 많은 인간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박혀 만백성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의 사랑은 가치가 없고, 동가식 서가속하며 설산고행으로 구제중생을 실천한 석가의 자비도 의미없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인간을 가리켜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한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깨닫게 하는 눈빛을 가질 때 짐승과 다른 감성도 싹트고 지성도 만날 수 있다.

어둠속을 지나가도 달맞이 꽃피는 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살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성과 지성을 가진 눈빛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달맞이 꽃은 소리내어 피지 않는다. 달빛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피우는 꽃이다.

그러나 지성과 감성의 눈빛을 가진 사람에게는 달맞이 꽃 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비록 밤에만 피어나는 꽃이지만 만남을 위해 피어나는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해가 뜨면 오무라드는 헤어짐의 운명을 반복하면서도 달맞이 꽃은 여전히 밤에만 피어나 달과 만남의 인연을 맺고 있다.

해바라기 꽃도 마찬가지다. 해를 만나기 위해 8월의 퇴약별에서도 긴 목을 하늘높이 뽑아 해만 향하고 있다. 저녁이면 날마다 어둠에 묻혀 햇빛과의 헤어짐을 반복하면서도 해바라기는 아침햇살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캄캄한 밤을 지새운다.

이렇듯 만나고 헤어짐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삶의 의미와 가

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삶에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제가 왕이라고 떠든다.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척 떠들어 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면 불행을 만나게 되는지 조차 모른채 허덕대고 있는게 인생이다.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또 살면서 영원히 불필요한 것이 불행이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만남도 헤어짐도 우리 생각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찾아내야 될 우리들의 안목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신이 주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기도만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밤에 피는 달맞이꽃의 의미처럼 깨달은 지성과 감성만이 행복을 만날 수 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만이 행복과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삶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 때절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허름한 대포집 뼈격대는 나무의자에 걸터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틈수룩한 수레꾼의 얼굴에서도 행복은 보인다.

질퍽대는 골목길 좌판위에 버린내 물씬 풍기는 생선들을 올려놓고 젓먹이 어린아기 등에 업은 채 목청높혀 생애구책을 외쳐대는 시장골목 생선장수 아주머니의 피곤한 삶에서도 행복은 존재하고 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된 행복의 가치와 의미는 가난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지도 모른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만나고 헤어짐의 존재다.

우리에게 어느것도 영원(永遠)이 없다.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속에 사는 인간이 있기에 행복도 불행도 존재하는 것이다. 가진자의 오만도, 권력자의 교만도, 만남과 헤어짐의 이치에서 예외일수는 없다. 천년을 살고 싶지만 1백년도 넘기지 못하는게 인생의 삶이듯 만나고 헤어짐의 이치는 무상하고 허무하다.

오늘의 있음은 내일의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 오늘의 없음은 내일에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여! 오만한 자들이여!

헤어짐을 준비하라. 영원은 없다.

낮은 자들이여, 없는 자들이여 만남을 준비하라. 영원은 없다.

행복과 불행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권력도 재력도 한 곳에 머물 수 없다.

우리에게 영원은 없다.

만남과 헤어짐의 이치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길지 않은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하루도 쉴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산다. 속상하면 속상해서 욕설, 기쁠 땐 기뻐서 욕설, 배부를 땐 배부르다고 욕설, 배고플땐 배고파서 욕설, 특히면 내뱉는 욕설은 시도때도 없다.

언제부터인지 시대적 연원이나 배경은 알 수 없으나 감정표현 대부분이 욕설부터 앞세우는게 너나없는 우리들의 언행관습이 되고 말았다.

농담삼아 퍼붓는 익살스런 욕설에서부터 증오의 표현으로 퍼붓는 저주의 욕설들까지 허구많은 욕설들이 남녀노소 따로 없고, 지위고하 구별없이 왕래되고 있다.

이토록 허구많은 욕설들이 무차별하게 난무하는 것은 시대적 사조(思潮)도 작용되고 있겠지만 주민정서가 거칠어지고,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회상의 단면이기도 하다. 또 상하간의 예절질서나 사회적 도덕관념,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질서가 해이해질 때 민심정서는 거칠어지고 언어행동은 포악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심성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질 때 가장 쉬운 감정표현 수단은 욕설일 수 밖에 없다.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욕설이라도 실컷 퍼붓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심리현상도 같은 이치다. 이같은 현상은 애들도 어른도 똑같다. 언어투쟁에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공격과 방어본능이 욕설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욕설중에서도 가장 많은 층에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욕설은 남녀 성기나 성행위를 주제로 한 욕설이다. 또 사람과 제일 가깝게 접생하는 가축동물 중 개(犬)를 주제로 한 욕설도 으뜸이다. 성기는 따지고 보면 생명을 만들어 내는 우리들의 신체구조 중 유일한 생식기구이자 생명의 뿌리다.

성기는 또 원초적인 생식본능의 도구이자 모든 생명의 고향이기도 하다. 어떤 가치로 따져도, 또 어떤 기능으로 따져도 사람의 신체중 성기는 가장 신성한 부위이며, 생명이 존재하는 한 가장 소중하게 보존돼야 할 절대적 존재이다.

생명의 탄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만 가능하다. 정자와 난자는 남녀 간의 성기속에서만 생산되며 남녀의 성교과정 없이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기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성행위는 생명창조와 종족계승을 위한 거룩하고 신성한 노력이자 조물주의 명령이고, 모든 생명들에 부여된 숭고한 사명이다.

또 종족계승이나 생명창조의 거룩한 차원을 떠나서도 인간 삶의 의미중 최고 가치인 희열의 극치가 바로 남녀간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성교행위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성기라는 육체적 국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남과 사랑이 존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성기없는 생명이 없고, 성교없는 인류의 역사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새생명들이 탄생하고, 또 노화된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인류역사가 쉽없이 진행되고 있다. 수억년을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는 바로 성기의 역사, 성교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성기없는 여자가 있고, 성기없는 남자가 있다고 가상해 보아라.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존재할 수 있고 무슨 삶의 의미가 존재하겠는가?

성기로 창조해낼 수 있는 삶의 희열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고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생물체의 성기는 곧 제2의 생명이자 삶의 최고가치가 부여되는 뿌리인 것이다.

더구나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는 인간의 뿌리야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성시 해야 될 성기를 주제로 삼아 스스로의 인격을 천격화하고 저주하며, 흉측하고 추잡스런 욕설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성기나 성교의 모독은 인간들 스스로의 뿌리 모독이고, 인류역사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생명도 부모님들의 성기와 성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다. 비단 인간 뿐이 아니라 암수의 성기능을 갖고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이치가 똑같다.

성기 때문에 남녀간에 만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종족번식이 계승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국가로 발전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성기, 성교를 추잡한 욕설의 주제로 삼아 조금도 부끄럼 없이 욕설을 퍼대고 있다.

인간들 스스로가 인간의 역사를 매도하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추악스럽게 비하시키면서 인간권위를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성기나 성교행위를 욕설의 주제로 삼는 것 못지않게 죄(罪) 없는 개

(犬)까지도 육설의 주제로 등장시키고 있다.

「개같은 놈」「개같은 년」 등 개를 주제로 한 육설은 인간 성기를 주제로 하는 육설보다도 더 많은 층에서 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는 사람 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게 섭생하는 영리한 가축동물이다. 주인만을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며, 주인만을 의지해서 사는 의로운 동물이다. 잘못된 사람을 가리켜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속담이 의미하듯 비록 동물이지만 오히려 「개만도 못한 놈」보다 낱을만큼 지능지수를 갖추고 있는게 개다.

소나 돼지 등 어떤 가축동물보다도 영리하게 사는게 개다. 비록 사람들이 먹다버린 찌꺼기를 먹고 살망정 추잡하고 흉측스런 육설의 주제 대상을 삼는 건 잘못이다.

개를 소재로 한 육설은 다양하다. 또 사용층도 남녀노소 구분없고, 지위고하도 따로 없다. 어린애들까지도 특하면 「개판」「개새끼」를 떠들고, 국가 권력층이나 사회지도층까지도 「개같은 놈」 등의 육설을 서슴치 않고 사용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개를 육설의 주제삼아 개를 욕하고 비하시킬만큼 개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본다. 「개만도 못한 놈」들이 너무나 많이 득실대며 「개만도 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도 개판이고, 경제도 개판이며, 사회질서도 개판인 「개판시대」를 살고 있는게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육설을 주제 삼아 개들을 욕하고 비하시킬 만큼 우리들 스스로가 당당함이 없다. 정말로 「개만도 못한 놈」들이 너무 많다.

「개판」이란 본래 「몹시 난잡하여 질서없고 두서없는 꼴」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덕질서도 무너지고 삶의 가치관도 붕괴되어 사회정서가 난잡하고 혼돈스럽기 그지없는 오늘의 세태를 이르는 말인지도 모른다.

물론 「개혁」과 「변화」란 합리적 논리가 없는건 아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잡시의 소용돌이는 불가피함을 모를 까닭도 없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남북관계부터 오랫동안 몸에 밴 좌·우의 사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솔직히 혼란시대를 살고 있다.

용공이 충성인지, 반공이 충성인지 조차도 혼돈스럽다. 국가관도 흔들리고 사회적 가치기준도 흔들리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다. 또 무너진 도덕관이나 퇴화된 윤리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젊은 이녀자들이 배꼽에 젖통까지 흰히 들어내 놓고도 부끄럼없이 거리를 활보한다. 주부들의 매춘영업이 등장하고 10대 소녀들의 원조교제가 성행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만도 못한 것들」이 꾸미는 「개만도 못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인륜을 짓밟고 천륜을 무너뜨리는 끔찍스런 사건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다.

친구를 죽여 시체를 토막내고, 내장을 꺼내 술안주로 먹어치운 「영웅파사건」이나, 증거말살을 위해 화장시설까지 갖추고 연쇄살인 사건을 일삼은 「막가파 사건」 따위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현주소를 증거한 것이다. 이토록 세상 인심은 무섭게 변하고 있다. 개들보다 나은게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개를 욱하고 천격시 했던 것은 당초 사람이 개보다 나왔기 때문이다. 개만도 못한 사람은 개보고 욱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 개보고 욱하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인간놈들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 인간들 모두 그렇다.

그 중에서도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외면한채 밥그릇 쟁기기에만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정치집단들이 더하다. 정치인들의 잘못 때문에 이전투구(泥田鬪狗) 운운하며 죄없는 개들만 욱먹고 있다. 정치가 개판되면 사회정서는 더 말할 것 없다. 이권으로 싸우고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지역감정으로 싸우고 감투자리 싸우느라 외면된 민생이나 국정은 개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듯 「개판」에서 「개싸움질」로 「개판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개가 아

난 사람들이다. 그것도 권력 많고 재력있고 지위높은 놈들이 「개판세상」 만 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는 어느 날 대전지방 변호사회에서 만들어낸 회지(會誌) 창간호에서 어느 법무사가 쓴 「개들이 웃더라」는 제목의 수필 한 편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욕설의 주체로까지 전락된 개들이 모여 인간들에게 항의하는 집회장면이다. 말 못하는 개들의 얘기를 의인화시킨 글이지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실상을 우수갓 감각으로 묘사 해 낸 글이다.

「...전락 - 다음은 우리 건공협의회(犬公協議會) 회장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건공제위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인간들과 함께 살지 않았 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영악한 인간들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다 남은 알량한 찌꺼기 밥으로 우리 는 세끼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다고 여겨 하루에 한끼씩 건너뛰기 도 하고 아예 모른채 굶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망없이 인간들을 주인으로 알고 선량한 종속관계를 유지 해왔습니다.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진심으로 반기고, 주인이 집을 비우 면 도둑지키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 못된 것보다 개 가 낫다」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저희들끼리 피터지게 싸 우면서 그때마다 이진투구(泥田鬪狗) 운운하며 죄없는 우리 개들을 왜 끌 어 다 붙잡니까? 또 특하면 「개판」이라며 사람들의 잘못을 개들의 잘못인냥 떠 넘기는 이유는 뭘니까? 인간들에게 묻습니다. 기업주가 언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들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정치인이 언제 주인인 국민을 소중하게 섬 긴 적이 있습니까?

기업주는 근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착취하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싸

움박질만 하여 허송세월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두고 인간들은 정치가 「개판」이라고 합니다. 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종아리 때린다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면서도 인간들은 「개판세상」을 욕합니다. 인간들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도 취하면 서로 싸우고 욕설을 퍼부우며 「개판」타령을 합니다.

존경하는 견공(犬公) 제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인을 잘못 모셨습니까? 그렇다고 세끼 이상의 먹을 것을 탐했습니까. 우리가 배부른 뒤 싸운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들처럼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권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들처럼 부모를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인을 섬길 줄 아는 의리도 있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효도도 있으며 주인 위해 싸우는 용기도 있습니다.

견공 여러분 이것이 「개판」입니까? 이것이 「개판」이라면 인간들은 정말로 「돼지판」도 못되는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인간들 중에는 의리, 효도, 용기, 충성 따위를 모두 포기한 「취새끼만도 못한 놈」들이 술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을 동물(動物)협회에서 추방하여 독물(毒物)세계로 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견공(犬公) 여러분! 우리는 「개판」보다도 못한 악질기업인과 부정부패 정치인들을 이땅에서 추방하고 참다운 「개판기업」과 「개판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이상은 대전변호사 회지 창간호에 실린 김우동 법무사의 수필 「개가 웃더라」중 한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욕설의 주제로 등장해야 하는 개들의 마음을 대변한 글이지만 개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교훈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다. 우리들의 성기나 성교행위를 욕설의 주제로 삼는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인간들에게 충성하고 의리지키는 제일의 가축동물, 개를 욕설의 주제로 삼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욕설의 소재로 바뀌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욕설을 입에 담고 사는 생활관습이나 언어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누가 개놈이고 누가 개년이란 말인가? 욕하는자 누구이고, 욕먹는자는 누구인가? 차라리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늦깎이 돌날



윤 용 문

2 000년 8월 12일
아침부터 전화통이 불이 났다.

삼촌, 숙모 그리고 동생, 매제, 사촌들과 처가에서 장소가 어디냐? 몇 시부터냐?

용만이라도 괜히 들떠 소리를 친다.

“떡하러 가야지.”

“다른 준비는 다 됐어.”

“이이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괜히 설치구 난리야.”

마누라의 편견에도 싫지 않은 듯 메모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케익은 맛쳤고 연필, 공책, 실은 뒀고, 꽃도 가져왔고 가다가 과일만 사면 되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에 아버지 대에는 4남 2녀였는데 큰 집의 장손이면서 외아들인 용만은 결혼을 한 뒤 여섯 해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던 처지라 열인들 싫어할리 없지만 영 못 낳더니 십년이 지나서 얻은 딸이 오늘 첫돌을 맞은 것이다.

다 늦게 부산피기도 쑥스러워 조용히 보낸다 했는데 친구, 처가 모두 온다니 할 수 없이 식당에 음식을 맞추고 겸사 친구들까지 부르니 너무 큰 잔치가 되었다.

시간이 다 되어 용만도 아껴두었던 모시 한복으로 갖춰 입고 나선다.

가는 길옆에 과일가게에 들러 들상에 놓을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달라며 수박, 포도, 바나나를 한바구니씩 골라 차에 싣는다.

차에는 이미 떡보파리와 꽃바구니들이 잔뜩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과일가게 아줌마가 한마디 덕담을 한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잘도 차려주시네.”

“……?”

ON, OFF

“와! 하하하……”

호프집이 떠나갈 듯 떠들썩 하다.

오늘은 오랫동안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만나서 술잔을 나누고 있다. 농업지도를 한다고 농촌을 누비던 시절 사연도 많고 고생도 참 많았던 지라 20여년이 지난 지금 안주거리로 밥을 새워도 모자랄 일이다.

이미 몇 시간을 주거나 받거나 술잔과 함께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폭소는 지금이니까 웃을 수 있는 사연들이다.

함께 웃고 떠들던 용만은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차 키가 만져지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물고 혼자 킁킁 웃는다. 키를 볼 때면 군인 출신으로 꽤나 팔팔했던 한 선배가 생각난다.

그해도 무척 가물었다. 하는 일이 농가를 찾아다니며 농민들을 만나 상담하는 일이니 그날도 예외없이 90cc 털털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섰다. 길 옆으로 몇 동네를 들러 권하는대로 마신 막걸리에 얼큰하게 취한 채 점심

무렵이 되어 평소 아껴주던 선배집에 도착하였다. 가물어서 물이 닿는대로 몇 배미씩 모내기를 하다보니까 오늘도 일꾼 몇 명 얻어서 모를 심고 있다.

마침 점심상에 끼어 앉아, 주거나 받거나 술잔을 기울이다보니 일꾼들은 모내기를 시작한 지 한참됐는데 모쟁이를 해야 하는 주인을 붙잡고 술타령만 하고 있으니 눈치도 보이려만 새참 차리는 것을 보고서야 가겠다고 일어난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말썽이다. 아무리 밟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배와 교대로 밟아도 소용이 없다. 기름은 아침에 넣었으니 없을 리 없고.

“야 타.”

“밀어보자.”

다행히 높은 지대이긴 하지만 비포장에 자갈길을 밀고 또 밀고 죽히 십리는 교대로 밀고 내려오니 이젠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범벅이 되었다.

“야 쉬었다 가자.”

선배가 숨이 턱에 닿아 길가에 털썩 앉는다.

옆에 앉아 미안한 듯 담배를 빼어주며 가만히 보니 키가 이상하다.

‘아뿔사!’ 끝 때 키를 꽂은 채 켜지를 앓은 것이다.

머뭇거리던 용만이

“형님 키를 안 켜는데요.”

선배가 벌떡 일어나며

“뭐라구! 이런 ×새끼”

“어디 이런 미친 놈이 다 있어.”

“.....?”

호적초본



이 성 주

지금은 딸이 더 좋다고 하지만, 딸을 낳으면 세 번 서운하다는 말이 있다. 첫 번째는 낳았을 때 서운하고, 두 번째는 결혼시킬 때 서운하고, 세 번째는 호적에서 제적 할 때 서운하다 하였던가. 딸을 결혼 시켰으니 두 번 서운한 것은 지났는데 이제 호적에서 제적시킬 차례이다. 동사무소에 가려고 하니 서운한 마음에 선뜻 가지 못하고 딸이 어려서부터 자라던 모습이 떠오른다. 첫째가 태어나고 우리내외는 직장에 가야하니 장모님이 키워주셨다. 첫째애가 돌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둘째 애가 태어났다. 둘을 장모님 혼자서는 키울 수가 없게되어 가정부 한사람을 두었다. 우리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과 가정부는 지쳐 있었다. 우리가 애들을 받아 저녁이면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는 우리도 같이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곤 하였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유치원 입학하고부터는 좀 나아졌다. 이때부터는 기본 생활 습관을 습관화 되도록 하는데 힘썼다. 하루는 큰애가 피아노 학원에 갔다오다가 길에서 칼을 주웠다고 집에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본 우리는 “남의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어도 가져오면 안 된다. 그곳에 그냥 두어야 주인이 와서 찾아가지 않겠니 그 칼을 주운 곳에 다시 갔다 놓아라” 했다. 추운 겨울날이라 학원에서 집에 오는 동안에도 몸이 얼었는데 다시 그곳에 가려하니 어린 마음에 싫었

졌지만 아니 갈 수가 없었다. 외할머니는 어둡고 추운데 혼자 보내기가 안스러웠는지 애를 보내고 뒤에서 멀리 떨어져 따라가면서 보니 울면서 가더라 이야기를 하셨다. 그 뒤부터는 언니나 동생은 길에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주워 오는 일이 없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회 소풍 야영활동 등 행사가 있을 때 한번도 애들과 같이 참여하지 못한 점 애들에게 미안했다. 행사 후에 “누구는 엄마가 와서 무엇을 해 주고, 누구는 아빠가 와서 무엇을 해 주었다”고 할 때는 더욱 미안했다. 그럴 때면 “엄마나 아빠가 너희들 있는데 가면 엄마나 아빠 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못 간다”고 하면 잘 이해 해주는 애들이 고마웠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웠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말타기도 해보고 운동도 하였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는 시각은 늦어도 밤 10시까지에는 들어와야 했다. 하루는 밤 10시가 가까이 되어 전화가 왔다. 지금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데 제가 나오면 판이 깨지게 되니 11시까지에는 들어오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더니 밤 11시에 들어왔다. 집에 와서는 “제가 고등학생인가요 이제는 대학생 이여요 대학생인데 늦게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하였다. 나는 “신문에서 너도 보았지 밤 늦은 귀가 길에 여성이 봉변을 당했다고, 너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밤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니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였더니 잘 따라 주었다. 이번에는 막내딸이 밤에 일찍 들어오도록 하는 아빠에게 불평을 하였다. 아빠가 이야기하기 전에 언니가 먼저 동생에게 설명해 주었다.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낮에 만나고, 저녁에 일찍 만나고 늦게 되면 다음날 만나면 되지 않느냐” 하였더니 잘 따라 주었다.

학교에 다닌다고 집안일 하는 것, 음식 만드는 방법 등 주부로서 하여야 할 일들을 잘 가르쳐 주지도 못 했는데 시집을 보냈으니 시가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 걱정이 된다. 시집가면 시가의 가도를 따르고 시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 내조 잘하며 우에 잘하여 친정부모 욕되지 않게 잘 하라고 가르치지만 잘 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된다.

호적초본을 딸에게 건네주며

“인생은 연습이 없다. 미래에 잘 살면 된다고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네가 하는 일 내가 현재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된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자식 교육

얼마 전에 '사람을 살해하고 토막내어 마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모두 놀랐을 것이다. 어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까지 하였단 말인가!

요즈음은 자식을 한 둘만 낳으니 귀여워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가정이 많다. 교육 중에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자식교육이고 가장 한숨은 내쉬게 되는 것도 자식교육이다.

자식 교육 잘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부자로 잘살게 키우려면 돈을 아끼는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새는 독에 물 붓기’란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산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낭비하는 돈은 당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오랜지족들은 하룻밤에도 몇 백만원씩 유흥비로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물자를 절약할 줄 모릅니다. 쓸만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사려고 합니다. 부모들도 찾도록 하지 않고 얼른 돈을 내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근검 절약을 습관화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만큼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많지 않습니다. 말로만 공부하라 해서 알아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공염불이 되니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우선 TV보는 시간을 줄이고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식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됩니다. 말로 ‘공부하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여 자연스럽게 자식이 따라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본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익혀주어야 하겠습니다. 자식은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불면 꺼질까, 넘어지면 다칠까, 걱정하며 너무 감싸서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기본생활 하나 하나를 철저히 반복지도하여 습관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해도 대인관계가 나쁘면 개밥의 도토리요 따 들립신새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머리만 좋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봉사, 인사, 나누는 습관, 능동적인 태도 등을 길러주어야겠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바람직한 가치관과 좋은 습관을 갖고 계속 대화하고 생활해갈 때 좋은 생활습관과 규

범이 형성되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21세기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은 부모의 삶을 보고 만들어집니다. 지식교육 결국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생활 체육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 든다 하였다. 몸이 건강 할 때에는 이 말이 그리 중요한 줄 몰랐다. 그래서 전에는 운동하는 사람을 그리 부러워하지 않았다.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운동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먹고살기도 어려우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였다. 그후 경제성장으로 식생활문제가 해결되고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제 24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재주를 겨루었다. 많은 국민은 2주간의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시청하였다. 서울 올림픽대회 이후 국민들도 체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올림픽대회의 수익금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와주었다. 생활체육으로 축구, 배구, 야구, 볼링, 수영,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에어로빅, 당구, 씨름, 유도, 검도, 단전호흡, 게이트볼, 등산 등을 많이 하며 활발해졌다.

그러나 학교로 눈을 돌려보면 다른 세계이다. 초등학생들부터 과 체중으로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몸은 10여 년 전에 비하여 커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한다. 학교의 운동장이 좁아지고 학생들은 많아지니 더욱 놀이 공간이 부족하여 졌다. 오락실이나 집에서의 컴퓨터 게임 학교 수업 후에는 학원을 2~3개를 다니느라 운동할 시간이 줄어

들었다. 학부모들의 생각도 바뀌어야겠다. 오로지 '공부 공부' 하며 입시를 대비하여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풀게 하고, 어린이들을 뛰어 놀게 하지 않는다.

서울 덕수 초등학교에서는 신승평 교장선생님의 의지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수영을 연습시켜 6월 25일 625M의 한강을 가로질러 건너는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건넜다. 덕수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모두가 한강을 건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초,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한 두 가지씩 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학급이나 학년 또는 학교전체로 계획을 세워 아침 등교 후 뛰어서 운동장을 2~3바퀴 돌게 하든가 다른 운동을 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좋아질텐데.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학교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들이 한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매일 참여하여 하는 생활체육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초, 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학생들이 뛰어 놀며 운동하는 소리가 울려나올 때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우리의 앞날은 더욱 밝아진다.

모든 국민이 한 가지 이상 운동을 하도록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면 의료비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건강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체육을 생활화하여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하고 명량한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대문을 나선다.

운니동 캠퍼스



이 순 수

가 을이 아난데 하늘은 맑고 높다.

오늘은 동인지를 발간하기 위해 운니동 덕성여대평생교육원 교정 등나무 및 벤치에서 모이기로 했다. 동인이 오는 동안 이곳 저곳을 둘러보니 오늘 따라 감회가 새롭다.

서울에 있을 땐 문학강좌(시와 수필)를 듣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이곳을 왔었다. 일년에 봄, 가을, 2학기를 몇 년을 수강하러 다녀도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을 와서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수필로 등단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

그 후 시골을 좋아 할 뿐 아니라 올 계기가 되어 시골로 오게 되었다. 수필 동인 모임은 일년에 몇 번은 참석하려 서울에 와 정원을 사계절 봐왔다. 만남의 장소가 한겨울 추울 때를 빼고는 이 등나무 및 벤치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참석의 횟수가 줄어지니 그리움은 점차 더해가고 정원의 애착마저 깊어졌나 보다.

종로 운니동 운현궁 담을 끼고 위치하고 있는 덕성여대평생교육원은 1984년 개원된 교육원으로 지금까지 교양강좌, 전공강좌의 프로그램으로 다방면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을 뿐 아니라, 가정주부, 직장인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정들을 연령에 관계없이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평생교육의 장소가 아닌가 싶다. 교정이 무엇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보다

다르게 느껴졌다. 넓지도 않고 아담하고 우아하며 수령이 백년을 넘은 나무들이 많을 뿐 아니라 고궁의 운치가 흠뻑 깃들려 평생교육원을 휴식공간으로 너무나 좋은 위치에 여건이 갖추어 있지 않나 싶다.

‘운현궁’은 조선 제26대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1820-1898)의 자택으로 고종이 태어나 즉위하기 전까지 자란 곳이라고 한다. 교육원 교정이 운현궁의 터였다고 하나 학술상 밝혀 본 바는 없으나 교정의 수령한 나무 여러가지를 보아 그러할 것이라라고 여겨진다.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후박나무, 산수유, 등나무, 회양목, 연산홍 등 적어도 백년은 넘은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을 겪어도 굳굳이 버티있는 나무 비운의 참사를 겪어도 무언으로 역사를 지켜온 이름모를 나무들, 구름 한 점이 가지에 걸려 무엇을 말하려는 듯 지나가지를 떠나지 못한다.

캠퍼스의 정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인도 옆 가로수가 하늘을 보일 듯 말 듯 가리워 여름에도 햇볕을 가려 주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다양한 나무들 서울 도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 새소리로 정서를 누릴 수 있는 캠퍼스가 아닌가 싶다.

자주 접할 때는 느끼지 못한 것이 멀리 떨어져 이따금 접하니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 이름답고 고귀하게 보인다. 인간사 모든 것이 가까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나 멀리 있거나 없으면 그 때야 중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이름 모를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퍼덕이며 생의 존재를 암시해 준다. 이렇게 좋은 자연을 가까이 두고도 알지 못하고 시골로 간 조그마한 갈등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 마음을 헤아리는 듯 미풍에 나뭇잎은 흔들리고 새 마저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좋은 캠퍼스의 교정을 오가며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좋은 작품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모두 써 온 작품을 가지고 합평은 시작되었고 몇 년 동안 같고 닮은 능력을 발휘한 주옥같은 작품들이었다.

나는 시골의 한 구석에서 언어와, 대화를 잊은 채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한지 어느 덧 십 년이 가까워 오니 대화, 낭독, 합평의 능력 모두가 퇴보되어 있다. 허나 하고자하는 용기와 욕망만은 아직 남아 있나 보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살아왔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일마다 모여 도심의 자연 캠퍼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오늘따라 왜 이리 부럽게 여겨질까. 합평은 끝나고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렸다.

안국동 전철역에서 전철을 탔다. 전철역을 지나올수록 퇴근 시간이 아닌 데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콩나물 시루를 무색할 정도다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 작은 체구에 샌드위치가 되어, 시외 남부터미에서 내려 충남여객 버스를 보니 고향의 지기지우를 만난 듯 반가웠다. 버스에 오르니 몇 명 되지 않는다 대절할 기분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도 말 뿐이다. 자연은 어디나 아름답다.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지 않는가. 나는 잠깐 정신만 여행을 보냈든 것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리움은 그림자 같이 언제나 동반하는 것 찾지 못한 불변의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참, 삶과 하나가 되어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다.

오늘은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날이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도 해보았다. 허나 이러

한 장애인 수련대회는 참가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간다고 약속을 했기에 이를 저버릴 수 없어 집을 나왔다.

비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고 있었다. 장소에 도착하니 장애인과, 많은 참석자들이 와 있다. 이 우중에도 모두 성의가 대단했다. 이어 장애인협회 협의회회장 개회사는 시작이 되었고 모두의 눈실을 적시게 했다.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수많은 장애인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 기관 단체장의 격려사로 식은 끝나고 조출한 다과로 대화는 나누어지고 한편에서는 웃놀이, 팔씨름 장애인과 정상인이 한마음이 되어 울리는 광경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일 뿐이다. 그 순간 순간 즐거운 표정 순박 순진한 마음 비록 몸은 불편할 뿐이지 마음은 그 어느 정상인 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비록 하잘 것 없는 작은 대회였으나 승리를 하고 기뻐하는 그 표정, 올림픽의 금메달 이상으로 만족해 하는 그 모습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아는 그들 마음이야 천사가 아니겠는가?

흔히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이 새삼 뇌리를 스쳐간다. 지금 이 순간 그들만의 행복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침범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다. 사람마다 그 생긴 모습이 조금씩 다르듯 그 차이 뿐이다. 단 생활하기에 조금 불편할 뿐이다. 미남 미녀의 화난 얼굴보다 못난이의 순수한 미소가 한결 아름답고 보기도 좋지 않겠는가.

나는 가끔 TV화면에서 정치인들이 떡살을 잡고 의자가 날아가고 목청을 높이고 우악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 그럴 때 순간 험상궂은 인상은 과연 그들이 진정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야 고칠 수 없는 권력과 금력의 장애인이 아닌가 느껴진다.

시력, 청각, 언어장애 모두 함께 자리를 했다.

나와 같은 테이블에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했다. 듣지는 잘 못 해도 상대의 표정과 입놀림으로 알아들어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되니 시력장애자보다는 낫지 않나 싶다. 아내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약간의 다리는 절고 손의 마비가 있을 뿐 별다른 불편한 곳은 없다고 한다. 너무나 밝은 표정들이라 기탄없이 물어보아도 잘 대답해 주었다. 딸아이는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등학생 남매를 두었는데 아직 자녀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다행이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약속이나 한 듯 부부가 동시에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소년, 소녀 같았다.

옆자리에는 이순(耳順)이 넘어 보이는 듯 한 부부가 남편이 시력장애인인지 부인의 인도로 어디를 가는지 함께 하는 모습 그 얼마나 행복해 보이며, 이 이상의 잉꼬 부부가 있겠는가. 요즘 마스크엔 아내가 가출을 하고 칠순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보도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아내가 도망을 가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이들 남매가 아버지의 입원비와 생활이 어려워 '사랑의 리퀘스트'에 도움을 받으려 나온 가정을 볼 수 있었다. 사대육신 멀쩡하나 마음속 깊이 병이 든 이 장애인은 무엇으로 치유할 것이며 그야말로 치유 불능의 장애인이 아니겠는가?

나는 오늘 여기 참석하게 해 준 L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즐겁게 살아가는 저들로 인하여 참 삶의 교육을 보게해 준 내 마음과, 머리 속에 잠재해 있는 모든 장애를 치유해 주었으니 말이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청소년상담을 하며 가출소년, 비행청소년을 상담하여 새 삶의 길로 많이 인도해준 분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함께 해 준 분이다. 이 분은 수화를 배우고 점자를 배워 지금 한국인 농아협회에서 일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꿈과 희망을, 삶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견하게 보인다.

비는 우주만물 모든 먼지를 씻어 내려는 듯 장대같이 쏟아져 내리고, 우리 때마른 마음 포근히 적셔주고 있다. 이제 나부터 현실에 만족하고 주어진 운명을 기꺼이 받아 하루의 생활에 만족해야겠다.

우리 정상인은 부모가 주신 건강한 몸 이것 이상 더 행복한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주어진 운명을 달게 받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들,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열정을 다하여 웃을 던지는 저들의 생활에 '모'와 '걸'이 반복됨을 기원할 뿐이다.

어머님의 꽃



이 영 하

꽃 을 볼 때면 불현듯 어머님이 그리워진다. 생존시에 유달리 꽃을 사랑 하셨기에 간간이 어머님의 뜰에 들어서서 조용히 거닐어 보게 된다.

어머니께서는 젊으셨을 때부터 재래종 국화를 즐겨 기르셨고 노년기에 들면서 봉선화와 맨드라미를 가꾸는 취미로 사셨다.

우연한 기회에 마당가나 뜰 안에서 봉선화나 맨드라미를 보게 되면 오래 꽃을 가꾸는 주인공을 물어보게 되고 전시회나 행사장에서 잘 길러낸 국화 꽃을 보아도 발길을 돌려 꽃시장으로 향하고는 한다.

우리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만 하여도 농촌의 마을은 초가지붕이 일색 이었고 함석이나 스테트 지붕은 얼마가 지난 6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새 마을 운동의 산물이었으니 행세를 하던 토기와 집은 몇 동리에 걸쳐 한두 집 찾기 어려운 어수룩한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던 시대였었다.

자마을 뒷동산은 삼대처럼 뽕뽕히 들어찬 솔밭으로 그 안쪽 양지녘에 들어앉은 우리집도 다른 집과 구조가 비슷한 7자 모양의 집에 대나무 사립문을 내었고 앞에는 쇠울타리로 가리어 안 마루에서는 밖이 보여도 울타리 밖에서는 집안이 잘 보이지 않았었다.

지붕은 연년이 이영으로 덮지만 울타리는 밤나무 가지와 싸리, 도토리 나무로 엮은 쇠목책이었으므로 여러 해씩이나 견뎌 주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어 부채를 들지 않고도 삼복의 더위쯤은 어렵지 않게 넘기곤 하였다.

봄이면 울타리 밖으로 무더기 무더기 돌아나는 들쭉 모양의 국화들이 파랗게 땅 위를 덮는다.

일찍 찾아온 봄이 여린 국화싹 위에 내려앉으면 엇그제 등우리에서 내린 어미닭도 노란 병아리 여남은 마리를 앞뒤로 이끌고 좁은 울타리 사이를 빠져나가 마당가 퇴비장을 헤치며 어린 병아리를 불러 모은다. 봄은 또 그리로 가서 눈부신 별으로 어루만져 준다.

어느 새 한자쯤 자란 국화를 순질러 줄 때쯤이면 훈풍을 앞세운 여름이 성큼 다가들어 위로만 향하던 국화를 옆으로 벌려 서로 잇닿게 한다.

울타리 반쯤은 곁울타리가 되고 윗쪽은 하늘이 보이는 섶울타리로 안마당은 마치 문을 열어둔 방처럼 아늑하고 시원해진다.

불볕 더위가 물러가 땅이 식고 풀잎끝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 국화는 본격적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불쑥불쑥 피어 올리기 시작한다.

이 때쯤부터 어머님은 아침마다 사립문을 열고 나가서서는 습관처럼 국화를 둘러보신 후에야 부엌으로 들어 가신다. 무서리가 내리자 하얀 꽃은 연보라색으로 노란 꽃은 미색으로 퇴색하여 벌들의 왕래가 뜸해지면 송이송이 따서 음지에 넣어 말리신다. 저녁 연기처럼 흩어진 향기는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서 여러 날이나 머문다.

정성들여 건조시켰던 국화꽃을 방 시렁 위에 얹어 두었다가 내린 일부는 술독 안으로 들여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들의 베개 속에 채워진다.

동리에서 술을 잘 담그기로 소문난 어머님은 매년 국화술을 담갔다가 행사 때에 걸러 내신다. 가끔 마실을 오는 분마다 '약술독 바닥났으면 술지게미라도 내 놓으셔야지 입 심심하게 그냥 보낼 것이냐'고 농담을 건네면 빙그레 웃으시며 못이기는 척 부엌으로 들어 가신다.

점차 살림이 늘어 큼지막한 정문집(열녀문이 있던 집)으로 이사 가실 적에는 이미 팔팔도 출가시켰었고 며느리도 맞아들여 손자, 손녀를 둔 다복한 할머니 자리에 서셨다.

사랑방 뒷마루 앞에서 동쪽의 정문자리로 이어지는 마당가 언덕 경사지 빈터는 텃물이 배어 들어서 흙살이 연하니 검어 보였다.

가랑비 나리던 여름날 어머니는 머리까지 쓰는 비닐 우의를 입으신 후 꽃묘 모종에 나서신다. 당일로 끝나지 않고 꽃묘를 들여 올 적마다 조금씩 이어 내어서 재법 길쭉한 꽃밭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일은 너희 몫이라며 집 뒤의 왕대나무를 베어다 잘게 쪼개어 쫓는 일을 시키신다.

모종한 지 며칠간은 시들하던 꽃나무들이 뿌리를 잡아 곳곳이 서면 언제 마련하셨는지 썩힌 깨묵거름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냥 심어만 두어도 토심이 깊어 잘 자라는 땅이지만 꽃에 대한 대우는 매년 변함없이 철저하셨다.

집안에 행사가 있어 출가한 딸과 조카딸이 다니러 오면은 누런 사료포대 속지로 만든 봉지에 넣은 봉선화, 맨드라미, 깨꽃(사르비아), 채송화 씨를 넣어 두었다가 골고루 나누어 주시며 '사람은 꽃을 심어 가꾸는 마음으로 살아야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사랑스런 당부를 엮어 보내며 마당 끝 정문 자리까지 나오셔서 그들의 모습이 건너편 등성이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을 하셨다.

평소 꽃처럼 고운 마음의 부를 누리던 어머니는 단 하루도 몸져 누우신 적이 없이 주무시다가 홀연히 이승을 떠나가서 자식으로서 간병 한 번도 못 해 본 채 그렇게 서운하게 보내드렸다. 삼우제를 지내던 날 못내 허전해 하던 막내딸은 산소 앞에 놓인 꽃바구니에서 하이얀 국화꽃 한 송이를 가져다 삼목을 하였다가 뜰 안에 옮겨 심었다. 다음 해에 꽃을 피운 국화는 퇴화하여 다만 송이만 작아졌을 뿐 그 날의 그 꽃으로 살아 남아 연년이 꽃을 피워 온지 어언 10년, 옛집 울타리 아래처럼 한 무더기를 이루었다.

이제 좋은 시대가 와서 2002년 봄 한철(4. 26~5. 19)에는 서해안 태안 반도의 안면도(安眠島)에서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꽃지해수욕장 일원과 그 안쪽의 청정 휴양림 일대 24만 평에 이

지방 풍토에서 자라는 자연 풀꽃들을 미리 심어놓고 꽃을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을 맞이한다.

‘꽃과 새 문명’이라는 큰 주제와 ‘바다에 물든 꽃’이라는 낭만적인 부제를 내어 걸고 세계 곳곳에 산재한 다양한 꽃들을 한데 모아 꾸민 꽃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꽃의 종류만큼이나 많을 일백만 명의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몰려 들어 긴 봄날 전체의 자연경관 속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파도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세기의 대축제를 즐기리라.

‘그 화창할 향연의 자리에 당신을 모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꽃이야기를 차근차근이 들려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몽클한 원으로 남으매 그 날에 펼쳐진 정경과 향내음을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향기나는 글월로나마 올리겠습니다. 어머니님.’

主禮 實習(2)

주례의 자리에 서 온지도 그러저럭 십여년이 넘는다. 연년이 몇 쌍씩 서다보니 두어 집은 형제들까지도 집례를 하는 경력이 쌓인다.

주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적어야 땀땀하겠고 모시려는 사람도 비교적 흠이 덜 보여야 적격인으로 가족들의 동의가 내려질 것이다.

한 때는 공직자인 시장, 군수, 의원 등 이름이 나 있는 분에게 부탁드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선출직들 이라도 형평에 맞도록 주례를 금지 시키면서 경조비도 한계액을 법으로 그어 놓으니 범인들에게도 주례를 맡게 되는 것 같다.

지난날에는 주로 봄, 가을로 길한 날을 가려 혼례식을 올렸었는데 근래에 들어 여름, 겨울의 구분이 없이 년중 결혼식을 치른다. 여기에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까지도 이용을 하는 등 새로운 시속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황금과 같은 공휴일을 남의 집 행사에 내어 주어야 하는 하객들은 혼주와의 인사가 끝나기가 바쁘게 선 걸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예 식당으로 직행하여 정작 식당 안은 친·인척들만이 자리를 지킨다. 예의가 아닌 줄은 알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시류에 따라 가고들 있다.

두 사람 마음의 맹서가 이루어지도록 주례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약을 받고는 하늘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하라는 원론적인 머릿말에 이어 본론을 펼친다.

사람이 어릴적에는 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반드시 어진 어머니가 계셨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때 지혜로 나라를 구해내었던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선생은 역사에 길이 남는 명신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최씨(崔氏)는 어린 아들이 오누이를 만날때면 반드시 제집종을 곁에 세우고 만나게 하였다. 오늘의 우리가 보기에선 뭐 그렇게까지 남녀의 유별을 해야만 하나 생각되지만 난세에도 사회 기강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것은 엄한 국법이 아니라 서릿발 같았던 예절의 생활화에서 온 힘이였다.

또한 인조때 학자이며 대신이었던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선생도 어머니 권씨(權氏)의 무언의 채찍질에 의하여 대성을 한다. 비록 궁중의 연회에 참석할 때에도 남의 눈 의식 않고 갈옷과 배옷을 입었으며 밤에는 아들의 글 읽는 소리가 그쳐야 자리에 누웠다 한다. 뒷날 대신이 되어서도 검소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니의 공으로 돌린다.

세계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국의 6·25전쟁때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맥아더 장군의 어머니 메리 여사도 대단하였던 분이다. 아들이 입교한 육군사관학교 기숙사 옆으로 이사가 셋방살이를 하면서 아들의 방에 불

이 꺼지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뒷날에 미국 육군의 총장이 되어 국사에 바쁠 때에도 노모가 계신 집으로 와서 점심을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를 읽고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난날 시골집에는 고구마 통가리가 있었다. 간식이 없던 그 시대 달고구마를 먹으며 불장난을 하다 고구마 통가리를 태우던 날 놀란 어머니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다. 저녁상 자리에서 낮에 일어났던 상황을 조심스레 설명드리는 어머니. 워낙 큰 일을 저질렀던지라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고 잔뜩 겁에 질려 어깨숨만 쉬는데 듣기만 하던 아버지 말씀. '그래서 고구마가 구워졌담' 그 뿐 낮에 제 어미 한테 크게 당하였을테니 그만 안심을 시켜야겠다는 깊은 뜻이었으리라.

학교 성적이 중간에 맴들다 무슨 맘이 들었는지 열심히 파고 들어 쑥 올라간 성적표를 보시고도 별 말씀이 없더니 다음날 저녁상 머리에서 '너 시계가 없길래 하나 사왔다'며 슬그머니 내어 놓으시던 일이며 군에 입대하는 날 인사를 드리니까 방에 앉으신 채 '그래 어여 다녀와' 그 말씀 뿐, 용돈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내도 소식이 없다가 집에 가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 시기에는 그런 부족함도 느껴보고 살아가야 하는 법인데 너는 도대체 그 정도의 불편도 견딜 줄 모르느냐'는 걱정을 듣기도 하였다.

집에 불을 낸 아이의 잘못을 큰 산같은 웃음으로 덮어 주시었고 성적이 크게 올라도 칭찬 대신에 바라만 보던 어른. 자식을 군에 보낼 때에도 마치 이웃 마을에 심부름 보내듯 일상의 표정으로 대하던 속 깊은 아버지들이 아직은 마을에 살아 계시다. 그 자식들이 오늘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 내었다.

현대의 푹푹한 아빠들은 예전의 아버지들보다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친구처럼 놀아주고 많이 가르치며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주는 자상하고 친절환 편이다.

또 요즈음 엄마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 모르는 것 없어서인지 값이 비싼 옷에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라 먹이며 뭇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들어

주며 잘 기른다. 하기가 자식 하나, 둘만 낳아 기르는 시대이니 남보다 뒤질 세라 고액 과외며 학원으로 내몰아 잠을 안 채우는 등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게 극성을 부린다.

그러나 옛 어머니들의 서릿발 같은 자녀 교육과 태산과 같은 아버지들의 훈도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이다.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줘야 할 정신의 줄기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 볼 일이다.

이어서 마무리 하는 말 속에 힘을 신는다.

가족의 건강과 수명은 여인의 따뜻한 손길에 있음을 명심하고 매 끼니의 식사를 만들어 먹자.

형과 언니가 입던 옷을 내리 입히면 정이 깊어지고 동포애가 자란다.

배풀 줄 아는 사람만이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받으려거든 주는 일에 익숙해지자.

어른들께 자주 대화를 해 드리면 반드시 효심이 깊은 자녀를 두게 된다. 한 마디의 말이 수포와 같이 통하는 사람만이 세계 시민이 될 수가 있다.

높아진 목소리가 그치자 이윽고 양가의 혼주들이 일어나 고개 숙이는 모습 보인다.

나의 수필작법

梧桐꽃 향기 같이, 그리움의 저녁놀처럼

글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다. 수필도 말과 글로써 자기를 담아 드러내는 문학의 한 분야이므로 작품속에는 작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품격이 들어

있고 그 사람의 모습, 목소리, 체취까지도 풍기기 때문이리라.

독자가 작품을 대하면 첫 단락에서부터 정결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느끼고 따뜻한 인간미를 만나야 그의 예민한 선입견도 기상대의 일기예보처럼 쾌청을 믿고 눈길을 재촉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 사람의 글' 하고 비로소 가슴을 열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작자를 향하여 목례를 보낸다.

작자는 평소에 보아 느끼고 들어 생각한 것들을 자기 안에다 갈무리 하였다가 곰 삭이고 앙금진 것만을 은밀히 건져 올리지만 고독한 여행길에 나서면 고금을 넘나들고 세계를 비번 하는 등 쉬임없이 문 사물들과 교감을 나누며 대화를 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무슨 글이든 가리지 않고 잡히는 대로 읽게 되었다. 많이 읽다 보니 신변잡기와 문학성 작품이 구별되고 쓰는 요령까지도 어렵듯이 보이었다. 어떤 글에는 절가지가 너무 짝어 있고 또 다른 글에는 간을 못맞춘 음식을 보고 재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도야 누군들 못 쓰라는 오만감이 고개를 들다가도 물 흐르듯 부드러이 잘 나가는 글 앞에서는 언제 썹이나 저런 수준에 이를 것인가 먼 거리감에 위축 무력해지기도 하였다. 예까지 이르도록 수필 분야의 각종 이론서나 입문서, 기법서 등을 접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며 이려고도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비로소 부끄럽고 두려운 생각과 책임의식이 옥죄어 들어 왔다. 그러나 이 계기로 인하여 이전보다 글이 조금은 자란 것도 같도 또 잘 써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수필을 쓰자면 수필적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집에 있던 나가서 있던 늘 메모지와 펜을 지닌다. 걷는 중이나 차 안에서 순간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토막 생각을 잡아둬야 하고 식사때나 화장실에서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색의 줄이 끊기고 화두가 사라지면 밤 하늘의 流星이 되고 만다.

작품 구성이 가시권에 들어 오면 관점의 영역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줄거리를 구성 배열해 본다. 이는 건축가가 그 지형에 어울리게 좌향을 잡고 설계를 하며 쓰일 자재를 구입하는 절차와도 유사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착공만 하면 집은 그럭저럭 지어지기 마련이듯 펜을 들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제목은 건물의 조감도와 같아서 처음부터 내어 걸고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설계도에 따라서 완공 후에 전경 사진을 찍어 둘 수도 있듯이 먼저 제목을 정해 놓고 차례로 주제를 부각시킬 소재를 수합 할 수도 있으며 역으로 소재에 따라 주제를 살려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전자의 실례가 더 많은 것 같다.

펜을 잡으면 선택한 주제나 모은 소재에 따라 시간적 순서를 밟을 것인가, 공간적 배열을 따를 것인가 생각을 하여 보지만 병열식, 나열식 가릴 것 없이 맘 내키는 대로 써 나갈 뿐이다. 상승한 수증기가 구름으로 머물다 비가 되어 떨어지는 상황에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는 것이다.

시작하는 문장만은 되도록 짧고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것을 염두에 둔다. 박진감 넘치는 사건, 돌발적인 행동, 압축된 생각 덩어리를 불쑥 꺼내 등장시켜서 잔뜩 기대하게 한다. 마치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죄수와 굶주린 사자와의 사투 장면을 연상시킨다.

마무리 단락에 이르러서는 끝 매듭을 아쉽게도 하고 은은하게도 하여 주제를 암시시킨다. 고왔던 저녁놀이 사라진 서녘 하늘이며 황혼녘 산사의 종소리처럼 은은한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나온 초고는 읽어 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책상의 서랍속에 넣어 둔다. 한창 동안을 자기 도취에 빠져 멍한 상태이니 읽어 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칠 묵혔다가 다시 꺼내어 읽으면서 추고를 하고 정서를 한 다음 읽어 보지만 여전히 맘에 차지 않는다. 그런 부분마다 밑줄을 그어 두고는 메모지에 옮긴 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생각을 여기에 집중시켜 수시로

첨삭을 한다.

재차 정서를 한 후 정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의도선에 접근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느슨해진다. 이런 일련의 것들은 신문에 끼여 오는 광고지 이면을 이용했으므로 배어져 나가는 문장이나 용지 함께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미련이 남지 않는다. 최종 이기 할 원고지를 대하면 비로소 독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글을 쓰기 전이나 써 놓고는 연 날리듯 띄워 놓고 망연히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수필은 만드는 글이 아니라 쓰여지는 글이다. 그러나 소재가 특이하고 독특하면 더 좋을 듯 싶다.

마음을 닦은 연후에 글을 써야 된다. 자기 영혼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리라.

물질은 마음의 눈으로만 보인다. 심미안 만이 사물을 거느릴 수 있으며 가깝고 먼 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한 편의 글을 여러 해(한후구:나무 5년, 보리 3년) 걸쳐 썼고, 한 수의 시도 사계절(서정주:국화 옆에서 1년) 걸쳐 지었다고 한다.

난, 학, 연적, 옹달샘, 가을, 솔잎차, 모과향 들이 사랑을 받아왔지만 時祀塚, 옛 암자, 綠陰芳草(산삼), 굴뚝, 사랑방 등 묻히는 것들도 깨우면 따뜻한 주제로 일어난다.

사람이 장년기로 접어들면 마음이 깊어져 문학 작품들 이상의 아름다운 감동을 간직하고 있다. 쉽게 쓰인 글이 들어 설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수박



한 동 철

고 장마가 시작되리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가 싶더니 지역에 따라서는
든 끔찍하게도 많은 비가 내렸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비가 내린다고 하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양 쏟아 부으니 순식간에
물난리를 겪는 마을이 허다하다.

우리고장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으나, 저녁 뉴스를 보니
피해정도의 심각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픈 장면은
비닐하우스 마을이 물에 잠겨 수박통들이 등등 떠 다니는 모습이었다. 사나
흘 뒤에는 수박덩굴들을 낫으로 걷어 치우는 농부의 모습이 방영되기도 하
였다. 이번 비는 아마도 수박 특작마을을 강타하였나 보다.

지난 겨울, 내내 애써가꿔 이제는 땀으로 빚은 열매들이 머리통만큼 자
라 출하를 목전에 두었는데, 분신같은 녀굴들을 쳐내야하는 농부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 3월은 모춘이라 청명곡우 절기рода
- 춘일이 재양(載陽)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 당전(堂前)의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 화간(花間)의 뱀나비는 분분히 날고가니 -

갯버들 실가지에 버들개아지 피고 세상 만물 봄바람에 깨어 큰 기지개를 켜면 땅속 판장이 풀려 걸흙이 보송보송 해졌다. 아버지께선 삼으로 구덩이를 파시고 그 속에 퇴비를 한 삽씩 떠 넣고 다시 흙으로 덮으신 후 그 위에 수박이나 참외, 오이, 호박 같은 것들을 심으셨다. 이런 일들을 '원두를 놓는다'고 하셨던 듯 하다.

먼 산의 진달래도 진지 오래고 보리고랑의 보리싹들이 한 뺨뺨 자랐을 즈음 원두들은 싹을 틔워 귀여운 아기싹이 고개를 내밀고 세상살이의 시작을 찬미하듯 쑥쑥 커 갔다.

이 무렵 농부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지지만 원두발 돌보는 일도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니었다. 허약한 묘 속아내기, 원두부릇에 복주기, 결가지 순집기, 중거름주기, 풀매기등 잠시도 손 쉴틈이 없었다. 이렇게 공들여 키운 원두 녀름들이 한 발췌 자라면 노란꽃들이 맺기 시작하고 꼬투리까지 함께 맺힌 놨은 그 앞날이 기대되어 농부들의 사랑을 함뻍 받으며 자라났다.

수박이 주먹만큼 커질 때 췌이면 김매기에 지쳐 손을 넘긴 원두밭은 온통 파랭이 풀밭이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풀섶을 헤집고 다니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수박통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농부에게 안겨주기 위해 잡초들은 그토록 신나고 역세게 자라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수박이 어린아이 머리통만큼 자랄 즈음엔 몸통에 흙이 닿지 않도록 풀베개를 해주고 막대기를 꽂아 큰 수박이 있음을 표시해 놓기도 하였으니, 농부의 손길은 여전히 원두밭에서 떠날 겨를이 없었다. 췌이 날 때마다 원두밭을 들락거리며 큰 놨부터 골라 사주팔자를 정해주니 제일 큰 놨은 조상님 전에 천신할 놨이고 두 번째는 훗장날 아우집에 따가지고 가고 이놈은 이웃 아무개네 주고 이놈은 또 어찌고…….

이렇게 앞날이 결정된 수박들에게 운명의 날이 거의 다가 왔을 때 대부분의 수박들은 제 주어진 팔자와는 상관없이 들췌에 의해 몸이 망가지기가 일췌였다. 가까스로 풍상을 견뎌낸 수박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더위가 기

승을 부릴 때 우리들의 갈증을 웬만큼 삭여 줄 수 있었다.

하루 세끼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하던 시절, 군것질이란 아예 꿈도 못꾸고, 그 말조차 사전 속이나 틀어박혀 있었던 시절, 우리들은 '내일 모레쯤은 수박을 따 봐야 되겠다' 는 아버지의 결정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였던지.....

우리들은 원두밭을 제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 없었다. 우리 밭대로 참외나 수박을 따 먹을 수 있는 권한은 더욱 없었다. 꼬부라진 오이 꼬투리라면 몰라도 수박이나 참외에는 눈독을 들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좌표 속에는 원두밭 어느 위치에 수박이나 참외가 자라고 있는 자가 손바닥 보듯 입력 되어 있었고 푯대까지 푯아둔 판국이 아닌가. 수박을 딸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아버지가 쥐고 계셨으며 할머니는 치외법권을 누리셨으나 원두밭에 가보시는 일은 별로 없으셨다. 엄마마저도 수박을 따야할 당위성을 주장하신 후 허락을 받고서야 수박통을 따 낼 수 있었으니 오늘날 무슨일이든 제 맘대로 해도 별 제재를 받지않는 아이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장날 (일요일과 장날이 겹치기를 얼마나 바랐던지) 읍내에 사시는 작은 아버님택에 수박 한통을 가지고 가면 작은택에는 통샘이 있어 수박을 비비선으로 썬 바구니에 넣고 길다란 줄에 매달아 땅속 10여m 정도의 깊은 샘속에 담구어 뒀다. 밀국으로 점심을 먹고 후식으로 담궜둔 수박을 건져올려 갈라먹는 시원한 맛이라니. 그 적당한 시원함을 이빨이 시려 제맛을 느낄수 없는 오늘날의 냉장고속 수박에 건줄수 있으랴.

우리 식구들에겐 수박을 먹는 별난 습성이 있다. 별난 습성이란게 따지고 보면 별스러운게 아니고 수박의 빨간 과육 부분을 죄다 먹어 버리고 파란 껍질만 남겨 놓는 별로 이상스러운 것도 없는 버릇이기는 하지만.

수박을 먹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대충대충 파먹고 아직도 먹을만한 부분

이 많이 남아 있는 수박쪽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럴때마다 은근히 기가 죽고 내심 남새스런 생각이 왕왕 들곤 하였다. '얼마나 수박에 굶주렸으면 저토록 완전무결하게 먹어 치울수 있을까?' 하고 흥을 보는 듯한 분위기가 나를 폭신 감싸기 때문이다. 언젠가 서울의 사촌 가족들과 수박을 먹게 되었는데 년즈시 살펴보았더니 그쪽 식구들 역시 수박을 처치하는 기술이 우리 집 전통을 아직 버리지 못한 듯 하였다. '역시 어쩔수 없군' 마음속으로 호뭇하게 생각하였었다.

방학이 되어 사촌들이 시골집에 오면 주변에 쥐약을 놓아 보호하였던 수박을 따다가 먹는데 철없는 우리들이 알뜰하고 쫄쫄하게 먹을 리가 없었다. 빨갭게 익은 과육이 아직도 손가락 한 마디쯤이나 남아 있는데(익은 부분이라도 껍데기 가까이는 맛대가리가 없는게 사실이지만) 그냥 내려 놓을라치면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을 나무라셨다.

"수박 한통을 키우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는데 그걸 그렇게 데번데번 먹고 마느냐" 는 말씀이셨다.그런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수박에 대한 사상은 수박속처럼 진하게 물들어 갔고 훗날 우리들 자식들에게도 대물림해 주었던 것이다.가난이 몸에 밴듯하여 창피스러워 죽겠다는 아이들에게 그 옛날 할머니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어느날 술자리에서 남선배님과 술을 마시는데 주모가 수박을 썰어와 함께 먹게 되었다. 아니나 다르랴. 나는 파란 껍데기만 남기고 모두 갇아먹었는데 두분은 대충대충 잡수시고 마는게 아닌가.

"아니, 이 수박 한통을 만들기 위해 농부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그렇게 무성의 하게 잡수시면 됩니까?" 하고 항의조로 말씀드렸더니

"야 임마, 그러니까 설렁설렁 먹어 치우고 또 먹어 치우고 자꾸 소비를 해야 농부들에게 이문이지".

'아하, 그렇구나!' 나는 큰 진리라도 깨달은 듯 무릎을 쳤다. 그 후로도

몇차례나 더 수박을 먹었지만 예의 그 버릇은 영 버릴수 없었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번히 쥐새끼처럼 값아 먹어 버리는 것이었다.

‘기필코 빨간 부분을 이삼센치쯤은 남겨야지’ 다짐하며 먹기 시작 하였는데, 아뿔사, 또 실패였다.

농부님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우리 가족에게 칩령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박을 먹을 때는 까만 씨가 들어 있는 부분까지만 먹을 것, 그 경계 이하를 먹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항상 염두에 둘 것”.

내년 여름 우리집 애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수박을 먹을 때는 수치심없이 떳떳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겠지요?

금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경건하고도 감동적인 일이다. 더구나 한 인간의 탄생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탄생에는 항상 경이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종교와 언어, 피부색이나 생활 습관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두뇌속에 각인된 탄생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나 종족마다 출산 풍습이 있을 것이고 모양새야 각기 다르겠으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출산의 고통을 치룬 산모의 건강을 염원하는 속뜻이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오랜 옛날부터 지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산속(産俗) 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져 찾아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줄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지아비는 서둘러 왼 새끼줄(왼편으로 돌려 끈 새끼줄)을 꼬아서 대문기둥 좌우에 걸쳐 금줄을 친다. 금기줄, 인줄이라고도 불리며 태삭(胎索)이란 명칭도 있는 이 왼 새끼줄의 중간중간에는, 어른 팔 길이만큼 자른 창호지를 끼우고 사이사이에 솜을 끼우고 아들이 태어날 때는 붉은 고추를, 딸일 때는 청솔가지를 꿰어 달아서 이웃이나 길손들이 쉽사리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웃 사람들이나 길손들은 이 금줄을 보고 아들이나 딸의 출산 여부까지 대뜸 알아볼 수 있었으니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보내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도 희안한 통신 수단 이었던가.

학창때 생물학 강의를 들으며 매우 놀랐던 적이 있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랄 수 있는 생물의 유전인자인 DNA(디옥시리보핵산)의 염기배열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로써 핵산의 길다란 사슬 두 가닥이 마치 새끼줄처럼 꼬여 있는데, 우리네 금줄처럼 왼편으로 꼬여 있다는 거였다. 우리조상들은 아득한 옛날에 벌써 DNA 구조를 꿰뚫고 있었던게 아닐까? (DNA 분자 구조는 1953년에야 해독이 가능 하였다.)

금줄을 매단 원래 목적이야 악귀를 쫓는 주술적인 금기에 있었겠지만 출산을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도 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었을 것이다.

금줄은 출산한 집 외에도 장담그는 날이나 안택굿을 할 때에도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를 발하였다. 금줄이 쳐진 집에는 잡인은 물론이고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 마저도 출입을 삼갔다. 오늘날에도 출입통제선에는 줄을 띠어 외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금줄로 대신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왼 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는 것은 잡귀가 왼(左)을 싫어하고 기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부정(不淨)한 것을 배제하고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왼 새끼줄로 주위를 둘러쳤던 것이다. 그러면 근방 사람들은

근신하여 내왕 하기를 삼갔다. 특히 몸이나 마음이 부정한 사람은 절대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금줄속엔 들어 있었다.

금줄에 붉은 고추를 꽂는 것은 붉은색은 양색(陽色)으로 모든 악귀들을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며, 숯을 꽂는 것은 숯의 검정색이 음색(陰色)으로 귀신 무리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줄의 의미는 이러한 미신적 사고 보다는 조상들의 과학적 슬기로움이 그 속에 배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아직 아무런 저항력이나 면역 능력이 없고, 산고로 몸이 허약해진 산모 역시 그런 것들이 미약해졌을 터인즉 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 즉, 항상 접촉하는 가족 아닌 타인이나 부정한 사람(대개는 상(喪)을 당했거나 환자이거나 환자의 가족)의 출입은 당연히 삼가시켜야 할 일 아니던가.

조상의 슬기를 기념케 하는 출산 풍속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신(神)인 삼신할머니를 위해서 쌀밥과 미역국을 세 그릇씩 산실 아랫목에 차려 놓고 할머니는 손이 닿도록 짹 짹 밟으셨다. 이런 비손 후에 산모가 이 밥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산모는 비손과 치성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갔을 것이며 쌀이 귀하던 시절에 산모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섭취시키기 위해 쌀밥과 미역국이 필요 했으며 한 그릇으로는 부족 했으리라. 산모에게 차갑게 식은 밥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온돌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차려 놓아야 하는게 아니었을까? 신(神)인 삼신할머니를 내세우지 않고는, 산모에게만 쌀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아기 낳은 집에서는 못질을 하면 안된다는 금기속에도 역시 조상들의 슬기가 배어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며칠간은 눈을 깜박이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아기가 누워 있는 집에서 광광 못을 박으면 선반에 쌓여 있을 탐새

기가 아기 눈으로 떨어질 것이니 당연히 못박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삼칠은 21일, 세 이레가 되면 비로소 금줄을 걷고 산모는 평상 생활로 돌아가며 아기도 드디어 집안과 이웃들에게 첫 대면을 시키고 공식적인 축하도 받을 수 있었다.

우리집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매번 금줄을 걸었었고 애엄마는 삼신 할머니의 밥을 꼬박꼬박 먹었으니 산부인과에 갈 일이 없었지만 친지가 아들을 출산했다 하여 난생 처음 산부인과에 가 본 일이 있었다. 금줄이 쳐 있었으니 산모를 면회할 수 있었고 아기면회 시간이 되었다 하여 삼칠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아기와 대면할 수 있었다. 아기바구니들이 들어찬 신생아 실은 아기 진열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신할머니께 드리는 밥과 치성 없이도,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할머니의 비손이 없어도 오늘날 태어난 아기들은 너무 귀엽게 잘 자란다. 삼신할머니가 참 고맙다. 당신을 향해 드리는 치성이 없는데도 저토록 귀여운 아기들을 계속 태어나도록 해 주시니 말이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금줄을 찾아 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금줄은 사라졌으나 우리 마음의 문 앞에는 가끔 금줄을 쳐야할 때가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

좋아진 세상이라서 많은 풍속들이 급작스레 소외당하고 퇴색하여 잊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새삼 조상님들께 죄송한 생각이 드는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인생에도 가을은 있다네



한 주 회

밤마다 취하여
바람부는 숲 속에 앉는다
노래하는 나뭇가지에
가을빛이 어렸구나
내 빈잔을 채우기 위해
술집 주인,
투덜투덜 술 창고로 달려간다....

해 르만 헤세가 쓴 「가을 숲에서 통음하다」의 윗부분이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가을의 정취가 듬뿍 느껴진다. 바람부는 숲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취객의 마음이 엿보이기도 한다. 인생사, 인간사 모두를 접어두고 술잔으로 달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인의 이같은 모습은 빈잔과 같은 마음의 빈자리를 가을의 시흥으로 채우고 있는 모습 같다. 어쩌면 시인은 인생의 가을을 깊이 느끼며 머지 않아 다가올 겨울의 공포가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가을을 가리켜 사색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봄의 사색과 여름의 사색과 전혀 다른 깨어난 감성이 가슴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봄의 사색이 단조롭고 여름의 사색이 무분별하다면, 가을의 사색은 멈춰 서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남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위하여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사색인 것이다.

봄을 소년에, 여름을 청년에, 가을을 장년에, 겨울을 노년에 비유한 것도 사색의 차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을은 봄을 거치고 여름을 거치면서 가을만이 할 수 있는 열매를 위하여 희생하는 계절이며, 겨울을 위하여 준비하는 계절인 것이다. 일년 사계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생적이며, 가장 명예로운 것이 가을이며, 그러기에 가을은 사색과 고독이 충만한 계절인 것이다.

가을은 자연의 형태만이 아닌 것이다. 인생에게도 가을은 있는 것이다. 바로 장년의 계절인 것이다. 인생도 인생의 가을이면 인생의 사색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뒤돌아 보는 성찰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인생 사계 중 가장 후회는 느끼는 계절은 중년의 가을이라고 말할 한다. 중년이면 모두가 후회의 인생을 산다는 의미인 것이다. 일생동안,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후회없는 가을을 살기 위하여 인생을 다듬는 삶을 간직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수치는 탐심과 탐욕 때문이라고 말할 한다. 만일 사람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후회없는 삶이 될 것이다.

중국 한나라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소하(蕭何)라는 거장이 있었다. 그는 정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동안 나라의 기틀을 닦는데만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허물어가는 담장의 집과 채소밭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그가 인생의 가을을 맞아 고관대작의 자리를 버리고 낙향하여 여생을 보

냈다.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 생각되는 '조참' 이라는 인물을 임금에게 천거하여 후세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후세의 어진 사람들이여, 인생의 가을에 아름다운 사색을 하십시오. 그것은 나처럼 검소한 일생을 산 사람만이 가능할 것이요, 많은 재산을 남겼다가 다음 세도가들에게 몰수 당한다면 인생의 가을은 열매 없는 황야가 될 것이요.”

요즘도 이같은 인물이 있을까?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며 사색하며 사는 고관대작이 있을까 묻고 싶은 것이다. 권력과 탐심이 어우러져 추태만 드러내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소학'은 분명 없는 것 같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으악새가 서걱대는 소리가 쓸쓸하게 한다. 숲속의 바람마저도 스산하게 한다. 나도 어느 시인처럼 달빛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을을 성찰하고 싶은 것이다.

후회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남은 겨울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싶은 것이다.

가을은 내 인생의 가을에 지혜를 안겨 줄 것이라 믿어지는 것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얼마 전 신문에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남편이 고발을 당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일정기간 아내의 곁에 근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기간 동안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아내를 폭행한 때문에 결국 갈라서게 됐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남존여비의 의식이 이골되다시피 했고, 심지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로 여성의 지위를 깎아내리려 했다.

그러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 말의 참 뜻은 남성들의 왜곡된 해석으로 진수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다를 수가 있지만 인격과 인품은 똑같은 동질의 속성인 것이다. 남성우위라든가 여성상위라든가 하는 불합리한 논리가 아닌 남녀평등이라는 원리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근래 들어 여성상위시대를 예측하고, 페미니즘학이 대두되는 것은 모두 여성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논리의 성립인 것이다. 중국의 논리에 의하면 인류는 태고적부터 남성사회가 아닌 모계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옛적에는 일부다처제가 아닌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였다고 한다.

사람의 성씨(姓氏)만 보아도 성(姓)자의 女자가 가입된 것 역시 여성상위를 뜻한다는 것이며, 중국의 임금들의 성씨 속에도 女자가 많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우위시대로 변하면서 가부장제도로 바뀌어졌고,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의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윤리도 따지고 보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강요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사회학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암탉이 운다는 깊은 의미는 여성의 도리와 여성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리켜 '우는 암탉'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여성파위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특히 전문 직종에서의 여성의 기능은 남성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그러하리라는 예견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두각을 가리켜 암탉이 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만일 이같은 여성의 활동을 가리켜 운다고 표현한다면 이제는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예부터 여성은 집안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안주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 주인이라는 말 속에는 여성의 윤리의식이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인이 비뚤어지면 따르는 식구가 비뚤어지기 때문이다. 그 남편까지도 비뚤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암탉이 운다는 참뜻은 주인의식을 떠나 인간윤리를 거역하는 여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정은 안락하고 건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 가정윤리가 모계윤리라든가 부계윤리라든가를 떠나 가정이라면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파괴하는 여성의 행위를 암탉이 운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극심한 말로 모계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실로 여성의 뛰어난 잠재능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휘되기를 기대하기 족하다. 남성을 능가하는 재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참뜻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도 모두의 소망인 것이다. 인간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저력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행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성추행이라는 부끄러운 행태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평등이 안착되어야 할 것이며, 학처가니 공처가니 하는 말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영원한 반려자이기 때문이다.

평행선의 침묵



이 화 란

그는 항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른 대접을 받았다. 일요일이면 그는 어른의 품위에 걸맞는 검정양복을 차려 입고 운이 나는 구두로 단장을 했다. 텔레비전 옆에 놓아 둔 책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는 검은 가죽으로 표지가 입혀진 책 두 권을 탈탈 털어 먼지를 몰아냈다. 마당에는 어제 닭아 놓은 승용차가 근엄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나 하는 듯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교회당으로 접어드는 오솔길에 하얀 소국이 합창을 하고 있었다. 그의 승용차는 길의 가장자리에 있던 꽃들을 짓밟아 바퀴자국을 내고, 흙먼지를 일으키는 오솔길에게 '물렀거라' 를 연발했다. 앞마당에 들어서자 가을꽃들이 그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그는 어깨를 폈다. 고개를 뺏뺏이 들고, 마주치는 신도들의 인사에는 고개만 까딱하며 답례했다. 그 주일의 예배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날이었으므로 그는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예배당의 문을 열고 엄숙하게 옷깃을 여미며 순교 선열들에게 묵념이라도 하려는 듯 강단에 올라갔다. 주악에 맞추어 예배는 시작되었다. 거의 오 분 동안 드리는 그의 기도는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고도 남을 것처럼 우렁차고 권위 있었다. 햇빛을 받은 유리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나 장로가 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당장이라도 들어올 것만 같았다. 굼직하고 힘찬 그의 바리톤은 도의 음역으로

시작되었다.

“무소부재 하시고 전지전능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며 도 음으로 운을 떼어 서두는 평온하게 시작하였다. 그는 연이어서 한 주일동안 지은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평소의 당당하던 모습과 다른 간곡한 애조를 띤 목소리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교회의 대소사를 아뢰기 시작했는데, 이 때부터 그의 목소리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미의 음으로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하는 데서부터 침을 튀기더니 대통령의 안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호흡은 가빠졌다. 파 음으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의 사기충전에 이르면 그는 거의 웅변조가 되었다가 발을 굴리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옵소서’에서 솔로 올라가 호령을 했다. 그리고는 호흡을 정돈하여 가없는 북한동포의 식량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애절하게도 미의 음역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웁니다.’에서는 다시 도 로 내려와 평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새벽기도를 새벽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발음하여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삼 주일의 번 차례로 들려오는 나 장로의 기도에 정 집사는 넋더리를 내었다. 물가에서 자그마한 돌을 던져 물수제비를 뜨면 그것은 서너개 씩 원을 그리며 점점 작아지다가 물위로 스러질 때까지 여운을 주었다. 그는 그렇게 여운을 남기는 기도가 좋았다. 하지만 나 장로의 기도가 정 집사의 귀에는 쇠납소리일 뿐이었다.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제직회가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로는 광고를 했다.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자 나 장로는 찬송과 기도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연례행사로 하는 부흥회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부흥회의 시기부터 결정하도록 하지유.”

“작년에도 일 월 달이 했으니께 올해도 일 월로 하지유.”

“올기는 쪼께 일찍 허두 괜찮을 성 싶은디, 모다덜 그전께 허던대루 허자 네그려. 워칙현대유, 많은 대루 따라가야졌네 그려.”

여기저기서 가을에 하자는 사람, 겨울에 하자는 사람으로 의견이 소란했다. 나 장로가 입을 열었다.

“제 생각은 작년처럼 겨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를 해서 의견을 매듭 짓겠습니다. 가을에 부흥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정 집사를 비롯하여 다섯 명이 손을 들었다.

“겨울에 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고 권사가 주위의 노인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했다.

“장로님이 교회이다 돈을 월매나 바쳤는디 그리유? 손이래도 들어야지.”

주로 할머니 집사들이 손을 들었다. 나 장로는 숫자를 세고 난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겨울에 허자는 분들이 많으니께 겨울에 허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회의를 하기 위해 교회에 오기라도 한 듯 세부사항까지 잘도 마무리해 나갔다. 부흥회 시간과 안내전단, 홍보위원, 성가대의 찬양자, 강사의 세 끼 식사며 간식에 이르기까지 책임자를 뽑고 맡기기도 하며 여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강사목사님은 누구로 모실까요?”

서기가 기록하는 것을 보며 나 장로가 좌중을 향해 다시 물었다.

“그거야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목사님께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디요.”

고 권사를 비롯한 여러 집사들이 의견을 결정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던 정 집사가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고 권사가 곱게 늙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받았다.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대요? 우덜이 정하지유.”

그러나 나 장로가 강사의뢰를 표결에 부치자 목사에게 일임하자는 스물댓 명의 손바닥이 높이 들려 나 장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들어가서, 강사님이 오시면 숙소는 어디로 정할까요. 사박 오일 동안 새벽기도, 오전강의와 저녁집회 시간마다 지가 모시러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여편이 있는 면소재지까지 갈려면 택시를 대절해야 할 텐데 무엇보다 경비가 많이 날 것 같은 디요.”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일동 가운데서 짐을 새로 지은, 신도들 간에 시절이라고 알려진 기 만도의 아내 지 집사가 입을 열었다.

“즈이 집이라두 괜찮다면 즈이 집으루 모시두 좋겠시유.”

“예, 지 집사님께서 숙소를 제공하신다니 저희들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배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강사초청문제만 목사님께 일임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주문이라도 외우듯 주기도문을 외웠다. 회의를 마친 사람들은 식당으로 갔다. 나 장로도 양복 윗저고리를 벗어 구석에 세워진 옷걸이에 걸고 앉았다. 말을 많이 하느라 허기가 졌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오늘 식사당번은 어떤 구역인가? 김절이가 제법 맛있네.”

김절이를 보고 이것을 집을까 저것을 집을까 뒤적이며 저울질하던 권사는 마침내 배추의 노란 속 부분을 집어들고 입에다 넣었다.

“김치 누가 담었나? 젓국냄새가 너무 많이 나. 비린 것 같네.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워치케 현다나. 좀 칼칼하게 허잔코. 미원만 잔뜩 집어느코.....”

무엇인지 못마땅한 일이 있는 듯 그녀는 투덜대며 말했다.

“아께 예배시간에 들으니께 목사님 아들이 십일조를 했더만. 인자사 대학상이라는디 어디서 돈이 나서 십일조를 했더나?”

“권사님, 아직도 모르시유? 성민이가 사 년 장학금을 받았다고 허더만 거기서 십일조를 띠었겄지.”라며 민 집사가 대답했다.

순간 권사의 얼굴이 파래졌다. 이윽고 그녀는 하얀 얼굴로 돌이키며 서 여사쪽을 바라보았다.

“우리 성민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엄마, 학교가 아니고 연구재단이야.”

보옥이 정정하였다.

“ 좋겄구만, 우리 큰아들도 대학교 졸업할 때 꺼정 장학금 받고 땡졌어. 지금 부대교회이서 월매나 큰 목사님인디. 집이 한 번씩 대니러 오문 젊은 군인들이 호위를 허고 오지. 헌디 공부만 잘 한다고 다 출세허나? 앞길은 아무도 모르는 뱀이여.”

그녀는 역정이 나는 듯 노기를 띠어가며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새파래졌다가 하얗게 변하는 권사의 표정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바람에 내심 놀랐던 서 여사는 짓가락을 들었던 손을 더듬거렸다. 접시 가장자리에 김치 국물이 단정하지 못하게 번졌다. 고 권사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창 밖에서는 감나무 열매들이 소담스럽게 속살을 익혀가며 진홍빛 요염으로 눈길을 끌었다. 실과들이 알차게 결실을 마무리해 갈 때 마을에서는 저마다 가을걷이에 바빴다. 논밭의 곡식들과 산야의 열매들이 부지런한 농부들의 기쁨이 되었다. 새터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아늑한 곳이었다. 아늑한 정감만큼 들판은 넓지 않았다. 농부들은 자연 산을 일구어 논이나 밭을 만들었으며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처럼 좁디좁은 계단식 논일망정 힘써서 가꾸었다. 그러나 샷갓배미 규모의 농군이 다수였다. 어느 날 아홉 배미를 짓

는 농부가 샷갓을 쓰고 눈에 피사리를 나갔다. 그가 여덟 배미의 눈에서 피사리를 마치고 아홉 배미째 작업에 들어가려는데 눈 한 배미가 보이지 않았다. 눈배미를 찾느라 기진했던 농부는 잠깐 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벗어 두었던 샷갓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러자 그 밑에서 눈 한 배미가 나왔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궁벽한 마을이었다. 그래도 가난한 친정에 가느니 가을 산에 간다고 사람들은 산으로 다니며 도토리도 줍고 야생열매들도 따며 부지런하게 먹거리들을 마련했다. 곳곳에 양식을 쌓아놓고 겨울나기를 할 김장이며 땀나무가 끝이 나면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다. 농한기에 해마다 연례행사로 가졌던 부흥회는 시골교회의 중요한 행사였다. 부흥회 기간에는 면장을 비롯하여 지서장, 우체국장, 예비군 중대장, 소방대장, 각급 학교 교장 등 마을 유지들이 모두들 교회에 나와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에서 누군가 와서 바깥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미있어하고 신기하게 여겼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중에는 교회를 관공서로 아는 사람도 있었다.

“에이, 도대체 목사는 그걸 설교라구 하는 거여? 원 시 살 먹은 아라두 그렇게는 안허것네. 책이다가 밑줄을 치지 말고, 생활이다가 밑줄을 치라고 하대. 그걸 말이라고 허남? 우리 아들 오면 물어 보야 혀. 그저 목사들은 삼년만 되면 갈아 쳐야 한다니께.”

식사를 마친 권사는 교회당을 나오며 궁시령 거리다가 예배당 마당을 향해 침을 뱉 뻘었다.

“목사면 다 같은 목사인가? 뭣이든지 다 질이 있는 뱀이여. 감히 어디서 우리 집안을 넘볼라고 그래. 새터에서 우리 정일이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혼자서 종얼종얼 목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던 그녀는 저만치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승용차를 보았다. 차는 권사의 앞에 섰다.

“아니, 장로님 무신 일루다가 다시 온대요?”

“회의할 때 부흥회전단 맨들기로 헛잔이유? 내일 면이 나갈 일이 있지유. 나가는 길에 인쇄소에 가알 턴디 감싼허고 공책을 식당에 놓고 왔시유.

“젊으디 젊은 양반이 벌써 그렇게 정신이 없대유?”

“아이구, 권사님도 내 나이 되보유. 그렇게 안되나.”

권사보다 열 살이나 아래인 나 장로의 말에 그녀는 허리를 잡고 깔깔웃다.

“장로님은 오늘 설교를 워치케 생각하시유?”

“뭘 워치케유?”

“목사가 한 오늘 설교 말이유. 생활에다가 밑줄을 그시라고 허더만 도디케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인감. 시 살 먹은 아덜도 그렇게는 안 할기여.”

“밑줄을 그시라고 헨 것은 무신 시에 나왔다고 읽어 주는 것 같든디요. 그건 그렇고 목사가 아주 이상해 졌시유. 그전에는 사람도 겸손하고 순진한 것 같더니만, 요즘 보니까 영 옛날 같지 않이유. 아들이 일류대학 들어갔다고 목이다가 힘을 주는 것 같은디 별 것 아니라니께유.”

“그러게 말이유. 나는 저런 목사는 침 본다니께. 목사가 자기 교회 일이나 잘 보른 됐지 무신 자선사업간가? 대밭골 보덕이네 언청이 치료해준다고 악을 악을 쓰데. 병고치는 것도 좋지만 수요일날 예배도 빼먹고 말이유. 성실허지가 못허유. 좋은 일도 자기 책음을 다허고 허야지. 개다가 설교는 왜 그 모양이여. 들고 앉았으면 줄리기만 허구. 진즉부텀 장로님헌티 말 헐라고 했는디 잘 되았네. 저 양반 보내야 허.”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시유. 여적지 혼자서만 생각허다가 권사님허고 이 이야기를 허니께 속이 다 시원하네. 자기가 무신 예수 그리스돈가? 교회도 안 나오는 집이 애럴. 명헌지 뵈인지 감상선 치료해 준다고 서울로 어디로 전 화질 해대더니.....”

“참, 그 지지배는 워치케 됐어유? 수술했남?”

“곧 수술헌다고 허는 것 같든디 잘은 몰리유.”

상쇠가 팽과리를 올리면 장구잡이가 이내 그 가락을 따라서 주고받으며 연주하듯 두 사람은 김 목사를 성토했다.

“그런디, 내보넬라든 무신 방법을 쓰야 헐턴디.”

흙먼지를 일으키던 차의 바퀴가 돌맹이에 부딪혔는지 덜컹하며 승객을 승용차의 천장으로 쏘아 올렸다. 그 바람에 권사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찬송가와 성경이 툭 튀어나오며 그녀의 발등에 메어다 꽃히듯 떨어졌다.

“글쎄, 무슨 수루다가 내 보넬디야?”라고 장로가 가락을 이어 받았지만 책을 잡으려다 덜컹대는 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그녀는 혀를 깨물었다.

“금방은..... 못 허더라두 방법이 있겠지.”

차의 천장에 부딪힌 그녀가 한 손으로는 정수리를, 다른 손으로는 책의 모서리에 맞은 발등을 어루만지며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씩씩이며 팽과리를 모지락스럽게 올렸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나, 짹짹 훑어 보유.”

산골 마을은 겨울이 서둘러 오는 모양이었다. 늦게까지 꽃을 보려고 화분에 심었던 소국들이 꽃을 본지 사흘만에 된서리를 맞아서 울상을 짓고 있었다. 김 목사와 서 여사는 전지 가위를 들고서 서리맞은 꽃들을 잘라내고 매 무새를 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국화분은 별로 신통치 못했다. 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예, 교힙니다.”

“여보세요. 김 목사님이세요? 여기 대학병원인데요. 최 명희 어린이의 갑상선 수술 문제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을 무료로 하시려면 서류가 몇가지 필요하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받아쓸게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일주일 후에 검사로 들어가거든요. 준비 되는데로 원무과에 접수시켜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됐어요. 잘 됐네 서류만 준비 해 가면 무료로 수술해 준다니 이렇게 고마

을 데가 있다. 명희가 복이 많은가봐.”

김 목사는 서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이얼을 들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서류만 준비되면 검사하고 수술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아드님께 제가 감사하 더란 말을 전해 주세요. 저도 따로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진짜 목회를 하시네요. 어찌면 그렇게 아들을 잘 두셔서 의술로 봉사를 하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수화기 저쪽 편에서 껄껄 웃는 노목사의 대답이 들려왔다.

“김 목사, 훌륭한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넬세. 큰 수술을 무료로 하기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 하지만 농촌에서 목회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사랑의 손길까지 베풀느라 참 애쓰시네. 어쨌거나 명희란 아이가 참 복이 많은 아이로구만. 우리 김 목사의 눈에 띄었으니.”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땅에서도 구해야 만이 하나님도 들어 주신다네.”

하나님과 노목사에게 백 배의 감사를 표한 후에도 기쁨으로 빛나는 김 목사의 실눈이 안경 속에서 웃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목사님이세요? 정 집습니다. 송 노인 있지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참나온 할아버지. 그 양반이 돌아가셨시유.”

“그날 심방할 때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니..... 그러면, 장례절차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그래서 문제유. 아들놈은 가막소를 들랑날랑 하더니만 소식도 없고, 안노인네 혼자만 계시는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유. 교회 출석이라고는 한 번 뿐이 안했는디.....”

“그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장례치르는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유.”

“교회고 절이고가 없시유. 심방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곳도 없이유.”

정 집사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이미 노파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느 하늘 아래서 떠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아들로 인하여 눈물짓던 노파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새터마을은 마당가에 으레 한두 그루의 감나무와 금송화 따위들이 핀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온 동네의 집들은 시멘트를 바른 마당에 수도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는 송 노인네의 집 마당만이 불그죽죽한 황토바닥이었다. 깊은 우물에 빈 두레박을 떨어뜨렸다가 손에 잡은 줄을 이리저리 조종하여 두레박을 잡아당겨서 물을 떠올리는 대신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심정용 자동펌프가 땅속의 생수를 칼칼 쏟아내었다. 그러나 송 노인네는 수도시설 역시 없어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을 가운데의 공동 우물로 물을 길러 다녔다. 마당에서 바라보았던 부엌 살림은 아무것도 그럴싸한 것이 없었다. 노파와 같은 빗갈의 무쇠 솥 아궁이와 거미줄이 잔뜩 걸린 시렁 아래로, 연꽃이 피어있지만 처음의 때깔을 잃어버린 사기 요강과 누리끼리한 양재기 서넛이 부뚜막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을 지켰었다. 한자(漢子)로 복(福)자가 새겨진 대접은 목사를 비웃는 듯 했었다.

“그 할머니가 싫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치뤄 드리지요.”

“목사님이 염을 하셔야 할텐디 괜찮으시겠어요?”

“처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도 거들지요.”

“그럼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여전도회나 남선교회에 장례준비를 의논하시지요. 만약 찬성하지 않으면 집사님과 저만이라도 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유,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될 육신은 남은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작별을 했다. 평소에 크게 친분은 없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 가운데서 송 노인네 먼 길을 떠났다. 아들은 장례를 치르도록 끝내 소식이 없고, 이북에서 월남

했기 때문에 피붙이 하나없이 객들만 모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송 노인 이 교회를 한 번 밖에 나오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리쿵저리쿵 말이 많았지만 목사의 간곡한 권유가 힘을 발휘했는지 새터교회의 신도들은 수의며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마련했다. 동네 장정들이 상여를 메고 공동묘지까지 운구했다. 마을 아낙들은 음식들을 장만해 왔다. 끼이끼이 구슬프게 울어 주는 이도 없이 하관을 마쳤다. 노파는 소리쳐 울지도 않았다. 주름살 투성이의 노파가 허연 광목 치마저고리를 걸고 구정물이 잔뜩 낀 치마를 걸더니 교쟁이 주머니에서 누런 봉투를 두 개 꺼내어 김 목사에게 다가왔다.

“선상님,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것은 드리야 되겠시유. 이놈 한나는 교회이다 바치구유 이놈은 선상님헌티 드릴라구유.”

노파는 눈물과 콧물을 번갈아 질금거리며 목사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김 목사가 아무리 사양하고 거절해도 노파는 막무가내였다.

“선상님 가난허다고 나는 사램도 아닌감유? 그래도 사램이면 고마운중 알아야지유. 내가 이 은혜를 어디다 갚겠시유?”

목사와 노파가 실랑이를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디씩 거들며 목사를 채근했다.

“목사님, 사양하시면 성의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요.”

“선상님헌티 이것을 꼭 드리야만 내맘이 편허겠시유.”

순간 목사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봉투를 받았다.

장례식을 마친 목사는 자전거를 타고 면소재지로 나갔다. 가구점에서 물건을 산 그는 자전거에 싣고 면사무소로 갔다.

“아이구, 김 목사님 오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자기 방에 앉아 있던 면장이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목사를 보더니 쫓아 나와 인사를 했다.

“면장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럼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면사무소에 이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목사는 가구점에서 사온 물건의 포장을 풀었다. 끈을 풀고 종이를 벗겨 내자 보면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면장은 송구스러워 어쩔줄을 몰랐다. 어찌다가 한 번씩 필요한 것이기에 그는 가끔 교회에서 보면대를 빌렸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서 복 많이 받겠습니다. 목사님 덕에 명희라는 아이 갑상선 수술도 무료로 하게 됐다면서요. 그것 뿐입니까? 대밭골 사는 여학생도 언청이 수술까지 무료로 받게 주선하셨다면서요.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쉽게 진행되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지 제가 뭐 노력한 것이나 있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겸손하시기는, 좁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나요. 목사님이 선한 일 많이 하신다고 모두들 얼마나 칭찬하는데요. 참 듣기 좋습니다.”

“면장님, 일월에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가가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종교에는 별로 취미가 없지만 목사님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때라도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면장은 면사무소 바깥까지 나와 목사를 전송했다.

“아니, 목사님이 송 노인네서 돈을 받았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권사가 지 집사에게 참새방아를 찿었다.

“그 할매가 자꾸 주님께 받을 수 배끼 더 있지유?”

“그래도 그렇지. 월매나 가난헌디 준다고 돈을 받아오나?”

권사는 목사가 가난한 집에서 돈을 받았다고 사방에다 대고 수군거렸다.

해가 바뀌고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새터 주변 마을과 멀리 면소재지의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예배당안은 사람들로 빼곡하게 들어찼다. 통로에까지 앉

은 사람들로 인해 열기를 더했다. 신도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사람들을 초청했다.

“할아버지, 새터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꼭 오세요.”

“부흥이? 교회이서 무신 부흥이를 잡는다야?”

“그게 아니고, 부흥회라고 하는데 오시면 좋은 이야기 듣게 되실 거예요.”

신도들은 전화를 해서 초청하기도 하고 부흥회 전단을 나누어주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아낌없는 봉사를 했다. 신도들의 열심에 못지 않게 서울에서 온 강사는 연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 되었다고 천국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또는 나는 우리 안식구가 잘 믿으니까 치마끈 붙잡고 갈 수 있겠지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자기의 죄를 모두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죄의 대가를 사람 대신 치르신 것이지요.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셨느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이지요. 레위기 십칠장 십일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죽게 되겠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망의 값을 갚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복음은 종교와는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우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에게서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죄의 짐을 벗겨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는데 빈 가마를 메고 가던 청년들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은 할머니에게 가마를 타라고 권하였지요. 할머니는 미안했지만 청년들이 강권하므로 마지못해 가마를 탔습니다. 할머니가 가마를 타자 청년들은 가마를 메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청년들이 물으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가마를 멘 청년들은 할머니가 편하신가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가끔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지요. 목적지에 거의 이르러서 청년들은 다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예.”라는 대답이 들렸으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청년들은 황급히 가마를 내리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가마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짐보따리를 머리에 인채로 땀을 뻘뻘 흘리고 가마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가마에 타셨는데 짐은 왜 이거 계세요?” 청년들이 묻자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가마에 탄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길 수가 있습니까?”라고 할머니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죄의 짐을 말씀히 처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믿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 사람은 원체 말을 잘 허네. 목사는 아메 나라이서 월급을 받지?”

“얼라. 미숙아배 그것두 몰려? 세상 일 모다 아는 것 같드면 이제보니 헛똑똑일세. 저이들은 모두 미국서 돈을 보내준다고 하대.”

마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재미있다는 듯 웃기도하고 비판도 해가며 김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목사님, 이거 얼마 안되지만 강사 목사님께 사례비로 드려야지요.”

장로가 봉투를 들 가져와 목사에게 내밀었다.

“장로님, 같이 가지죠.”

목사는 장로에게 동행하기를 권했으나 그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목사는 자전거를 타고 지 집사의 새집을 방문하였다. 강사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되지만 저희 교회에서 성의로 드리는 것입니다. 약소해서 부끄럽습니다.”

김 목사는 가지고 간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각기 두 목사들의 이름이 써어 있었다.

“제가 사례를 바라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것 만으로도 제게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성민이가 금년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교, 서울에서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골 교회 사례금으로는 교육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교회에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가면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비에 보태십시오.”

그는 불쑥 봉투를 김 목사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된다커니 안 된다커니 두 목사는 실랑이를 벌였으나 서울 목사의 힘은 막강하여 김 목사는 그를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었다.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들은 살롬을 부르고 헤어졌다.

새터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덮였다. 교회의 앞산은 동양화가 되어 고즈넉한 침묵을 이고 있었다. 저녁을 짓는 농가의 소박한 연기는 하얗고 정처 없는 것이 되어 흰 산으로 날아가 북병처럼 스러지곤 하였다. 발이 푹푹 빠지는 산골 마을에서 바쁜 발자국들이 눈밭위로 서로 뒤엉키었다. 장로의 집

에서 권사의 집으로 다시 지 집사의 집으로 민 집사의 집까지 발자국들은 얼키고 설켰으며 그때마다 김 목사는 도마 위의 횃감이 되어 먹음직스럽게 저며졌다.

“아니 그럴 수가 있대요? 김 목사 이제 보니 아주 불량한 사람이네. 교회가 바친 돈을 워치케 가로 썰 수가 있어?”

권사는 꺼진 불을 일으키기라도 하듯 두 불에 바람을 잔뜩 넣어 부풀리기 시작했다.

“권사님 그게 아니고 성민이 학비에 보태라고 직접 강사목사님이 왔더니 깨요.”

지 집사가 정정을 했으나 발 없는 소문은 이미 천리를 돌고 난 후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렇게 쪼든 저렇게 쪼든 교회이다가 바친 돈 아녀. 어찌 목사가 하는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가로채나? 당장 몰아내야 혀.”

분이 가득 찬 권사는 나 장로에게 방송을 해댔다.

“열 질 물 속은 알어도 한 질 사람 속은 모른다드니 옛말 그른 것 하나도 없네. 목사가 워치케 현금을 가로챘디아?”

장로와 권사의 여론은 맛있는 군입거리가 되어 두 사람만 만나도 도둑, 세 사람이 모여도 사기꾼하며 농한기의 긴 밤을 심심찮게 했다.

“소문 들었시유? 목사님이 현금을 가로챘대유.”

저녁 식사 후 신문을 들여다보는 정 집사에게 그의 아내가 말문을 열었다.

“무슨 쓸데 없는 소리를 허나. 누구한테 들었어?”

아내의 소견이기라도 한 듯 정 집사는 그녀에게 눈을 부라렸다.

“지 집사 신랑.”

옷가지를 개키던 그녀가 아들이 빛나가게 던지는 공을 받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런 인간 말을 믿어? 자기 논인지 너의 논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탱이가 허는 말을? 그 인간이 바심때 콤바인 들어가게 논 갈탱이 둘러 비라고 지 집사가 했는디 엉뚱생똥허게 질갈티 민수네 논으루 가설랑은 갈탱이럴 몽땅 비어논거 몰려서 그런 말 허나 이사람아? 괜히 쓸디 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있게. 낭중에 공중 욱 얻어듣지 말고.”

“그 인간이 시절인 줄은 나도 알지. 밥도 꼭 먹으라고 허야 만이 손갈을 드니께. 하지만 사람들 말로는 강사가 준 돈이니께 교회이다가 바쳐야 한다는겨. 그런 것은 잘못이지 않나?”

“씨잘데 읊는 소리 허다가 낭중에 우세당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녀.”

공연히 부아가 치민 정 집사는 아들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뛰지마라. 탐새기 난다.”

소문은 들고 돌아 사람들의 사이를 짝뚝 잘라 놓았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 없는 소문의 정체를 신봉하고서 목사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사님, 이게 어쩐 일이래요. 아주 듣기 해괴한 소문이 들고 있시유.”

“무슨 소문인데 그러세요? 나는 소문에 휘말릴 일이 없는데요.”

“권사님이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그래 가만히 계시유?”

“다 들었지요. 하지만 가만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명이라도 해야 지유.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은 권사님말이 진짜인게라 생각하지유.”

“내가 몇몇한데 무슨 해명을 합니까? 권사님이 또 싫증이 나신 게로군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진실을 알게 되겠지요.”

“목사님, 그래도 조심해야 되유. 사람들이 모두 떠들어대면 골치 아플 거구먼이유. 권사가 이렇게 한두번이 아니유. 무신 병이 도지는지 삼년만 되면 꼭 이것이유.”

이집 저집으로 몰려다니며 목사의 행실을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예배당 곁의 사택으로 몰려들었다. 장로와 권사를 중심으로 기 만도, 명희아버지 최씨 목사의 사돈되는 미숙엄마, 언청이 수술로 딸의 얼굴을 산뜻하게 치료한 대밭골 오씨 등은 목사에게 항의를 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대요? 워치케 목회자가 헌금을 도둑질합니까?”

장로가 목사를 닥달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힘써 아니라고 하자 그들은 연이어 떠들기 시작했다.

“아니 뎨 굴뚝에서 연기나나?”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 권사가 말했다.

“목사님, 아무래두 땀더루 가시야졌이유. 사람들 맘이 모다 뗐시유. 사람들이 도둑질헌 목사의 설교는 듣기 싫대유.”

오씨는 무척이나 목사가 걱정이 되는 듯 동정해가며 말했다.

“큰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 확인 전화를 해드리지요.”

목사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멈칫 했다. 그러나 권사가 부드럽게 말을 채뜨렸다.

“그럴 필요는 없시유. 허지만 목사님은 여기를 떠나야 해요. 우리는 어쨌거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맞아. 은혜가 안되는 거.”

“우덜이 기냥 허는 말이 아니유.”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장로가 나섰다.

“사택을 비워 주유. 우리도 다른 목회자 모시야 될 것 아니유.”

장로의 말에 이어 최씨가 나섰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서로가 불편할 것인디요.”

“갈 디가 업시유? 그러면 우선 부모님 계시는 고향 집으루 가서 기시다가 자리를 찾아 보시지유.”

먼 사돈댁이 친절하게도 교회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죽창을 들고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집단이 되어 우왕좌왕했다. 기 만도와 최씨는 눈이 벌개서 신도들의 집집을 방문하며 김 목사 가족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 집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목사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그들 중 장로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빚 독촉을 받을 뿐이었다. 큰돈도 아니고 잔삭달리 뿐이었으나 샷갓배미의 경영자들로서는 여간 곤욕스러운게 아니었다.

곱상하게 내리던 함박눈이 바람을 데리고 왔다. 북새바람에 뒤틀리던 나무들은 비틀거리며 어쩔 수 없이 춤을 춰야 했다. 산골짜기가 바람을 타고 우우우 울었다. 골짜기가 흐느낄 때마다 나무들은 하얀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 어디를 간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사람을 봤으면 한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날이나 개이면 떠나지요.”

“어제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어차피 우리는 떠날 사람이고 그들은 남을 사람이지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김 목사 역시 궂은 날을 생각하면 외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에 그는 기가 꺾였다. 신도들은 세 주째 두 패로 나뉘어 예배를 했다. 열한 시에 목사가 주관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장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몰려와 한 시에 예배를 했다. 그들은 목사가족에게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다. 목사와 함께 예배를 한 네 사람 가운데 먼발치로 장로의 모습을 보자 재빠르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다. 정 집사는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다가 목사에게 간다는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자전거를 타기에도 미끄러운 빙판이었다. 면소재지까지의 거리는 도보로는 무리였지만 버스가 끊기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방한 복장을 갖추고 문

을 열자 북새바람이 그를 휩 닦아줬다. 잠시 주춤했던 그는 파죽지세로 덤비는 그들을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칼바람이 다가와 그의 발가락부터 찌르기 시작했다.

“니가 필 잘났다고 봉사니 뭐니 까부는 거야?”

새터를 나와 소재지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바람이 그를 넘어뜨렸다.

“내가 어째서.”

주머니에 넣었던 장갑이 나와서 미끄러지는 목사를 부축했다.

“시골 목사가 무슨 끝밭이 있다고 그래?”

“그게 잘못된 일이야?”

“잘난체 말아. 주는 봉급이나 잘 타고 국으루 있다가 좋은 자리 나면 읍기구 조용히 살란 말이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목사지.”

“사랑? 웃기네. 그래 내가 사랑을 실천하니까 명회 아버지가 사랑으로 보답하던? 양로원이고 훈련장으로 자전거바퀴 닳게 날랐어도 누가 내게 물 한 모금 떠 줘? 이상이 높아놔야 허당이야. 밥 굶기 딱 알맞다구. 네가 그렇게 하니까 반대파가 생기는 거야. 교회 터줏대감들 비위나 잘 맞추고 정해진 예배나 드리고 있으면 까딱없지. 처음에 고 권사가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있었어? 그 사람 앞에서 자존심 건드리니까 이 꼴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 그리스도는 신의 나라를 지상에 접근시켰지. 하지만 인간은 오해하고 우리들 사이에 성직자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맞아. 사람들은 교회당의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야. 요즘 사람들은 성직자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인의 예배당을 숭상하는 거야. 신조와 의식이 선한 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대신하게 되고 종교는 인간을 결합하는 대신 무수한 종파로 갈라놓고 반목하는 거야. 물론 다양한 종파가 나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신조싸움 종파싸움 하느라 정작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은 뒷전이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성장해야 되지 않나? 콩에 물을 부으면 물은 시루를 빠져나가고 콩나물은 성큼 자라있잖아.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게 아니야. 자라지 않는 콩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하나 행실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데, 깨달았으면 실천이 뒤따라야 해. 난 단지 받은 은혜에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럼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지 뭐 별다른 것 있어?”

발가락을 찌르던 칼바람이 차츰 귀를 자르고 있었다. 구색을 갖추느라 눈가루들이 심심찮게 눈으로 달려들었다. 목도리로 얼굴을 두르고 목을 감싸고 바람이 들어올 곳은 촘촘하게 막았으나 야차 같은 바람을 이길 수는 없었다. 또 다른 김 목사와 투닥거리던 그가 소재지의 역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바지 가랑이 끝에서부터 무릎께까지 얼음 부대가 진군해 있었다. 버스가 풀렸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역으로 몰렸다. 간혹 아는 얼굴들이 보였으나 전과는 달리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고 못 본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차는 성진읍에 닿았다. 눈보라가 심한 탓인지 거리에는 행인들이 뜸했다. 역에서 교회는 그리 멀지 않았다.

“오시느라 꼬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이소. 예배시간까지는 두 시간 남았습니다. 너무 일찍 오셨네에.”

“에 기차시간에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마냥 기다리기도 마땅찮아서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주여’ 한 마디를 중얼거리고 나니 알지 못할 무엇이 가슴을 툭쳤다. 안경알이 뿌영게 흐려졌다.

‘김 목사님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추궁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람아, 힘을 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버티라구, 본때를 보이란 말이야. 안나가고 버티면 제까짓 것들이 강제로 풀어내겠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런 식은 안돼.’

두 달이 넘도록 사례비조차 받지 못했다. 친구목사들이 쌀자루를 두고 가며 끝까지 버티기를 권했지만 심약한 김 목사로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싸움이었다.

싸움이 크게 난 듯 했다. 꺾은 날씨로 인해 며칠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못한 염소들이 떠들어대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축사를 흔들었다. 노련내가 지독한 솟놈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몸집이 탱글탱글하고 수염이 기다란 솟놈이 새로 들어온 솟놈과 뿔을 맞받아 치고 있었다. 서로 뿔을 들이대며 머리로 버티다가 다리를 옮겨 디딜라치면 고약한 노련내가 바람에 실려와 진동을 했다. 주인이 들어가도 그놈들은 떨어질 줄 몰랐다. 나 장로는 벽에 걸어두었던 삼으로 두 놈의 잔등을 내리쳤다. 한 번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삼을 든손에 힘을 주고 후려갈기기를 서너 차례하자 비실비실 구석으로 물러났다. 장로는 염소우리를 돌아보고 사료를 주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나 사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세요?”

“저, 심 면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면장님이 어떤 일이십니까?”

“몇 번 망설이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즈음 새터교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제님께 제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만 신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겠습니까? 나 사장님께서 중재를 하셔서 화해하시면 어떨까 해서.....”

“교회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신도들의 의견대로 따를 뿐입니다. 면장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구요? 이 양반이 좋게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구만. 만약에 김 목사를 쫓아내기만 하면 새터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줄 아시오.”

“당신, 어느 나라 백성이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당신이 목사요. 장로요. 하다못해 교회출석이라도 하시요? 목사가 설교를 은혜스럽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가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참견이란 말이요.”

성진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온 목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성진 교회 대표들은 자기 교회에 있는 집사를 신학교에 보내서 설교를 하게 만들겠다는 대답을 했다. 서 여사에게는 걱정 말라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길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왔지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마련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기차를 타야하는 길만이 얼어붙은 채로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길도 있었다. 하지만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어설픈 집념이라고 불러야 좋을지도 모르는 길을 그는 선택했었다. 신앙인지 신념인지 때로는 자신도 명백하게 구분을 못했다. 어쨌거나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돌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았다. 배를 주리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영혼의 기갈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살이를 버거워했다. 인간의 실존 자체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에게 와서 길을 물었다. 불가사의한 인간의 삶과 운명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은 극소수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에게서 영혼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하늘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발등을 내려다보며 주춧가를 지나던 그는 귀에 익은 찬송소리가 들려와 발을 멈췄다. 무심히 고개를 들어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성애가 덮인 창으로 실내의 모습이 타원형 거울처럼 뽀얗게 보였다. 딸인 듯한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부부가 노래를 하고 있었다. 깎아 놓은 밤톨같은 사내아이 둘이 트라이앵글과 탬버린을 치며 서툴게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따사로운 입김이 그 집을 싸안고 있는 듯 느껴졌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깔깔대는 소리와 탬버린 소리가 목사의 발을 얼어붙게

했다. 거세던 바람은 그쳤지만 그래도 분을 풀지 못했는지 눈이 무더기로 내렸다. 목사는 도움이 될만한 얼굴을 떠올려 보았으나 장로와 권사의 모습이 그것을 덮어버렸다. 밤 열차를 타려고 서성대는 그의 어깨 위로 눈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월의 넷째 주일이 되었다. 네 사람이 나오던 예배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하는 장로의 예배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밤에 몰래 사택으로 와서 목사 내외를 위로하던 이들도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갈 곳은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어디에서도 김 목사를 오라고 하는 곳은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성진교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목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긴 기도와 짙막하게 이어지는 수면으로 인하여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파리한 그의 안색은 생기를 잃은 듯했다.

“계시오.”

마당이 좁았는지 사람들은 양 편의 꽃밭까지 짓밟고 들어왔다. 한겨울이라 꽃은 사라졌지만 새파란 줄기의 그루터기가 남아 광막풍이 잠시 자리를 비킨 사이로 마가렛의 진초록 생명이 겨울을 나고 있었다.

“안 나갈거요? 어디로 갔어? 목사새끼. 지 발로 안 나가기만 해 봐. 다리 목대이럴 분질러 엠부란스에다 실려서 나가게 할 기여. 안 가? 안 가기만 해 봐. 살림보따리 모다 배같이다 내쳐야 허. 좋게 말 할 때 듣지 꼭 이런 꼴을 보고 나가려 하나.”

검정 양복의 대표자는 교인들의 뜻을 전달한다며 세 치 죽창을 휘둘렀다. 서 여사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에도 굳건하던 그녀가 침묵을 깨고 분노했다.

“나는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아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더라도 서로 좋게 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장로님은 기도나 해보고 이런 일을 꾸몄습니까? 신앙이 없는 세상사람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이곳

에 있다는 것이 한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며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우리더러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서 여사는 말문을 열자 오열이 터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대꾸했다.

“갑자기라니, 갑작기가 무슨 소리요? 벌써 두 달이 지났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요? 사흘 여유를 줄 테니까 사택을 비워요. 그때도 안 나가면 짐을 들어다가 강제로 내칠거요. 알아서 하시오.”

오열하던 서 여사가 숨을 끌었다.

“강제? 강제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세상에도 법이 있어. 더러워서 거기까지는 안 가려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참지 않겠어.”

서 여사가 분노하며 대적하려 하자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나갈 때도 우르르 마가렛 꽃밭을 밟았다.

저만치서 누군가가 목사에게 인사를 했다. 자기에게 인사를 해 준 것만도 고마워 그녀가 내미는 손을 김 목사는 덩석 잡았다.

“아이구, 민 집사님 어디를 가세요. 면장님은 여전히 건강하시지요?”

목사는 너무 반가워 그녀를 껴안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여느 때 같으면 우스개 소리도 자주하고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으나 장로의 예배에 참석하던 모습을 본 후로 그의 조심성은 악수를 나누는 정도로 절제되었다.

“목사님, 마음고생이 여간 아니실 텐데, 힘드시지요?”

“필요, 살다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겠지요.”

“조금 지나면 이해들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오해를 했지만 이젠 아니예요.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성민이 학비 보태라고 직접 목사님께 드렸다면서요. 그걸 모르고 저도 오해를 했네요. 제가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일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듣는 민 집사의 친절함 말에 그는 용기를 얻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만으로 참아온 시간들이었다.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후줄근하던 그의 어깨는 생기를 얻었다.

마당은 어지러웠다. 조그만 돌맹이로 만들어 놓은 꽃밭은 형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져 있었고 햇볕을 받아 푸르던 생명의 짙은 문드러진 채 돌맹이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아빠, 그 사람들이 또 왔다 갔어요. 사흘 기다리다가 안 나가면 다리 목땀을 분지른대요.”

목사를 보자 기가 막힌 듯 보옥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 그만 울어라. 사람들이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예, 떠나기 전에 한 번 보고 오려고 송 노인 댁에 다녀오다가 길에서 민 집사를 만났어요.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던데요.”

“민 집사가 이제부터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겠지요. 이 못난 사람을 만나서 힘들지요?”

목사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 내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듯 가만히 웃었다.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하는 저녁식사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 목사는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민 집사의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니, 이래도 되는 거요? 세상에 목사가 사람을 쳐?”

민 집사가 들어오며 죽는 시늉을 했다. 그녀의 남편은 시뻘개진 아내의 목을 내보이며 김 목사에게 샷대질을 했다.

“못 믿겠으면 좀 보라구.”

멍하게 바라보는 부모가 안타까웠는지 보옥이가 대거리했다.

“뭘라고요? 아니 아빠, 말씀 좀 하세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네. 여보세요. 우리 아빠는 법이 없어도 사실 분이예요. 그 따위로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당신도 인간이야?”

보옥이 펄펄 뛰며 민 집사를 손가락질하자 그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것 봐라. 느이 아버지가 아무 짓도 안 했다면 이렇게 목 언저리가 붉어질 수 있어? 어깨를 운신도 못하잖아. 넌 모르면 가만있어. 쪼그만게 되바라지게 어디서 나서고 지랄이야. 지랄이.”

그녀는 방바닥을 손으로 치고 벽을 두들기며 분해 죽겠다는 듯 말했다. 방문과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아빠, 이 사람들 사기꾼이네. 아빤에게 맞아 꼼짝도 못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자기들이 별걸게 되도록 굶어 와서는 생떼를 쓰는 거예요. 아저씨는 면장까지 지내신 분이, 아무리 아내라지만 양쪽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침묵을 지키던 김 목사가 입을 열었다.

“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진단서를 끊어 오세요. 어깨가 아파 꼼짝을 못하시면 병원에 먼저 가서야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닙니다.”

“김 목사, 당신 말이야, 이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데 가서도 절대로 목회를 못하게 할거야. 폭행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내 사위가 지서장인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에이, 재수 없어.”

그들이 나가자 모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보옥은 의자에 앉은 채로 책상에 몸을 엮드리고 서 여사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을 잊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김 목사는 가족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몰랐다. 뗏뗏하게 큰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져 더욱 수치스러웠다.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큰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그저 좋게만 살아오던 날들이었다. 그는 울고 있는 모녀를 그대로 두고 집을 나섰다. 밖

으로 나와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져 검검한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강대상을 향해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다.

“이 개새끼들아!”

그러나 후련해지기보다는 누군가가 듣지나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럴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행복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울고 있을 모녀를 생각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이내 지서장이 들어왔다.

“목사님, 인품으로 보나 그 동안 활동하신 행적으로 보나 누구를 때릴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하지만 저희 장모님께 사과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김 목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는 부부를 바라보자 멧적은 듯 지서장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삼일절은 날씨도 좋았다. 마을 사람들은 사택까지 들어와 이삿짐을 날랐다. 신도들은 멸찌감치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형수님, 저 손님들 대접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저 쪽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식사준비를 해야 할 테니까 개스통은 맨 나중에 실어야 해요.”

“나는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삼촌이 잘 챙겨 줘.”

서 여사가 대꾸했다. 화물차에 짐을 싣는 것을 보며 고 권사가 서 여사의 손에서 어항을 낚아챘다.

“이것은 교회이다 선물한 것이지 목사님께다 준 것이 아니유.”

“교회에 준 것은 교육관에 있어요. 이것은 저희에게 준 거예요.”

보옥이 대꾸했으나 고 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항을 들고 갔다. 김 목사가 말했다.

“보옥아, 됐어. 그냥 드러라. 교회에서 쓰겠다는데 양보하면 좀 좋으나.”

짐을 모두 실은 김 목사는 신도들을 둘러보았다. 신도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김 목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도 못했다.

“모두 이리 오세요. 이렇게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기 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 장로와 고 권사의 손을 각각 붙잡았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오고가는 소식들이 서로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소서.”

차는 짐을 싣고 비포장의 길을 덜컹거리면서 먼지구름을 뿌렸다. 차안에서 비로소 한숨을 내 쉰 보옥이 말했다.

“아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옳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렇겠지. 목사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야 오죽하겠니? 하지만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데 십삼장 이십사절부터 찾으면 나올 거야. 도착하면 찾아보자꾸나.”

제2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수상작품



- 초등부 운문 장원
류승희 / 서동초등학교
- 초등부 산문 장원
이주림 / 서산초등학교
- 중등부 운문 장원
신태희 / 서산중학교
- 중등부 산문 장원
정근오 / 서령중학교
- 고등부 산문 장원
이연실 / 서산여자고등학교

엄마 마중

류 승 희 / 서동초등 6-2

일찍 저녁을 챙겨 먹고
오빠 손잡고 나가는 엄마 마중

“오빠, 엄마는 어디쯤 오고 계실까?”

“응, 저기”

오빠가 가리키는 손가락 끄트머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살포시 어둠이 깔린 텅빈 길

“어디?”

“응, 금방 오실꺼야”

다리에 걸터 앉아
엄마를 기다리는 중

길 끄트머리
검은 그림자 하나 나타난다

“엄마~”

“그래, 승희야”

엄마의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환하고 넓은 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외갓댁 가는 길

이 주 립 / 서산초등 6-1

엄마가 나서 자라셨다는 고향의 오래된 기와집에서, 외할머님이 살고 계신다. 올해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외할아버님과 함께 사셨었는데 외할아버님은 암이셨다. 생전에 약주를 무척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단순한 술병인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 암이란다. 말기. 종양이 너무 커져 견잡을 수 없다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 해드릴 걸. 그럴 걸. 죄송한 마음과 함께 눈물만 흘렸다. 상여를 따라가면서 또다시 울었고, 소리쳤고, 통곡했다.

“아버지이-”

작은 산골 엄마의 고향 마을에 엄마의 외침이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콕콕 박혔다.

슬펐다. 한없이.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이맘때 쯤, 추수를 돕는답시고 냇을 가지고 눈에 가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베셨는데 붉은 피가 팔팔 쏟아졌다. 이 때, 외할아버님이 헐레벌떡 달려오셔서 입고 계시던 셔츠를 찢어 뱀 곳을 동여매셨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엄마는 너무나 고마우셨다고 한다.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심하신 줄로만 알았던 외할아버님이, 엄마를 걱정해

주시며 가슴 아파하시자 엄마는 감격스럽기까지 하셨다니, 외할아버님의 성격이 짐작이 간다.

나는 엄마의 분신이다. 엄마와 비슷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엄마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가 엄마의 이야기이다. 내가 지금 쓴 글은 엄마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도 된다는 말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내 고향보다는 엄마의 고향에 갔을 때가 더 편하다. 아마도 주변 환경 때문일 것이다. 삭막한 도시인 서울과, 고향집 앞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 재잘거리는 작은 새들, 푸르른 나무, 울창한 산림과 산토끼, 청설모, 다람쥐들이 노니는 시골은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엄마가 사시던 기와집으로 가려면 두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논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좁고 꼬불꼬불한 논둑길이고 하나는 산옆으로 나 있는 좁지도 넓지도 않은 오솔길이다. 축축한 흙으로 되어 있는 논둑길의 흙은 축축함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맨발로 그 꼬불꼬불한 길을 걸으면 발에 닿는 흙의 감촉이 참 좋고 재미도 있다. 오솔길을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풍요로워지기까지 한다. 축축한 흙 대신 초록색 클로버와 하얀 클로버 꽃이 있어 맨발로 걸으면 참 부드럽다. 그래서 나는 외갓댁 가는 길을 참 좋아한다.

엄마도 나와 똑같으시다. 엄마는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데 바빠서 오늘은 오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꼭 외갓댁에 가는 길목을 걸을 때처럼…….

화장대, 유년, 거울이 깨지다

신 태 희 / 서산중 3-1

거울이 깨지다 밝고 높은 분내 가득한 탁자 위에서 깊게 주름패인 거울의
결이 아름답게 조각나다 아침 햇발을 등지고 어둡게 그늘진 바닥에 흰 색
앞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홀연히 빛나다 빛나는 조각 사이사이로 골수처럼
흘러나온 향기로운 것이 바닥을 적시다 아찔한 향기에 슬며시 눈꺼풀을 떨
구다 희미한 망막의 푸른 움직임속에 더더욱 희미한 색깔이 반사되다 눈의
문을 조심스레 열면 핏줄같은 거울의 결이 안개같이 흐릿하고 늙은 노인의
향수처럼 다시는 뚜렷이 기억되지 못하다 거울 속에는 추상화처럼 분열된
얼굴이 보이고 자그마한 손을 무심코 갖다 대면 투명한 눈빛이 은밀하게 번
득이며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다 흠칫 새어나오는 입김이 번지며 열은 손자
국 하나 피워 내다 손자국 피어난 거울의 깊은 결을 따라 번지는 핏방울;

유년의 혈관이 깨지다 거울이 깨지다

나의 가을 길

정 근 오 / 서령중 2-1

초 등학교 3학년때의 추억이다. 내가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수원에서 권용현이란 친구가 전학을 왔다.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려면 산 속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먼 곳에 살았는데 그 친구의 집은 감나무와 밤나무 그리고 석류까지도 풍성했다.

내가 나중에 용현이 어머님께 들은 이야긴데 용현이는 음압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할따와 남자들 중에서 상위권에 든 내가 괜찮아 보여서 나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라고 하셨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던 나도 그 친구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전학은 지 일주일도 안되는 친구와 들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

나와 용현이는 늘 같이 다녔고 같이 웃고 같이 울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나머지 급기야 그 친구와 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과학실험을 하고 있었다. 나와 용현이는 물질을 용해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유리막대로 젓겠다고 유리막대를 잡아 당기다가 유리막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내 약지가 조금 잘라졌던 것이다. 나와 용현이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양호실로 뛰기 시작했다. 내 손가락을 본 여자 친구들은 기겁을 했다. 양호실에는 양호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 용현이와 반 친구는 양호선생님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흘린 피로 우리 학교는 피바다가 되었다. 이 사태로 수업시간 인데도 불구하고 형, 누나, 동생들 할 것 없이 구경을 나왔고 간신히 양호선생님을 찾은 친구들은 양호선생님을 모시고 나에게로 왔다. 선생님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서 피를 닦아 주시며 지혈을 하셨고, 옆에서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자꾸 내가 까불어서 그런 거라 하시며 내 머리를 계속 때리시는 거였다. 나는 정말 서운했다. 어떻게 다친 애를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시는지…….

아무튼 지혈이 끝나고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께서 오셨다. 그리고 병원까지 가서 손가락 봉합을 하는데 마취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무사히 손가락을 꿰매고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잘못하면 신경이 끊어질 뻔 했다고 위험했다고 하셨다. 그 일로 나와 용현이는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용현이 어머니께서는 다친 내 손가락을 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맛있는 걸 자주 사주셨다. 그리고 일요일엔 나와 용현이 우리 엄마와 용현이네 엄마가 시민회관으로 뮤지컬을 보러 왔다.

그 당시에 나는 시민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시민회관에서 뮤지컬 '피노키오'를 다 보고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용현이네 엄마가 가는 길로 따라 갔는데 - 그 때는 늦가을이었다 - 그 길은 은행나무가 두 줄로 길게 심어져 있는 운치 있는 길이었다. 때가 때이니만큼 길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낙엽이 계속 떨어졌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아주 장관을 이루었다.

30분 정도 그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갔다. 나와 용현니와 엄마와 용현이네 엄마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은 지금 수원으로 다시 떠난 친구와 함께 내 가슴 속에 떠오르고 있다.

할머니의 거울

이 연 실 / 서산여고 2-7

우리 집에는 조금 특별한 거울이 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라기 보다는 '할머니의 거울'이라는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른다. 할머니 고쟁이 속에 늘 숨어 있는 작은 손거울…….

그 손거울은 할머니가 열다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셔서 시집살이를 할 때, 할아버지가 쥐어주신 것이라 한다. 결코 다정하시지도 인자하시지도 않았던 할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일까? 거울을 어루만지시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배어 나온다.

부모님보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그 거울을 보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에 딱 한 번 밖에 구경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 거울을 아침에만 들여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 후 하루 종일 거울은 할머니의 고쟁이 속에 숨어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할머니의 손거울은 어린 나에게 너무도 특별한 물건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어린 나는 할머니에게 곧 잘 묻곤 했다.

“할머니! 할머니는 거울을 왜 갖고 다녀? 꺼내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할머니는 관심없다는 투로

“늙은 얼굴 뭐하러 자꾸 보니.”

라고 대답하셨다. 그 때 어린 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머니는 자기 얼굴에 주름도 많고 미우니까 보기 싫은가 보더라고…….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운동회에서 돌아온 나는 할머니에게 고

사리 같은 손을 펴 보였다. 내 손에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산 핑크색의 예쁜 꽃무늬 손거울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가져. 그리고 할머니꺼는 연실이 줘!”

할머니가 뭐할 것 없이 난 핑크색 손거울을 할머니 호주머니에 쑤셔 놓고 빨리 할머니 거울을 내놓으라 때를 쓰기 시작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할머니 거울보다 새로 산 거울이 더 세련되고 예뻐다. 하지만 괜히 특별해 보였던 낡은 거울이 더 갖고 싶었을까? 하여튼 할머니는 새거울을 내려 놓으시며

“새로 산 건 우리 연실이가 가져라.”

말씀하시고는 뒷짐을 지고 마실을 나가셨다. 철없던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버리자 난 울음을 터뜨렸고, 그 날 엄마에게 혼이 났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 그랬는지, 지금 보면 테두리에 때가 끼어버린 낡은 거울일 뿐인데……. 그 땐 정말 갖고 싶었다. 그리고 몰랐었다. 그 거울을 왜 그리도 애지중지 아끼셨는지도.

하지만 내 몸도 마음도 조금씩 커갈 즈음에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두렵다고. 그리고 마치 거울 속에서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것 같아 너무도 늙어버린 모습을 보여 드리기가 죄송스럽다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홀로 5남4녀를 키우셨다. 혼자 키워내기엔 솔직히 부담스런 자식들이었다. 더욱이 가난했던 집안 사정 때문에 제대로 학교 한 번 못 보내고, 먹고 살기 바빠 어린 자식들을 모두 타지로 내보내야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한때는 적지 않았고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도 자식들 공부 못시킨 데에 한스러움이 남아 있으시다.

그럼에도 자식들, 손주들 앞에서는 고집 세고, 완고한 모습이셨다. 하지

만 할머니 내면의 모습은 너무도 연약한 여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역시 할 아버지의 빈 자리는 그 누구도 메꿔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컷나 보다.

자식과 먼저 떠난 남편만을 바라보며 우리 집을 이끌어 오신 할머니는 대견스럽기만 한데, 할머니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죄스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셨나 보다.

아침마다 거울을 꺼내 보셨던 것도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지난 70여년의 세월을 되돌아 보는 것이었다.

몇달 전, 할머니는 버스에서 발을 헛디뎠 넘어지신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이 곳 저 곳 쭈신다며 드리 누우시기까지 해서 온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의 몸 상태보다 넘어질 때 떨어져 나간 손거울의 테두리를 어찌나며 더 큰 걱정을 하셨다. 가족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할머니 낱 잡아 앓혀 놓고 이래저래 말씀하신다.

그렇게 할머니에게 꼼짝없이 잡혀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짜증이 나지 않는 건 할머니에게 그 거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음 바랄 뿐이다.

그리고 먼 훗날 나도 나이를 먹어 주름진 노인이 되었을 때 내 고쟁이 속에도 지난 삶을 들여켜 비춰줄 수 있는 작은 거울이 있기를 바란다.

서산문학회, 그 19년의 발자취

한 동 철

서산문학회 창립 19주년과 동인지 「서산문학」 10집 발간에 즈음하여 그간의 발자취를 연도별로 간략히 기록해 보고자 한다.

1981. 11. 23 서산지역 문학동인회를 창립하기 위한 발기인 모임
권성중, 김순일, 김용동, 김창수, 김한택, 문수호, 문희태, 황금성 등이 모여 문학동인회를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음.
12. 27 서산지역 문학동인회 창립 모임.
발기모임 참석자 8명과 류상동, 이경구, 조희만, 이성주, 박숙영 등이 참석하여 문학동인회 창립.
이름을 '갯글'로 짓고 초대회장에 김순일 회원 선임. 월 1회 정기모임을 갖도록 결정함.
1982. 4. 18 '갯글' 2대회장에 김창수 회원 선임
1984. 4. '갯글' 3대회장에 김순일 회원 선임
1987. 4. '갯글' 4대회장에 류상동 회원 선임
명칭을 '문심회'로 개칭. 한동철, 한은숙 회원 입회
1990. 4. '문심회'를 '서산문학회'로 개칭. 1991년부터 동인지를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동인지 이름을 '서산문학'으로 결정함.
권순하, 김형순, 남정화, 서종숙, 송국범, 신득균, 이영하,

인성희, 최경옥, 한근식 회원 입회

1991. 5. 30 '서산문학' 창간호 발간(교단문학사)

1992. 5. 1 서산 시민의 날 기념 주부백일장 주관

11. 1 '서산문학' 제2집 발간(농민문학사)

주부백일장 입상자 김현주, 강나밀, 송숙희, 김충자, 이경숙, 이윤, 이은숙, 홍인옥과 유인석, 성문현, 김명화 회원 입회

1993. 1. 15 '서산문학' 2집 발간기념회(서산시 청도부폐)

5. 5 서산 시민의 날 기념 학생 백일장 주관

12. 24 '서산문학' 3집 발간(도서출판 토담)

최소녀, 박희량, 이시숙 회원 입회

1994. 5. 1 서산 시민의날 기념 주부백일장 주관

12. 20 '서산문학' 4집 발간(도서출판 한피)

이영동, 김종운, 성정희 회원 입회

1995. 5. 1 서산 시민의 날 기념 시민 백일장 주관

12. 20 '서산문학' 5집 발간(도서출판 한피)

이종안 회원 입회

1996. 12. 15 '서산문학' 6집 발간(도서출판 한피)

문혜옥, 김진희 회원 입회

12. 22 6집 발간 기념 제1회 서산문학의 밤 개최(서산시 문화회관, 새너을신문사 후원)

1997. 12. 11 '서산문학' 7집 발간(도서출판 한피)

김현구, 윤용문, 유병인, 김태영 회원 입회

12. 20 7집 발간 기념 제2회 서산문학의 밤 개최(서산문화원 후원)

1998. 12. 10 '서산문학' 제8집 발간(도서출판 한피)

윤혜선, 정옥희 회원 입회

12. 21 8집 발간기념 제3회 서산문학의 밤 개최(서산문화원 후원)
1999. 9. 19 제1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주관
12. 15 '서산문학' 9집 발간(도서출판 한뫼)
박영춘, 이순수, 주병구, 박태진, 최병기, 이화관 회원 입회
12. 18 9집 발간기념 제4회 서산문학의 밤 개최(서산문화원 후원)
2000. 1. 30 99년도 결산 및 임원 선출. 5대회장 이영하. 부회장 한동철, 김현주. 감사 김태우, 이경숙. 총무 한근식 회원 선임
2. 25 회칙개정 및 2000년 세입세출 예산, 회비납부제 개선 결의. 류상동, 김현구, 류인석, 김순일, 남정화 회원 고문 위촉. 한주희, 이근숙, 윤인섭 회원 입회. 10집 편집위원회 한동철, 박영춘, 김현주, 이경숙, 문혜옥, 주병구 회원 위촉
4. 21 5월중 등반대회 결의
이순수 회원 고문 위촉. 맹정호 회원 입회
5. 14 청양 칠갑산에서 회원 등반대회
7. 21 2000년도 상반기 결산
9. 22 편세환, 이병우 회원 입회
10. 8 제2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백일장 주관
11. '서산문학' 제10집 발간 예정

열 해전 '서산문학'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을 때 독자들께서는 '마치 신선한 자연식품을 맛보는 듯 하다'는 소감들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셨다.

창간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을 때 서산문학회는 여러가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하나는 '우리들은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였다.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박꽃 같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회원들의 염원속에서 창간호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책을 펴내는 주제에 떠벌일 것도 없었지만 자랑거리가 있어도 별로 내세우려하지 않는 서산 사람 특유의 기질이 서산문화회에 배어 있기에 '박꽃같은 책'을 원했을 것이다.

서산문학은 장대비, 소낙비처럼 대뜸 푸짐하게 적시기보다는 가랑비, 이슬비처럼 소리없이 독자들의 마음을 축축히 적혀주고 싶다.

이제 웬만한 것쯤은 거의 알만한 나이인 열살바기가 되었다. 초창기 서산문학에 선보였던 옛되고 젊었던 회원들의 모습을 빛바랜 책장속에서 대할 때마다 한없이 아름다웠던 지나간 세월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더욱 아름다워야 할 다가올 날들을 생각해 본다.

열 해 동안 탈없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산문학회원 주소록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이영하	서산시 석림동 영진로알 가동 606호	665-7703	회장
류상동	서산시 읍내동 789-3	665-3613	작전회장
김순일	서산시 읍내동 494-3	665-3909	고문
김현구	서산시 읍내동 137	664-2212	"
남정화	서산시 예천동 716-3	668-3500	"
유인석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현대A 104/102	042-572-1869	"
이순수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1구 360	663-6387	"
한동철	서산시 읍내동 129-12	665-8657	부회장
김현주	서산시 동문동 대립A 3/1101	665-8533	"
김태우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한아름A 207	664-6348	감사
이경숙	서산시 동문동 하나로맨션 B-102호	665-9525	"
김명화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산 57	662-4583	회원
김충자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663-1461	"
맹정호	서산시 읍내동 현대A 107/1702	667-1896	"
문혜옥	서산시 읍내동 797-19	664-1006	"
문희태	서산시 읍내동 44통 772-8	665-6727	"
박영춘	서산시 동문동 1033-5	665-6498	"
박태진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241-25	02-3473-8815	"
박희량	서산시 대신읍 대신초등학교	669-7584	"
서종숙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누리A 112/103	042-485-4771	"
성정희	서산시 동문동 동부시장내 <화남전기>	665-4370	"

송국범	서산시 죽성동 삼성A 103/1005	665-8481	회원
송숙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현대A 105/1005	062-376-2946	"
신득균	서산시 읍내동 부영A 106/1305	669-5254	"
유병인	서산시 읍내동 466-10 <인쇄기획 가야>	667-6400	"
윤용문	서산시 성연면 평리 19	662-8493	"
윤인섭	서산시 장동 푸른솔A 105/209	017-411-5663	"
윤혜선	서산시 죽성동 삼성A 115/1301	667-4982	"
이근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 영남탑스빌라 104/306	011-452-3737	"
이병우	서산시 읍내동 72-10	667-9897	"
이성주	서산시 읍내동 11통 219	665-3007	"
이영동	서산시 읍내동 부영A 102/705	666-1317	"
이종완	서산시 음암면 탐곡리 1구 634	663-5633	"
이화란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푸르른 문화공간>	688-1950	"
주병구	서산시 석림동 신주공A 208/506	666-0053	"
최병기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현대정유A 201/204	660-4154	"
최소녀	서산시 읍내동 91	662-0399	"
편세환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857	663-6135	"
한근식	서산시 읍내동 612-10	667-3926	총무
한주희	서산시 동문동 882-7	666-1441	"
홍인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한신A 7/114	02-437-0248	"

편집후기

- 새 천 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 보았다.
그간 창간호에서 9집까지 정감 있는 표지 그림을 맡아주신 한동철 회원님과 9집까지의 한자 제자를 산뜻한 한글 제자로 바꿔 써주신 송국범 회원님께 감사 드린다.
 - 이근숙, 맹정호, 윤인섭, 한주희, 편세환, 이병우 회원님께서 서산문화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다. 신선한 감각과 풍부한 관록을 겸비하신 신입회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 제2의 서산문화 창간 - 서산문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유익한 만남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주신 주병구 회원님의 노고를 치하한다. 뒤 돌아다보니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다.
 - 의욕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안타까움도 느꼈지만 어느덧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음을 약속하지 않을 만큼 잘 해보려 했는데...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다. 여기 술잔이 비었습니다.
-

서산문학 제10집

인쇄일 / 2000년 10월 25일

발행일 / 2000년 11월 1일

펴낸곳 / 서산문화회

발행인 / 이영하

만든곳 / 인쇄기획 가야 (041) 667-6400

이 책은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과 서산시로부터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